

“셀프(Self)·캠프(Camp)·점프(Jump)”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 및
진행 전문가(Planner and Facilitator) 양성 프로그램



2005. 12

글 / 의 / 순 / 서

글/의/순/서 (▶ 2쪽)

전/체/사/업/개/요 (▶ 4쪽)

I. 생태환경캠프 워크숍,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하여”

√ 사업개요 (▶ 7쪽)

√ 워크숍 발제 및 토론문 (▶ 9쪽)

발제 1. 생태환경캠프의 의미와 방향 / 황선진 (마리학교) (▶ 9쪽)

발제 2. 생태환경캠프의 현재 / 환경교육센터 (▶ 11쪽)

사례발표. 가. 교육문화연구소 바라기닷컴 / 최병덕 (▶ 42쪽)

나. 즐거운 학교 / 이광재 (▶ 48쪽)

다. 부산환경운동연합 / 정명숙 (▶ 50쪽)

지정토론. 김종필(문화연대), 윤지선(녹색연합), 친구샘(또랑), 김두림(환생교) (▶ 56쪽)

II. 생태환경캠프 지도자양성과정, “셀프(Self)·캠프(Camp)·점프(Jump)”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 및 진행 전문가(Planner and Facilitator) 양성과정

√ 사업개요 (▶ 65쪽)

√ 강의원고 및 참고자료 (▶ 7쪽)

첫째날 : [희망나누기] 오리엔테이션·도입 / 환경,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캠프 / 마음열기,
인간관계형성 프로그램 (▶67쪽)

둘째날 : [점프하기]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단계 업그레이드하기 / 안전 및 보건교육
/ 자연놀이·자연미술 / 셀프가족캠프 기획·발표하기 (▶78쪽)

셋째날 : [함께나누기]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 워크숍 전체평가, 수료식 (▶98쪽)

√ 활동자료 워크숍 자료, 평가자료 (▶106쪽)

√ 참가후기 (▶112쪽)

#Ⅲ. 셀프 가족환경캠프, “웰컴투 생태마을”

√ 사업개요 (▶119쪽)

√ 참가후기 (▶121쪽)

#Ⅳ. 부록

√ 생태환경캠프 교육일지·모니터링 일지 (▶1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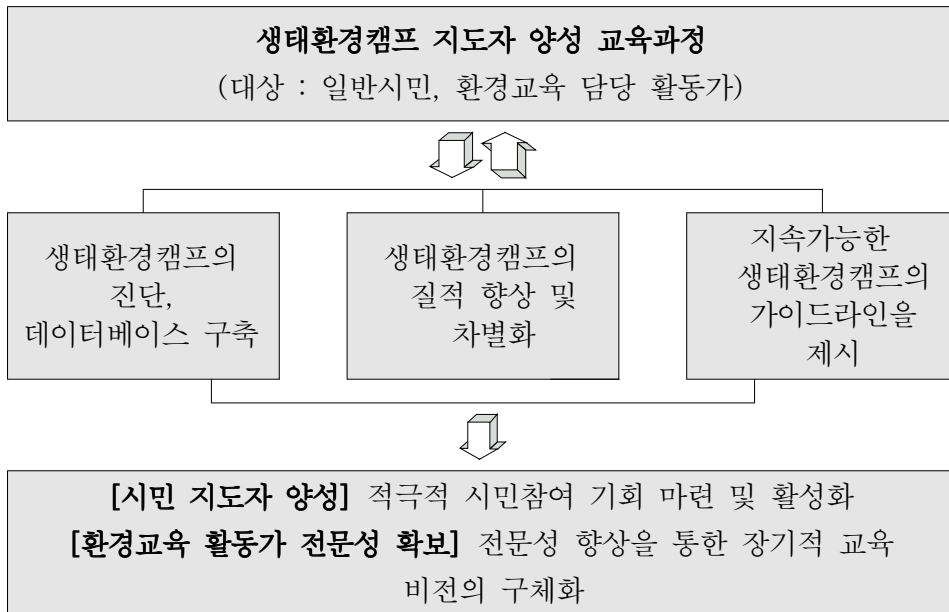
√ 환경교육센터 소개 (▶142쪽)

전 / 체 / 사 / 업 / 개 / 요

가. 제목: “셀프(Self)·캠프(Camp)·점프(Jump)”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 및 진행 전문가(Planner and Facilitator) 양성 프로그램

나. 목적 (사업취지 및 필요성)

생태환경캠프의 현재 진단, 환경교육담당자 및 시민 지도자 양성, 생태환경캠프의 질적 향상과 차별화된 가이드라인 제시를 목표로 한다.



다. 사업내용

재미있고 유익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해서는 체험·지식·흥미를 균형있게 녹여낼 수 있는 전문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기획·진행·평가 단계에 있어서의 명확한 역할 이해가 필요하다. 놀이와 레크레이션, 민주시민교육 등의 방법론 교육과정을 비롯하여, 기획·진행·평가 단계에서 세부적으로 필요한 노하우, 경험들을 공유하고 체계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그리고 이들 내용을 직접 적용하는 “스스로 캠프”를 기획·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생태환경캠프의 질적인 업그레이드와 함께, 전문 생태

환경캠프 지도자를 양성하고, 네트워크 및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발전적 공유, 지속적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라. 사업방법 (사업추진단계)



마. 기대효과

- 적극적인 시민참여 유도 및 시민지도자 양성
- 환경교육 및 회원담당자의 교육 전문성 확보, 지속적 활동의 토대 마련
- 바람직한 생태환경캠프의 모델 개발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의 가이드라인 제시

[생태환경캠프 진단 워크숍]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하여”

때 : 2005. 6. 10

곳 :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워크숍 발제 및 토론문 (▶9쪽)

발제 1. 생태환경캠프의 의미와 방향 / 황선진(마리학교) (▶9쪽)

발제 2. 생태환경캠프의 현재 / 민여경·장미정·안창연(환경교육센터) (▶11쪽)

사례발표.

가. 교육문화연구소 바라기닷컴 / 곰샘 (▶42쪽)

나. 즐거운 학교 / 이광재 (▶48쪽)

다. 부산환경운동연합 / 정명숙 (▶50쪽)

지정토론. 김정필(문화연대), 친구샘(또랑), 윤지선(녹색연합) (▶56쪽)

[발제 1]

생태환경캠프의 의미와 방향

황선진 (maragaby@kornet.net, 마리학교)

가.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생태환경 캠프

- 1-1. 캠프는 일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종합 교육입니다.
 - 1-2. 교육은 그 교육을 주관하는 주체가 자신들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간을 재생산하는 과정입니다.
 - 1-3. 개별 캠프는 주체가 의식하고 있든, 그렇지 않든 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 1-4. 특히 생태환경 캠프는 주체가 지향하는 이념 및 정신을 향한 과정으로 자리 매김 되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
- 2-1. 시대정신은 당대(當代)를 살아가는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들이 자신의 생명을 유지-보호하기 위하여 갖는 간절한 바람을 집약합니다.
 - 2-2. 시대정신은 현 지배체제에 대한 태도로부터 출발합니다.
 - 2-3. 현재 지구촌의 지배체제는 자본주의, 피라미드형 종적(縱的) 위계체계(位階體系)입니다.
 - 2-4. 지구촌의 현 지배체제 속에 놓여 있는 인간 및 모든 생명들의 생존 조건은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한계점에 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당대의 보편적 시대정신은 탈(脫)-비(非)-반(反) 자본주의를 통한 인간 및 생명 중심주의, 소우주들의 횡적(橫的) 네트워크로 모아 볼 수 있습니다.
-
3. 생태환경 캠프에 우리 당대의 보편적 시대정신이 살아 숨쉬는 일이 바람직합니다. 캠프의 기획, 운영, 캠프 참가자의 구성, 식단(食單) 등에 이르기까지 그 정신이 미칠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가칭)생태환경장(生態環境匠)에 대하여

4. 생태환경 캠프를 통해 시대정신으로 가는 길에 필요한 생태적 덕목(德目)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함양함이 바람직합니다.
5. 덕목과 기능의 획득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객관적 지표(指標)가 필요합니다.
6. 이를 위해 (가칭)생태환경장 시스템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예. 생태환경장 천연염색 부문, 생태환경장 집짓기 부문, 생태환경장 숲 해설 부문, 생태환경장 두부 만들기 부문, 생태환경장 벼농사 부문 등)

[발제 2]

생태환경캠프의 현재

— 사례 및 현황조사를 중심으로 —

민여경 (birch@ournature.org, 이화여대 환경교육전공)

장미정·안창연 (edutopia@kfem.or.kr, 환경교육센터)

환경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우리가 함께 일하고,
서로서로 보살피며 지내는 삶이 좀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준다는
깨달음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데 있다. - 이반 일리치

1. 캠프의 어원과 정의¹⁾

캠프(Camp)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의 캠푸스(Capus)와 희랍어의 케폰스에서 유래되었다. 전자는 전쟁 또는 훈련군대가 주둔하였던 ‘들’을 의미하였으며 후자는 ‘정원’을 뜻하는 단어이다.

일반적으로 영어사전을 보면 Camp는 명사로서 근대의 야영지, 군대나 보이스카우트 또는 여행자들의 임시 막사 또는 산장, 군대생활, 천막생활이라고 풀이하였다. 자동사로서는 천막을 치다, 야영을 하다, 야영을 시키다 등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보이스카우트는 캠프를 넓은 뜻에서 ‘산, 들, 호수, 바다, 구름 등의 자연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미국 캠프협회에서는 ‘조직캠프는 자연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단체 생활을 경험하는 것이다. 야영은 유능한 지도자의 감독하에 야외에서 지속적으로 얻어지는 경험들이다. 야영은 야외에서 얻어지는 창조적, 교육적인 경험들을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모두가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의 자연환경 자원들을 적극 활용한다.’고 정의하였다.

캠프는 양영, 노영, 막영, 숙영, 캠핑, 야외생활, 텐트생활, 막사나 천막생활, 군대생활,

1) 인용출처: 김호림(1997). 캠프(야영)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의도적 조직적 활동 등 인간 활동적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하고 들, 정원, 산장, 전장, 야전지, 야영기지, 일시적 장소, 인격도야의 장 등 위치, 장소의 측면에서 설명하기도 하며 그 외 친구, 동지, 심신의 피로를 푸는 방법, 교육수단, 교육과 레크리에이션의 결합, 하나의 작은 세계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캠ป์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집을 떠나 일정한 장소에 거주지를 정하고 유능한 지도자의 지도아래,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캠ป์활동이란 대자연(산들호수바닷가구릉지 등)속에서 막사나 천박을 숙소로 하여 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각 개인의 적응을 목표로 하는 실제적인 교육의 목적과 사회 적응 및 정서적 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목적을 지닌 사회적 레크리에이션의 장점을 합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캠ป์ 활동은 건강 증진, 정서적인 안정, 생활 기술, 사회적응 능력, 정신적 성장, 민주 시민으로서의 행동과 성격발달, 민주적인 생활 경험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2. 캠ป์의 역사²⁾

캠ป์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캠ป์가 교육방법의 하나로 관심을 갖기 이전, 수천년 전부터 인류의 생활 그 자체가 야영생활이었을 것이다. 원시인들은 자연의 무서움이나 야수 등의 공격으로부터 자신들을 지켜 나가는 지혜를 터득해 가며 자신의 몸과 가족 또는 부족들의 안전을 도모하였으니 그들의 모든 생활이 바로 캠ป์인 것이다. 유목민들은 환경에 적응하며 스스로 자연 속에서의 생활을 영위하고 생존기술을 체득하여 자급자족의 능력을 길러 적용해 왔다. 자연 속에서 자연을 이용하여 의식주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체득하고 자기를 보호한 인간 생활의 모두가 캠ป์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다.

문명이 발달한 이후의 캠ป์의 모습은 인간에 대한 소외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보는데,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발달하고 인간의 삶이 향상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빈부의 격차와 사람의 할 일을 기계가 대신하게 되면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대량생산된 물건들은 특정 계층에게만 쌓여가게 되고 상층과 하층의 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인간에 대한 소외의식은 인간의 시각을 자연으로 돌려보내게 되었고, 한적한 숲 속이나 인적이 없는 강가 등 자연 속에서 소박한 꿈

2) 인용출처: 캠ป์ 길라잡이 www.openschooli.net

들을 영위하게 된다.

캠프는 단순히 야외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업혁명 이후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야외 생활을 하게 되며 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청소년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게 되었고, 경제 대 공황이 닥쳐 실업자가 늘고 사회 혼란이 직면하였을 때에는 사회성을 강조하는 캠프였으며, 2차 세계대전 때부터는 민주적인 도덕을 청소년에게 가르치게 되면서 민주성을 강조하였다. 세계 안정과 평화,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가 유지되면서 캠프는 자아실현을 강조하는 참가자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캠프에 참여하게 된다.

3. 캠프의 종류³⁾

캠프의 종류에는 발생순으로 보면 최초의 성경수양회 (1880), 최초의 YMCA 캠프 (1885),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 교양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한 소녀캠프(1891), 보통의 캠프와 같지만 숙박을 하지 않고 집에 돌아가서 잠을 자는 데이캠프(Day Camp, 1909) 등이 있다. 이러한 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캠프는 보다 다양화 되었고 어린이들의 교육적인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대안학교들의 등장으로 인해 캠프는 테마화, 다양화되어 왔다.

(1) 역사캠프

먼저 유적지를 결정하고, 전문 선생님에게 장소에 대한 사전지식을 들은 다음, 역사적 사실과 고적을 살펴보는 캠프로, 역사적 유물을 통하여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생각을 키워줄 수 있는 캠프로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며 역사적 상상력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는 효과가 기대할 수 있다.

(2) 자연생태캠프(생태환경캠프)

늪지나 호수, 들, 숲 등 특수생활환경을 답사하고 그곳의 생태를 조사, 기록, 관찰, 비교, 견본수집, 사생, 촬영 등을 통해 자연을 연구하는 캠프이다. 반드시 전문가와 동행하며 자연을 통괄적으로 탐사해보거나, 혹은 자연의 여러 분야를 곤충, 물고기, 숲, 새 등으로 나누어 탐구해보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 자연생태캠프는 어린이들이 자연과 하나됨으로 인해 자연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인식하고 자연 친화적인 사고를 기를 수 있다.

3) 인용출처: 위의 사이트

(3) 과학캠프⁴⁾

과학캠프는 한정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학활동이다. 학생들은 비좁은 교실과 실험실을 벗어나 직접 자연 속에서,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법을 찾는 능동적인 탐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과학캠프활동은 자율학습과 집단사고의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가 된다. 동시에 학습 현장에서 이 캠프 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때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유발은 물론 과학에 대한 자질과 적성이 조기에 발굴되어 과학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1988)

(4) 우주과학캠프

대표적인 것으로 별자리 캠프가 있는데, 늦은 오후나 저녁에 실시하는 캠프로 너무 어두운 밤에는 행동하기가 불편하므로, 상현달이나, 하현달의 4분의 1일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다. 이때에는 작은 별, 은하수가 사라지고 별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별들이 선명하게 보인다. 별자리를 탐구하며 우주에 대한 꿈을 키우며 생각의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캠프이다.

(5) 생존 / 모험 캠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관심을 유도하며 각종 야외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자연과 함께 심신을 단련하고 호연지기를 키울 수 있는 캠프이다. 아영프로그램으로 체력을 단련하고 인내를 기르게 하며 더 나아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심감과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목표로 하는 자연학습 활동이며, 또한 스스로 위험요소를 판단하게 되고 단체생활을 통해 자신의 특기를 발견하여 개발할 수 있다.

(6) 전통문화캠프

우리의 옛것을 되새겨보며 어린이들에게 선인의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캠프이다. 대표적으로 서당이나 전통놀이캠프를 들 수 있다.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로만 들었던 것들을 직접 체험해 보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와 웃음을 함께 배울 수 있다.

4) 인용출처: 서울시교육위원회(1988). 초등학교 과학캠프 운영자료, 문성경인주식회사

(7) 봉사캠프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봉사함으로 인해 어떤 대가성이나 목적을 가지고 하는 봉사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봉사를 경험한다. 일시적 이벤트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어린이들이 봉사활동을 단체로 자연스럽게 접해봄으로 인해 앞으로의 봉사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의 한사람이라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됨으로 인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감을 배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

(8) 원시 캠프

옷 NO, 화장실 NO, 집 NO. 컴퓨터 물론 NO.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아야 하는데 산업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자연에 대한 감수성을 잃게 되었다. 이에 자연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뜻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철저하게 자연과 동화되어 생활을 하게 된다.

(9) 영상캠프

영상캠프는 미디어가 범람하는 영상물의 홍수 속에 영상에 대한 지식의 습득과 영상제작을 통해 자신의 세계를 표현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10) 지도자캠프

자신감을 기르는 캠프이며 올바른 리더쉽 개발을 통하여 좋은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캠프이다.

(11) 가족캠프

점점 깨져가는 가정을 회복시켜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돕고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캠프이다.

(12) 국제캠프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며 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캠프이다. 외국의 다양한 삶과 문화의 체험을 통해 자신이 위치한 확인하고, 구체적인 비전을 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13) 장애인 캠프

장애인 캠프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입고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캠프이다.

4. 캠프 프로그램의 설정원리 및 고려할 점⁵⁾

첫째, 캠프의 목적과 목표가 확연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정원리는 자연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캠프가 아니면 배울 수 없는 학습, 관찰, 연구 등으로 되어 있어야 한다.

둘째, 캠프에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설정원리는 참가자가 학습내용이나 일 등을 잘 알도록 담당자가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 참가자들의 뜻이 존중되고 처음 참여하는 참가자에 대한 배려와 참가자들의 능력을 고려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셋째, 장소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캠프장소의 시설과 자연조건의 충분한 활용, 안전대책의 문제, 물리적 조건의 고려, 우천시나 급변상황에 대비를 위한 제 2후보지를 정해 놓아야 한다.

넷째, 프로그램의 계획과 실행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유시간과 휴식시간의 구별배치, 게임, 연극, 춤 등 우정을 깊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적용, 충분한 시간배려, 각 프로그램의 주제의 명확화 참가자들의 역할분담, 실행방안, 예산문제, 홍보 방법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다섯째, 평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가자의 의견이다. 이를 위해서는 평가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보고서 및 참고자료 출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5. 야외 환경교육의 특성⁶⁾

야외환경교육은 야외교육과 환경교육의 접점에 있다. 야외환경교육은 ‘환경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과 상관관계에 대해 야외에서 다양한 감각을 통해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Ford, 1981)이라고 정의한다. 생태환경캠프는 야외환경교육의 한 유형으로서, 원거리 체류형 야외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할 수 있다.

5) 인용출처: 김송석(2002). 장애학생의 캠프활동. 현장특수교육, Vol. 9 No. 4, 8~13

6) 인용출처: 이재영, 이선경, 김인호, 정진영(1995). 위계적 총체성과 개방적 상호의사소통에 의한 환경캠프 프로그램 평가방법. 환경교육, 제8권, 107~121

생태환경캠프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반영해야 할 야외환경교육의 중요한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Ford, 1981; Priest, 1986; Sharpe, 1982).

- ① 환경교육이 내용 중 야외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때 사용하는 교육방법이다.
- ②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감각을 통해 직접 접촉하게 함으로써 진행되는 교육방법이다.
- ③ 야외환경교육이 학교 혹은 교실 내에서 실시되는 환경교육을 대신할 수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 ④ 피교육자와 교사가 서로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과정의 기본적 토대가 된다.
- ⑤ 야외환경교육을 통한 체험이 비록 독특하더라도 일상적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 ⑥ 구체적인 체험들을 보편적 원리로 승화하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⑦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행하고 보고 느낀 것을 가장 잘 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⑧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중요시 되고 있는 환경교육 방법이다.

6. 생태환경캠프 프로그램의 유형⁷⁾

생태환경캠프 프로그램을 유형화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대상지, 참가자, 캠프방식을 들 수 있다.

- 대상지 : 산악형, 하천형, 해안형, 도서형이 주를 이루며 몇 가지 유형이 결합된 복합형도 있다. 대상지의 특성에 따라 더욱 다양해질 것이다.
- 참가자 : 참가자의 성격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신청자를 받아들이는 개방형과 일정한 연령·학년·소속여부 에 따라 참가자를 한정하는 제한형이 있고, 가족대상을 별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캠프방식 : 한 곳에 머물면서 인접한 지역에서 활동하는 체류형, 베이스캠프는 정해져 꽤 먼 거리까지 이동하는 답사형, 베이스캠프를 정하지 않고 이동하면서 활동하는 순례형이 있다.

7. 환경캠프의 목적과 목표⁸⁾

7) 인용출처: 위의 자료와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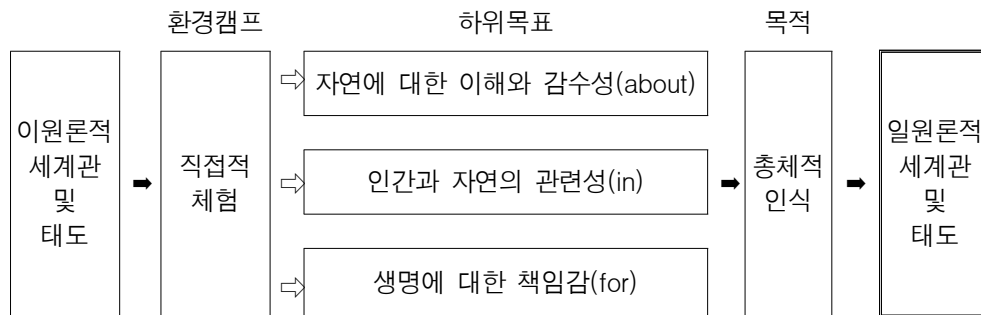
환경캠프는 3가지 측면에서 목표를 세분하였다.

첫째, 환경에 대해서(about)이다. 이는 환경을 이론이나 추상으로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체로서 접촉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는가라는 측면의 기준이 된다. 따라서 대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데, 예를 들면 ‘갯벌에 살고 있는 동물들과 해안식물을 관찰하고 그 특성과 가치를 이해하며’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대상지(장소)를 평가의 핵심요소로 구분한 근거와 연관되는데, 이를 ‘자연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 목표는 지식, 기술, 인식과 관련된 영역이다.

둘째, 환경 안에서(in)이다. 학교에서는 자연을 대상(object)으로 다루기 쉽다. 관찰자인 내가 있고 자연은 저기 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적 태도를 극복하기 위한 목표를 수립해야 하는데, 아주 작은(micro) 세계로부터 아주 큰(macro) 세계까지 다양하게 체험함으로써 인간이 자연의 다른 많은 존재들과 상호의존적인 연관성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조직해야 한다. 따라서 목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보다는 ‘수서곤충 조사와 별자리 관찰을 통해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가 되어야 한다. 이 목표는 인식 및 태도와 관련된 영역이다.

셋째, 환경을 위해서(for)이다. 근본생태주의자들은 이 ‘위해서’라는 표현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담고 있는 말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공감이가는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위해서’라는 말을 상호의존성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한 ‘생명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목표영역 중 태도, 참여와 관련된 부분이다. 활동 프로그램 중 오염지역이나 파괴된 생태계를 답사하는 부분이 포함된다면 이 세 번째 목표와 관련된다.



[표 1] 생태환경캠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8) 인용출처: 위의 자료와 동일

서론에서는 캠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짚어 보았다. 본론에서는 생태환경 캠프의 사례와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1. 사례로 살펴보는 생태환경캠프의 종류

(1) 기행(나들이)

비숙박 당일 프로그램으로 캠프의 범주에 넣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일캠프(데이캠프)의 한 종류로 볼 수 있다.

일일캠프의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1996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한 ‘생태기행’을 들 수 있다. 생태기행은 각 대상별 개별적인 교육을 벗어나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현장체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서 요즘은 여행사에서 앞다투어 내놓는 유사한 생태기행이 범람하고 있어 환경교육적인 부분보다는 여가생활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생태기행이라는 언어가 낫설었던 초창기에는 신선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엄마와 아빠와 함께 많은 가족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일일캠프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으로는 생협에서 조합원과 생산지를 연결하는 현장방문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현장방문을 통해 조합원이 공급받고 있는 농산물이 자라는 환경을 둘러보고 직접 농사일의 체험도 할 수 있다.

<사례> 생명의 숲 “2005년 생명의 숲기행 일정”

행사명	일정	장소
남도숲기행	1. 22 - 1. 23	담양/장성/고창군 일원
우리네 마을숲을 찾아서 1	3. 26	경북 예천군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숲
우리네 마을숲을 찾아서 2	4. 24	외암리 민속마을/봉곡사입구
천년의 숲으로	5. 21	영월군 남면/청령포/선돌
남도숲기행	6. 25 - 6. 26	완도수목원/다산초당/백련사/보성다원
우리네 마을숲을 찾아서 3	9. 25	경남 함양군 함양읍 상림숲
10월의 광릉숲	10. 22	광릉숲 임업연수부 뒤편

(2) 환경캠프

생태환경캠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생태환경캠프라 해도 무방한 것으로 가장 선호되고 있는 형태이다.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일상적인 공간을 떠나 자연환경으로의 여행을 떠나는 형태로 새로운 사람과 자연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보통 짧게는 1박 2일에서 길게는 5박 6일의 일정으로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실시되고 있다.

<사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2004년 여름환경캠프 현황”

캠프	장소	일정	프로그램	참가비
전국 환경연합 회원대회	부산해운대	7.17~18	지역별 현안 이해. 친환경 먹거리 나누기. 환경영화관람. 이야기마당. 모래성 쌓기. 작은 운동회. 바다체험. 회원퍼포먼스. 금정산 지킴이 장승세우기	2만원
유기농원두막캠프	음봉산정리 유기농장	7.24~25	유기농밥상나누기. 유기농견학-강좌 및 체험. 유기농퇴비 만들기. 식물표본-들꽃 탐사. 창포체험. 전통음식. 택견. 반딧불 체험. 천연염색. 자연물이용 만들기	회원-25천원 일반-3만원
푸름이 여름캠프	광덕산 담음도예	7.29~31	오카리나 만들기(재활용품 이용). 도예 체험. 천연염색. 숲 체험 및 수생식물탐사. 여름별자리관찰. 짚풀 공예. 황토체험. 환경영화감상. 신나는 물놀이. 요리체험	회원-3만원 일반-35천원
미리내	창녕우포늪	8.12~14	천연염색. 우포늪탐사. 여름철새관찰	3만원
대청호캠프	금산홍도마을	8.6~8	농촌 일손 돕기. 두부 만들기. 물레방아 만들기. 천연염색. 짚풀 공예. 물놀이. 반딧불관찰. 수생식물탐사. 인삼농장 둘러보기. 용담댐견학	회원-35천원 일반-4만원
고등학생지리산탐사	지리산	8.19~21	거림-세석-장터목-천왕봉-치말목-대원사-진주	3만원

(3) 국토순례(탐사)

국토순례는 일반적인 환경캠프와 비교하여 일정이 길고,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다양한 장소나 일정한 지역을 도보를 통해 직접 걷고 느끼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연체험뿐만 아니라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전통, 문화를 함께 배울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1997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9회를 맞고 있는 ‘푸름이 국토환경대탐사’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푸름이국토환경탐사”

1997년부터 시작된 푸름이국토환경탐사는 제 1기 한강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2005년 제 9기를 준비 중에 있다. 주요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청소년들이다.

- 취지: 자연에 대한 유년시절의 기억은 현재 우리 삶을 풍요롭게 지탱하게 하는 원천이 되어 주고 있다. “푸름이 국토환경대탐사”는 도시가 주는 인공적 물질의 경계를 넘어 대자연과 풍성한 만남을 통해 우리나라 국토의 아름다움의 환경적 가치와 사람과 ‘공존’하는 생명에 대한 깊은 안목을 키울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
- 기대효과
 - 현장체험을 통해 생태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키운다.
 - 경쟁적 교육풍토를 벗어나 공동체의 생활을 통해 ‘나’와 더불어 있는 친구들’에 대한 일상에서의 배려와 공동체의식의 강화 및 단체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온 ‘이웃’들의 삶을 통해 친환경적 삶의 태도를 배운다.
 - 학교에서의 이론적인 지식탐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체험적이며 종합적인 환경교육을 통한 새로운 교육의 자리를 마련하며, 동시에 학생이 주체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개발하는 장으로 활용한다.
 - 자연에 대한 생태적 감수성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탐방함으로써 동일공간인 한반도에서 수천년 동안 쌓여온 우리의 역사와 문화 속에서 운명을 같이해온 사람들과의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는 역사문화 교육의 현장이 된다.

이외에도 생태환경캠프의 범주에 넣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는 “박카스D와 함께하는 대학생 국토대장정” 이 광복 60주년을 맞아 마산을 출발로 합천, 상주, 문경, 원주를 거쳐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21일간 완주하는 것을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다.

연도	장소	주제
1997년	한강	생명의 젓줄 한강 대탐사
1998년	섬진강	살아있는 강 섬진강 대탐사
1999년	동강	태고의 신비 동강 대탐사
2000년	서해안	서해안 갯벌 대탐사
2001년	남도	땅 끝을 따라 남도 섬마을까지
2002년	제주도	체험 제주도! 걸어서 한라까지
2003년	남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섬, 남해 대탐사
2004년	지리산	지리산 850리 생태문화 대탐사
2005년	강원도	강원도 굽이굽이, 다시 자연의 시대로

(4) 지도자양성과정

숲해설가, 숲안내자, 생태지도자, 생태안내자, 자연해설가, 생태문화지도자... 등 많은 용어들로 표현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환경교육의 현장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의미한다. 다양한 용어만큼이나 많은 단체와 지역에서 다양한 환경주제를 가지고 지도자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 오고 있다.

생태환경캠프뿐만 아니라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것과 함께 적합한 양질의 강사를 섭외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질을 보장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점의 하나이다.

지도자양성과정은 일정기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데 교육의 내용과 장소에 따라 캠프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하고 교육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숙박형태로 마무리를 하기도 하여 생태환경캠프의 범주로 넣었다.

숲교육이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숲해설가협회와 같은 숲해설가를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단체들이 생겨났고, 생명의 숲에서도 매년 숲안내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숲연구소에서는 숲생태교육 아카데미를 통해 숲체험 교육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다. 환경정의시민연대에서도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생태지도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를 비롯하여 많은 단체에서는 고정적인 생태지도자 양성과정을 개설하고 있지는 않지만 비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여성환경연대에서는 여성생태안내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로 4기를 맞고 있는 여성환경연대의 생태안내자 모임은 올해부터 ‘울림’이라는 이

름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지역의 단체의 경우에는 지역 고유의 생태와 문화를 교육할 수 있는 ‘지역생태 문화 안내자’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5) 워크숍

워크숍의 형태를 생태환경캠프의 범주에 넣어야 할지 망설여지기는 했지만, 많은 경우 워크숍은 발표와 토론의 형태의 당일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기도 하지만, 환경교육 워크숍의 경우에는 워크숍의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이외에도 체험프로그램과 답사프로그램을 일정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아 생태환경캠프의 요소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해 범주에 넣었다.

환경교육을 주제로 하는 워크숍의 교육내용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참여대상도 (물론 관심을 가지는 일반시민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환경이나 환경교육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관련전문가들이다. 일반적인 생태환경캠프보다는 어느 정도 전문화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

(6) 해외연수 프로그램

환경교육의 대상, 주제, 내용의 다양화뿐 아니라 환경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점차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환경교육 분야로 국제적인 교류가 확대되고 있고, 해외의 교육현장에서의 체험교육을 경험할 수 있는 해외연수를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증가 추세에 있다.

지금까지 해외연수는 특정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연수가 이루어지는 장소도 해외의 환경이슈의 현장이나 환경교육 현장,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와 회의 등이었다. 점차 해외연수의 대상도 해당분야에 관심 있는 일반인과 학생들로 변화하고 있다.

숲연구소에서는 ‘숲’을 주제로 어린이·성인의 숲체험교육, 숲체험 교재·교구 개발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숲연구소의 주요사업 중 올해 진행중에 있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명	장소	목적
유럽 체험환경교육 연수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자연학교, 자연학습장, 환경교육 현장	·우리나라 숲체험교육 발전과 숲체험 교육자들의 능력향상과 숲체험교육 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나간 독일과 스위스의 숲교육관과 자연학교, 체험학습장을 답사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실을 짚어 본다.
숲연구소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 숲체험 캠프	독일 바이에른 국립공원 내 숲체험 캠프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 숲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숲생태 지도자 유럽 장학생 사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학교	·숲생태교육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여 선진유럽의 자연체험학교와 연계하여 숲체험분야의 전문 교육자를 양성한다.

위의 프로그램 중 유럽 체험환경교육 연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사례> 유럽 체험환경교육 연수

- 일시 : 2005년 7월 28일 ~ 8월 4일(7박8일)
- 장소: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자연학교, 자연학습장, 환경교육 현장
- 대상: 숲연구소FC, 숲생태아카데미 수료생 및 숲연구소 후원회원
- 경비: 1인 2,750,000원
- 연수 일정

일차	일자	일 정
1일	7/28	인천국제공항
2일	7/29	프랑크푸르트공항 입국, Haus des Waldes(숲교육관) 교육시설 견학
3일	7/30	자연학교 Waldklassenimmer견학
4일	7/31	바이에른 국립공원 체험교육 참여
5일	8/1	흑림 및 생태도시 프라이부르크 견학
6일	8/2	스위스 쥐리히 자연학교 체험교육 코스참여
7일	8/3	프랑크푸르트 공항 출국
8일	8/4	인천공항 입국

(7) 국제환경캠프

국제환경캠프는 다양한 목적과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 나라를 그 나라의 환경과, 그곳을 터전으로 하여 사는 사람들과, 현재 그 터전과 사람들이 살고 있는 혹은 누리고 있는 환경적 토대와의 만남을 통해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한 나라에 대한 정보와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래 소개되는 사례는 필리핀에 주재하고 있는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에서 환경이슈를 중심으로 기획되고 진행된 연수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어떤 부연설명보다 생태환경캠프로서 국제환경캠프의 주요한 면모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사례> 필리핀을 통해 아시아를 본다 [① 환경]

- 부제 : 환경이슈가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기반한 ‘주민조직화’ 운동 체험 및 아시아 아젠다 찾기
- 기간 : 2004. 11. 22 ~ 12.6 (15일간)
- 장소 : 필리핀 아시아센터, 필리핀 현지 각 현장
- 주최 :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
- 후원 : 환경재단
- 주요 프로그램

	주제	프로그램 내용
1	왜 아시아인가?	·국제연대 및 아시아 운동 강의 및 토론 ·아시아 아젠다 및 비전 찾기
2	필리핀을 통해 아시아를 본다!	·필리핀의 사회 및 환경운동 강의 ·필리핀 환경부장관 면담 ·국제 및 국내 환경단체 방문 ·환경이슈 현장방문
3	커뮤니티의, 커뮤니티를 위한, 커뮤니티에 의한!	·주민조직화 운동 등에 대한 강의 및 토론 ·환경이슈 지역에서의 주민조직화 운동 체험(4일) [사례1] 라구나 호수, 대형 제방건설사업 관련 주민운동, [사례2] 사우스 철도, 초국적 투자사업 관련 주민운동
4	회고 및 전망세우기	회고 및 서로의 전망나누기, 천혜의 필리핀 환경체험

•프로그램 소개

- 본 프로그램은 참여형 교육 방법(Participatory Education)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습과 회복의 과정(Reflection), 자신의 국제 감각을 키우고(Empowering),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Human Network)을 살리는 Up-Grading Project로써, 각 분야의 아시아 아젠다(Asia Agenda)를 발굴하고 운동의 축적으로 살려내고자 한다.
- 본 프로그램은 시민사회단체의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단기간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 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운동에 있어서의 국제 활동영역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 본 프로그램은 ‘환경’ 주제를 시작으로, 여성, 시민사회개발, 교육 등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각 주제에 따른 집중성을 높이고 나아가 아시아 아젠다에 대한 전망을 구체화할 것이다.

※ 구체 일정 및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소개	강사	장소
11.13 (토)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필리핀 생활 안내	연수 프로그램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와 취지, 필리핀 연수를 위해 미리 준비해야 할 상황들, 생활안내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나효우 (아시아센터)	한국
11.22 (월)	입국		*공항 픽업	아시아센터	마닐라공항
11.23 (화)	AM	휴식	*숙소 도착시간이 새벽 2시경이 되므로 현지적응 시간 필요함		숙소
	11-12 AM	입학식	입학식, 현지오리엔테이션	성리혁수 (아시아센터)	아시아센터
	2-4 PM	강의	국제 연대, 아시아운동의 필요성	나효우 (LOCOA)	LOCOA
	6-7 PM	전체 활동	참가자 소개, 기대나누기	장미정 (아시아센터)	숙소
11.24 (수)	10-12 AM	단체 방문	국제 환경 NGO	Greenpeace / GAIA	Greenpeace / GAIA
	2-4 PM	단체 방문	국제 환경 NGO	WWF	WWF

				활동		
	8-9 PM	전체 활동	느낌 나누기	하루의 일정은 충분한 느낌나누기(Reflection)	참가자	숙소
11.25 (목)	9-12 AM	강의	필리핀의 환경 운동	필리핀의 환경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필리핀의 환경운동의 역사와 현황들을 알 수 있다.	김익배 (아시아센터)	숙소
	2-4 PM	단체 방문	필리핀 환경 운동 단체	다양한 스펙트럼의 환경단체들을 통해 환경문제를 접근하는 필리핀의 실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그룹 활동 및 토론)	TAMBUYOG / PTFBCU	TAMBUYOG / PTFBCU
	8-9 PM	전체 활동	느낌 나누기	하루의 일정은 충분한 느낌나누기(Reflection)	참가자	숙소
11.26 (금)	9-11 AM	면담	환경부 장관 면담	필리핀 환경부와의 면담, 필리핀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인식하고 전망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	환경부
	2-3 PM	오리엔테이션	현장 방문 지역의 이슈 및 상황	현장 활동지역 및 이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성이혁수 (아시아센터)	숙소
	4-6 PM	오리엔테이션	현장 활동 지역의 이슈 및 상황	현장 활동지역 및 이슈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Soti(COPE) /Nards(CPE)	숙소
	8-9 PM	전체 활동	느낌 나누기	하루의 일정은 충분한 느낌나누기(Reflection)	참가자	숙소
11.27 (토)	9AM-1PM	현장 방문	아시아 환경문제의 실제	필리핀을 통해보는 아시아의 환경 문제, 특히 초국적 기업들에 의한 현안을 통해 아시아 환경의 현재와 가능성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UFO-OD	Pandacan
	8-9 PM	오리엔테이션	느낌나누기 및 현장 활동 안내 및 준비사항	현장 활동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으로써 현장에서의 돌발 상황들을 대비하고, 효과적인 현장 활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돕는다.	장미정 (아시아센터)	숙소
11.28 (일)	9-12 AM	강의	Community Organizing의 이해	필리핀의 대중 조직화 운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강의	Fides (COM)	COM
	1PM~	현장 활동	환경이슈가 있는 지역의 주민조직화 운동 체험	필리핀 커뮤니티 내에서의 생활 및 활동 체험을 통해서 주민조직화 운동을 체험하고 아시아 환경이슈에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Laguna 호수 제방건설 / Southrail 건설 문제	각 현장
12.2 (목)	AM	전체 활동	현장 활동 공유	현장 활동 내용 정리 및 발표	장미정 (아시아센터)	숙소
	3-5 PM	전체 활동	전체 과정에 대한 성찰과 평가	전체 활동에 대한 성찰(Reflection) 및 연수 과정을 통해 찾은 아시아 아젠다를 공유하고 전망을 나눈다.	장미정 (아시아센터)	아시아센터

	6 PM	졸업식	활동가와의 교류	필리핀 활동가들과의 열린 공간에서 그동안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활동에 대한 느낌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강사 및 센터 관계자	아시아센터
12.3 ~ 12.5	(금) ~ (일)		연수 평가 M.T 및 휴식	쉼과 나눔	성이혁수 (아시아센터)	민도로 섬
12.5 (일)	4-6 PM	쇼핑	기념품, 선물구입	출국준비	성이혁수 (아시아센터)	Quiapo 시장
12.6 (월)		출국			아시아센터	마닐라공항

2. 실행주체 따른 생태환경캠프 사례 및 현황

(1) 환경단체

생태환경캠프를 가장 많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은 주체는 다양한 환경단체이다. 많은 환경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선 대표적인 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태환경캠프를 살펴보자.

①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프로그램 명	내 용	기 간	참가대상
푸름이 국토 환경대탐사	우리나라 국토를 직접 도보로 걸으며 자연환경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인식하고 생명에 대한 깊은 안목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국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배양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	여름방학 6박7일	초4-중3
푸름이 환경캠프	1994년부터 시작된 어린이 대상 환경캠프로 현재 41기 까지 진행되었다. 건강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자연을 대하고 그 자연과 하나되는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배우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함을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름겨울 방학 2박3일 or 3박4일	초등학생
우리들꽃 사랑캠프	태평양의 지원으로 한국야생화연구소와 환경운동연합이 함께 진행했던 '한국의 야생화'의 아름다움을 체험을 통해 확인하는 계기 제공	2박3일	초등학생 가족
롯데 어린이 환경학교	롯데백화점의 지원을 환경운동연합이 진행한 캠프로 갯벌, 철새, 유기농 먹거리 체험을 제공	1일 1박2일	롯데백화점 고객 자녀 (초등학생)
겨레사랑 청소년 탐방단	대학생을 대상으로 철새탐조활동, 숲생태탐사, 전통문화, 농촌체험, 생태마을, 친환경농가 방문, 재생가능에너지 등의 교육진행	3박4일	대학생
손소리 환경사랑캠프	청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 야생화 체험과, 천연염색, 하천체험, 문화재 탐방 등의 교육진행	2박3일	청각장애 고등학생

바이엘대학생 환경캠프	'바이엘 환경대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환경캠프 프로 한강생태계, 철새탐조, 갯벌 생태교육진행	2박3일	대학(원)생
도심 속에서 배우고 실천하는 환경 물사랑 캠프	사전교육을 통해 식수가 없어 고생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의 사례등을 배우고, 서울에 있는 물 바로알기, 물아껴쓰기, 물아낌이 되기 등의 프로그램 진행	2박3일	초등학생

② 녹색연합

프로그램 명	내 용	기 간	참가대상
어린이 자연학교	자연생태, 야생동식물 등 다양한 주제로 방학기간 동안 진행되는 환경캠프	3박4일	초등학생
청년생태학교	청년생태학교는 자연을 사랑하고 생태적 삶을 꿈꾸는 전국의 청년들과 자연을 몸으로 느끼며 알아가는 살아있는 교육마당	4박5일	17세 이상
HSBC섬환경캠프	HSBC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미래세대 섬 환경캠프는 이러한 섬의 환경적 가치를 미래세대의 눈으로 발견해내고 그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5박6일	중학생

③ 다음을 지키는 사람들

프로그램 명	내 용	기 간	참가대상
시루떡학교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재료로 직접 밥을 지어보며 지금 먹고 있는 먹을거리에 대해 생각하고, 환경과 먹을거리를 주제로 하는 역할극, 자연 속의 무한한 색들이 존재함을 배울 수 있도록 자연의 재료로 해보는 천연염색, 환경농업체험, 명상 등을 경험	2박3일	초등학생 2-5학년

④ 숲연구소

프로그램 명	내 용	기 간	참가대상
숲생태아카데미	숲생태아카데미는 숲생태 전반에서부터 구체적인 사항까지 숲에서 교육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아, 현장에서 실제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8개월	22명

프로그램명	장소	내용
유럽 체험환경교육 연수	독일, 스위스 등 유럽의 자연학교, 자연학습장, 환경교육 현장	우리나라 숲체험 교육발전과 숲체험 교육자들의 능력향상과 숲체험 교육분야에서 우리보다 앞서나간 독일과 스위스의 숲교육관과 자연학교, 체험학습장을 답사하여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현실을 짚어 본다.

숲연구소와 함께하는 청소년 해외 숲체험 캠프	독일 바이에른 국립공원 내 숲체험 캠프장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외 숲생태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숲생태 지도자 유럽 장학생 사업	독일 프라이부르크 자연학교	·숲생태교육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 장기적인 장학제도를 실시하여 선진유럽의 자연체험학교와 연계하여 숲체험분야의 전문 교육자를 양성한다.

⑤ 에너지대안센터

프로그램명	내용	기간	참가대상
숲속 태양에너지 체험교실	유럽의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을 배우고 태양광발전기, 풍력발전기, 연료전지실험, 태양열조리기 만들기, 태양 에너지 장난감 만들기 등 체험학습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1일	초등학생
환경활동가 에너지교육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의 지원 속에 '21세기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환경활동가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전국에서 환경활동가 20명을 선발하여 에너지 위기와 재생가능에너지 대안, 그리고 풀뿌리 시민운동에 대한 이론 교육,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기술 교육과 현장 견학 등 심도있는 국내교육을 진행하였고, 국내교육 이수자 중에서 10명을 선발하여 독일 재생가능 에너지 해외연수를 진행하였다.	국내교육 및 해외연수	환경활동가 20여명

(2) 기업

1980년대 초기 낙동강 폐놀사건을 계기로 기업의 환경오염과 자연환경부하에 대한 책임과 성찰, 친환경적인 이윤추구활동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많은 기업들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NGO와의 파트너십을 통한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다.

기업에서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단체와 함께 혹은 독자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소개된 기업들은 환경캠프를 지원하거나 실행하는 기업의 사례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곳에서는 제외되었지만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어린이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에 지원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아래의 표를 보면 국내외 기업이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와 함께 실시하고 있는 생태환경캠프의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기업명	캠프명	대상	프로그램내용	주관단체
롯데백화점	롯데어린이 환경학교	어린이	갯벌, 철새, 음식	환경운동연합
유한킴벌리	그린캠프	여고생	숲의 수자원 함양, 수질정화, 대기정화능력, 숲의 생물 다양성 및 문화 체험	자체
태평양	우리 들꽃사랑캠프	어린이 가족	우리 야생화의 아름다움 체험	한국야생화연구소 환경교육센터
풀무원	풀무원 생태캠프	어린이	별자리여행, 곤충채집	아름다운재단
바이엘코리아	바이엘 환경대사 Eco-camp	대학(원)생	환경 에세이 쓰기과 2박3일간의 에코캠프 참여 (인터뷰를 통해 환경대사 3인을 선발하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환경대회에 파견)	환경운동연합
HSBC	HSBC미래세대섬환경캠프	중학생 중학생연령 의청소년	생태탐사, 환경정화, 교육활동	녹색연합
SONY	청소년 환경캠프	청소년	자연생태탐사, 야생화, 하천탐사	자체

생태환경캠프의 경우는 대부분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캠프들이 주를 이루어 왔지만, 점차 교육의 대상이 다각화하는 흐름을 볼 수 있다. 위의 표에서도 볼 수 있지만 참가대상이 어린이, 중학생, 대학(원)생, 가족 등으로 다양함을 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 중에서 환경운동연합과 바이엘코리아가 2004년부터 함께 하고 있는 ‘바이엘 환경대사 Eco-camp’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자.

<사례> 환경연합 “바이엘 민간 환경대사”

환경운동연합은 바이엘코리아(주)와 공동으로 한국의 청소년들을 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과 바이엘코리아는 조인식을 갖고, 대학(원)생 대상으로 ‘2004 바이엘 민간환경대사’선발 공모했다. 이 후 환경 에세이 및 2박 3일간의 에코캠프,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환경대사 3인을 선발하여, 독일에서 열리는 국제청소년환경대회에 이들을 파견했다. 환경부, 강화군 그리고 독일 대사관이 후원하는 본 프로그램은 전 세계적으로 바이엘 그룹이 UNEP와 함께 이미 12개국에서 실시 해오고 있으며 2004년 처음으로 한국에 소개되었다.

바이엘 환경대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환경 외교대사'로서, 환경의 소중함과 중요성을 알리는데 앞장서며,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환경 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04년 10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3일 동안 한강 하구와 강화도 일대에서는 30명의 대학(원)생이 함께 하는 '2004 바이엘 환경대사 에코캠프'행사가 진행되었다.

<사례> 바이엘 대학생 환경캠프

- 주제 : 본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강하구 생태계 조사활동에 직접 참가하며, 조사활동을 통해 생태계를 경험하고 이해하며, 생태적 감수성을 키우는 환경지도자로 성장한다.
- 일정 : 2004. 10.22(금) - 24(일), 2박 3일
- 참가인원 : 대학생 30명, 지도자 및 진행자 15명, 총 45명
- 장소 : 서울 환경센터, 김포, 강화도 일대
- 내용 : 오리엔테이션, 공동체놀이, 한강하구 생태계의 중요성(시청각 교육), 자유로 철새 탐조, 곡릉천, 장항별 탐조, 갯벌 생태계 교육(시청각 교육), 모듬별 모임 및 발표, 분오리 둔대, 선두리 갯벌 철새 탐조 등

·바이엘 대학생 환경캠프 프로그램 일정

날짜	22일(금) 강 -자연, 사람과 몸마음 나누기-	23일(토) 강 이야기 -임진강과 한강하구-	24일(일) 갯벌 이야기 -강화남단 갯벌-
7:00-8:00		아침 산책 또는 인라인스케이트 타기	아침 산책이나 체조
8:00-9:00		아침식사(숙소)	아침식사
9:00-12:00		반구정, 오두산전망대 탐조	분오리 돈대, 선두리 갯벌 탐조
12:00-1: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00-6:00	서울 집합	곡릉천, 장항벌 탐조	서울로 출발
	고양으로 이동 오리엔테이션(환경연합 소개, 사업취지 소개 등)		
6:00-7:00	저녁식사(숙소 내)	저녁식사	
7:00-9:00	마음열기(공동체 프로그램) -아자작, 그대로서선생님-	갯벌 생태계 시청각 교육 -김인철선생님-	
9:00-11:00	한강하구 생태계의 중요성 "한반도 생태축의 1번지, 한강하구" -한동욱선생님-	모둠별 모임Ⅱ	
		취침	
11:00-	모둠별 모임 I		

(3) 종교단체

단체명	캠프명	대상	프로그램내용
기독교환경연대	강화도의 역사문화를 찾아서	초등학생 30명	·강화도의 역사와 문화 탐방 ·유기농 먹거리 체험 ·강화 갯벌 체험
불교환경연대	어린이 불교생태학교 내소사 봄캠프	초등학생 부모참가가능	·4계절에 맞게 캠프를 진행. ·산.강.바다의 생태를 배우고, 사찰의 생태 와 불교문화를 자연스럽게 느끼고자 함.

(4) 기타

(www.eersc.net)에서는 제주캠프와 덕적도캠프, 갯벌캠프를 진행해 오고 있다.

단체명	캠프명	대상	프로그램내용
환경교육 연구지원센터	제주캠프	초등학생	제주의 자연생태문화체험골(폐교된 제주 무릉동초 등학교)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청정해역 제주의 생태 및 문화를 체험하여 제주를 바로 알고, 환경 감수성을 함양하고, 자연 친화력을 높여내는

			체험교육 프로그램
	덕적도캠프		인천 남서쪽 75Km 해상에 위치한 덕적도에서 2박 3일간 진행되는 환경캠프
	갯벌캠프		갯벌체험과 숲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부도와 안면도에서 진행
걸스카웃연맹	청소년 환경캠프	청소년	청소년들에게 환경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게 하고 체험활동을 통하여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재인식시킴으로서 일상생활에서 환경 지킴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하는 것이 목적

3. 주제별로 보는 생태환경캠프 사례

(1) 숲교육

숲교육을 주요 활동을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는 숲연구소, 숲해설가협회, 생명의 숲 등의 단체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숲해설가협회의 숲학교 프로그램을 살펴보도록 하자.

숲해설가협회에서 진행하는 ‘숲학교’는 주변의 자연환경을 직접 만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감성을 기르고 올바른 자연관을 가지도록 하는 숲 체험 프로그램으로 현재 급증하는 자연체험 교육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생명·자연·환경사랑의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숲학교’는 가족 또는 친구 등이 참여해 자연안에서 나와 내 옆의 사람들 그리고 숲 속의 모든 생명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좋은 기회가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현재 초등학생, 가족, 소외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숲학교’를 시행되고 있다. 숲학교 프로그램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산음 휴양림 내 숲속수련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캠프명	기간	인원	프로그램 내용	참가비
초등학생숲학교	2박 3일	40명 교사8명	보물찾기 자연놀이 자연물로 만들기 숲속여행 하천탐사	128,000

			요리활동 숲속장터 도감만들기	
가족숲학교	1박 2일	8가족(32명)	자연물이용 만들기 자연놀이 숲속산책 숲속여행 추적놀이	4인기준 20만원
저소득층숲학교	2박 3일	40명 교사 9명	추적놀이 티셔츠에 자연물 무늬 찍기 자연놀이 숲속여행 하천탐사 나무목걸이 만들기 요리활동 맛자랑 멋자랑 도감만들기	정부 및 기업후원
장애우숲학교 (정신지체 장애인 대상)	1박 2일	20명 교사 10명	숲속 음악회 태셔츠로 자연물 무늬 찍기 요리자랑 다함께 맛자랑 숲속여행 나무목걸이 만들기	5만원

(2) 재생가능에너지교육

재생가능에너지를 주제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는 아직 많지 않다. 대표적인 단체는 에너지대안센터는 ‘재생가능한 에너지(renewable energy)’를 주제로 2004년 7월부터 “숲속에서 배우는 1일 태양에너지학교”라는 어린이 체험교육을 시작하였다. 시청각교육을 통해 유럽의 재생가능 에너지 현황을 배우고 태양광발전기, 풍력발전기, 연료전지실험, 태양열조리기 만들기, 태양에너지 장난감 만들기 등 체험 학습을 통해 재생가능 에너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는 ‘숲속 태양에너지 체험교실’로 진행이 되고 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시간: 2005년 3월 13일(일)부터, 매주 둘째주 일요일, 매주 넷째주 토요일
- 장소: 에너지대안센터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 대상: 초등학생 3~6학년 10~15명
- 참가비 : 40,000원

·참가 신청 및 문의 : 에너지대안센터 (02-394-2345 / kimyhenergyvision.org)

시간	내 용	세부 내용
10:00-10:20	인사 나누기	인사나누기, 명찰 만들기
10:20-11:00	영화 "투모로우"로 배우는 기후변화와 재생가능 에너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재생가능에너지
11:00-12:00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학습	태양으로 전기를 만들어봐요: 시민태양발전소, 태양광 발전기 태양이 만들어주는 따뜻한 열: 태양열 온수기, 태양열 조리기 바람으로 만드는 전기: 풍력 발전기, 바람에너지 왕 뽑기 바이오매스가 무엇일까요: 나무, 음식물 쓰레기, 재래식 변소
12:00-13:00	점심식사	
13:00-14:30	재생가능 에너지 체험학습	손으로 전기 만들기 - 손으로 충전하는 손전등과 라디오 여러가지 신기한 태양광 장난감들
14:30-15:00	숲속에서의 생태체험	인왕산 숲길 산책하면서 들어보는 숲 이야기
15:00-15:20	태양열로 요리한 간식	태양열 조리기로 구운 소세지 함께 먹기
15:20-16:30	태양빛 도구 만들기	솔라셀을 만들어 프로펠라를 돌려봅니다.
16:30-17:00	수료증 수여 및 정리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한번 정리해봅니다.
집으로!!		

(3) 먹을거리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다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시루떡학교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벌레먹은 사과팀’에서는 우리의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사례> 서울환경운동연합 “먹을까? 말까?” 건강 밥상 캠프

·프로그램 취지

- 친환경 농산물 수확 체험 및 먹을거리 만들기 체험 학습은 우리 농업의 중요성 및 먹을거리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끼고 배워나가는 과정으로 건강한 식생활과, 우리 농업, 환경의 의미를 연관 학습하여 건강한 식생활이 개인적 의미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로 확대될 수 있는 과정이 되게 한다.

- 친환경농업지역인 충남 홍성에서 진행되는 건강밥상 캠프는 생산지에서의 수확체험 및 떡 만들기, 달걀꾸러미 만들기 등 체험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며 역할극, 음식 실천 강령 만들기를 통해 자신과 친구의 모습을 함께 교정해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 제목: “먹을까? 말까?” 건강밥상 캠프
- 일정: 8월 17일~8월 19일 (8월 17일 9시 집결)
- 참여대상: 초등학교생
- 준비물: 세면도구, 여벌의 옷, 긴팔소매 옷 황토염색용 면티
- 참가비: 환경연합 회원 120,000원 / 비회원 130,000원
- 장소: 충남 홍성 환경농업교육관

첫째날	9:00 출발 12:00 도착, 행사취지 안내, 조편성 13:00 점심식사 14:00 조별 모임(조이름 정하기, 생활지침 정하고 대자보 작업) 15:00 발표 및 휴식 16:00 먹을거리관련강연/ 라면, 패스트푸드, 과자,빙과류의 문제 18:00 저녁식사 19:00 건강한 먹을거리 만들기(떡 만들기)/야참용 21:00 조별 발표 22:00 잠자리
둘째날	7:00 일어나기, 아침체조 8:00 아침식사 9:00 환경농업 체험/황토 염색 12:00 점심식사 13:00 숲체험/봉숭아 물 들이기/ 솥대 만들기 18:00 저녁식사 19:00 조별역할극: “먹을까? 말까?” 천사와 악마놀이 21:00 발표
셋째날	7:00 일어나기, 아침체조 8:00 식사 9:00 새끼 꼬아 줄넘기/달걀 꾸러미 만들기 11:00 조별 음식 실천 강령 만들기 12:00 조별 발표 및 개인별 총화 13:00 점심식사 14:00 출발

(4) 야생동물

아직까지 야생동물보호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아래

의 사례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캠프 사례가 아닌가 한다.

<사례> 그린피스와 함께하는 청소년 고래캠프(고래도 살리고 영어도 배우자!!)

고래보호를 위한 그린피스 고래대사관이 울산 장생포에 설치되었고, 그린피스 대원들이 고래를 살리기 위해 텐트를 치고 현장을 지키고 있다. 그곳에 가서 그린피스 대원들과 함께 고래를 살려야 하는 의미와 그린피스 활동을 체험하고 대원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 일시 : 2005년 5월 21일(토) 5시- 22일(일) 12시
- 장소 : 울산 장생포 greenpeace 고래 대사관
- 집결장소 : 장생포 고래대사관
- 준비물 : 텐트, 컵, 수저, 렌튼, 저녁도시락
- 참가비 : 1인당 만원
- 참가대상 : 초등학교, 중등학교 선착순 30명
- 프로그램

21일(첫째날)		22일(둘째날)	
17:00	도착 / 장생포고래대사관	06:00-07:00	아침체조
17:00-19:00	준비 및 저녁먹기 / 도시락	07:00-08:00	아침먹기
19:00-19:30	명찰만들기	08:00-09:00	현수막만들기
19:30-20:00	그린피스활동소개	09:00-11:00	기념품만들기
20:00-21:30	영화보기	11:00-12:00	마무리
21:30-22:00	모둠별 토론		
22:00 이후	취침 및 자유시간		

(5) 장애우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가 아직까지는 많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캠프의 기획에서 고려되었으면 하는 것은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있다. 생태환경캠프를 통해 장애인들은 일반인과의 인적인 상호교류와 자연과의 생태적 교감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생태환경 캠프의 기획은 다른 캠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기획단계에서 장애우를 교육하는 전문적인 교사나 관계자와의 사전논의를 통해 작성되어야 한다. 현재는 장애우를 대상으로 하는 상시적인 프로그램이 없지만 앞으로 지속인 관심

을 가지고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한다.

<사례> 환경교육센터 “손소리 환경캠프”

- 부제: 환경캠프를 통해 청각장애 청소년이 환경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는 우리꽃 캠프
- 일정 : 2004년 8월 2일 -4일
- 장소 : 한국자생식물원, 호렙오대산 청소년 수련원, 오대산 국립공원
- 참가인원 : 캠프참가자 25명(고등학생), (모듬진행교사, 지도교사 22명) 총48명
- 주최 : 한국농아인협회
- 교육내용 : 우리 꽃 탐사 및 우리 꽃 체험 활동, 공동체 놀이, 천연염색, 시청각 교육, 하천생태체험, 월정사 문화재 탐방 등

·손소리 환경사랑 캠프 프로그램 일정

시간	2일(월)	3일(화)	4일(수)
7:00-8:00		일어나자!	일어나자!
8:00-9:00	모이자...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13:00	오대산 자생식물원으로 출발!!	우리 꽃 탐사 : 우리 꽃 이름 알아 맞추기 우리 꽃 그림그리기 우리꽃 심기 목걸이 만들기	월정사 문화재 탐방
			모듬별 모임 및 전체 평가
			집정리 및 우리가 머문 곳 깔끔하게.....
13:00-14:00	도착, 점심식사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14:30	오리엔테이션, 방배정, 집정리	숲 생태 체험 : 자연과 함께 놀이를 하천 생태 체험: 하천에 사는 생물 탐방과 놀이를	우리 꽃의 아름다움을 가슴에 담고 보고싶던 가족에게로 출발!
14:30-16:00	친구들과 하나되기 - 모듬별 관계 형성프로그램		
16:00-18:00	공동체 놀이 : 마음열기		
18:00-19:30	시청각 교육	저녁식사	
19:30-20:30	저녁식사	천연염색 : 황토염색	
20:30-22:00	작은여행 : 모듬별 자유시간	작은여행 : 모듬별 자유시간	
22:00-23:00	모듬별 정리시간, 편지 쓰기	모듬별 정리시간, 편지쓰기	
23:00-	씻고, 하루 정리하고, 꿈나라로...	씻고, 자자	

(6) 문화(음악)

<사례> 환경교육센터의 환경동요캠프

·대상: 초등학생 1~6학년, 취학예정자 포함 - 선착순 60명

·일시: 2005년 2월 22일(화)~24일(목), 2박 3일

·장소: 강화도-계명 수련원(숙박)

·참가비: 환경운동연합, 환경교육센터 회원 14만원, 비회원 16만원

·프로그램 일정표

시간	24일 (화) 백창우와 함께하는 동요 나라	25일 (수) 우리가 부르는 환경 동요	26일 (목) 노래로 찾아 떠나는 아름다운 세상
7:00~8:00		숲이 들려주는 노래 듣기	모듬별 사랑이 있는 목상
8: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9:00 -12:00	등록, 오리엔테이션 나무 이름표 만들기 나의 첫인상은(꽃말 달아주기)	동요 부르기(3) 백창우와 이런저런 타악기 체험 자연놀이 숲에서 하는 자연놀이	겨울텃새 모이통 만들기 새 모이통 직접 달아주기 집정리, 공간 정리 - 깨끗이 정리해요
12:00~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 점심식사
13:00~18:00	모듬별 모임 동요 배우기(1) 백창우와 삼살개의 환경 노래 배우기 봄의 하천 탐사 (겨울에서 봄으로의 하천의 생태계 관찰) 동요 배우기(2) 직접 가사 (시)와 노래 만들어 보기	공동체(2) 작은 운동회 - 모듬별 작은 운동회 공동체(3) 해피 하우스 만들기 - 예쁜 정원이 있는 나만의 집을 만들어 봐요! 간식을 먹어요! 동요 만들기(4) - 예쁜 우리 노랫말로 모듬별 창작 동요 만들기 우리들의 타악기 만들기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타악기를 만들기	마음 다잡기 그 동안 배우고 느낀 따뜻한 마음 모아 집으로 돌아가기 이동 (각자 집으로)
18:00~19:30	저녁식사	저녁식사	
19:30~22:00	공동체(1) 마음열기 모듬별 모임 마음 모으기, 건강한 간식 만들기, 발표회준비	공동체(4) 쟁반 동요 극장 - 모듬별 지렁이수추역의 동요 부르기 모듬별 모임 - 발표회 준비 공동체(5) 모듬별 환경동요 발표	
22:00~23:00		모듬별 모임	
23:00~24:00		모듬별 모임	
24:00~	취침, 교사모임	취침, 교사모임	

<참고문헌>

- 이재영·이선경·김인호·정진영(1995). 위계적 총체성과 개방적 상호의사소통에 의한 환경캠프 프로그램 평가방법. 환경교육, 제8권, 107~121
- 김송석(2002). 장애학생의 캠프활동. 현장특수교육, Vol. 9 No. 4, 8~13
- 김성원·이현경(1996). 우리나라 과학캠프의 운영 실태와 교육적 효과. 한국과학교육학회지, 제16권 2호, 175~189
- 김호림(1997). 캠프(야영)활동을 통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석사학위논문.
-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2004). 필리핀을 통해 아시아를 만나다 '환경이슈가 있는 지역의 커뮤니티에 기반한 '주민조직화' 운동체험 및 아시아 아젠다 찾기'. 한국시민사회아시아센터 연수프로그램 자료집
- 환경교육센터(2003). 국내외 사회환경교육 사례와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참고사이트>

- 캠프 길라잡이 www.openschooli.net
- 환경교육센터 www.edutonia.or.kr
- 숲연구소 www.ecoedu.net
- 숲해설가협회 www.foresto.org
- 생명의 숲 www.forest.or.kr
- 에너지대안센터 www.energyvision.org
- 환경교육센터 www.edutonia.or.kr
- 기독교환경연대 <http://www.greenchrist.org/>
- 불교환경연대 [/www.budaeco.org/](http://www.budaeco.org/)
- 환경교육연구지원센터 www.eersc.net

[사례발표 1]

바라기닷컴의 생태환경캠프

최병덕 (교육문화연구소 바라기닷컴)

많은 유해 환경 속에 노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 도심 속에서 컴퓨터와 TV를 통해 자유를 느끼며 사는 아이들. 자연의 느낌보다는 도시 속 빠름의 문화가 익숙해져 버린 그렇지만, 이제 겨우 날기 시작하여 세상을 보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과 함께하는 캠프. 바라기닷컴은 단순교육 위주나 단순체험위주가 아닌 아이들과의 교감을 통한 부어도 넘치지 않는 호기심과 믿음의 캠프를 준비합니다.

아이들은 주어진 환경에서 자랍니다. 아이에게 환경은 스스로 개척할 대상이 아닌 살아갈 공간이지요. 이를 미루어 생각해 볼 때 어른들이 만들어 온 현재의 상태에서 어른들 중심으로 편리를 추구하며 대안 없이 지속되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의 아이들에게 놓여 있는 환경은 우리가 경험하는 지금보다 더욱 황폐해 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인간의 감수성과 자각능력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아동청소년기의 교육이 중요한 점은 바로 이런 이유일 것이지요.

이제 먼저 문제의식을 접한 우리 세대가 할 일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자신이 속한 공간에서 소중함과 존귀성을 느끼고 자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바라기닷컴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접하는 학교 내 교사의 이념과 교육의 방식에 자신이 속한 환경 의식과 교육이념을 접근시키고 여기에 학교 밖 선생님인 부모님들과 아이들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은 캠프를 준비합니다.

1. 체험학습이란?

‘경험’과 ‘체험’은 비슷한 뜻으로 혼용되고 있으나 한국어대사전에서는 경험의 의미는 첫째 직접 느껴 보거나 겪어 보거나 함, 둘째 직접 겪음으로써 지식과 기능 따위를 얻음, 또는 그 지식이나 기능을 말하는 것이고, 체험은 첫째 몸소 겪은 경험, 둘째 특정한 인격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심적 과정으로 정의합니다. 즉, ‘경험

‘과’ 체험은 모두 직접 겪은 것이라는 뜻에서 혼용할 수 있으나 ‘체험’이 직접 겪어본 것을 강조하는 느낌을 줍니다.

다시 말해 경험이란 말보다 교육적 요소가 강한 체험이라는 말이 주는 의미는 바로 말 그대로 행위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얻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준비의 원칙

‘철이 든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단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과는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제철에 나는 곡식과 과일 그리고 채소를 먹어 가면서 어느 시기에 무엇이 어느 장소에 어떠한 것이 있다는 것. 그래서 자연의 이치와 순리를 통하여 앞으로의 일을 미리 예측할 수 있을 때 즈음이 되어서야 철이 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바라기가 생각하는 캠프 준비과정 역시 철이 드는 과정과 같을 것입니다. 목표치만 설정하고 과정을 무시하여 준비되는 학습은 아이들에게 일상을 벗어남을 통해 느끼는 자유와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 일상에서 습관이나 생활의 변화를 주거나 과정의 소중함을 느끼기에는 부족하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캠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하는 점은 과정의 소중함을 전달하는 것 즉 학습의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부분까지 체크해야하는 것입니다.

3. 진행원칙

- 1) 여유 - 일정에 쫓기기 보다는 모두가 즐기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 2) 삶속의 지혜 - 잊혀져가고 있는 우리의 것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 속의 삶의 지혜를 들여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3) 자연과 문화 - 제철의 흐름에 따라 생명의 움직임과 그 속의 문화를 찾아야 합니다.

4. 사전준비

인터넷과 매체를 통한 정보의 바다에서 캠프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에 맞는 것을 찾고자 하면 많은 정보 양 만큼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바라기닷컴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첫째, 캠프의 주체가 바로 우리 아이임을 인식하도록 합니다.

- 어떤 캠프가 좋다하여 모든 대상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교과과목을 접목한 캠프의 경우 대상의 수준과 관심도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 흥미를 강요한다거나 부모님들의 사고에 의해 몰아 붙이기식으로 참가시키는 것은 삼가야 합니다.
- 바라기닷컴은 대상별 캠프를 지향합니다.

둘째, 필요한 주제를 선별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자료 조사를 시작합니다.

- 대부분 부모님들이 캠프나 나들이를 준비하실 때 가장 먼저 찾게 되는 방식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아이들에 맞는 주제를 찾으셨다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프로그램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장소와 운영방식입니다.
- * 대부분 나들이에 노출된 장소들은 사람이 많고 형식적인 체험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장소를 주변 경험자나 부모 교육 사이트 내지 체험후기를 검색하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염두해 두고 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셋째, 주제와 장소가 선별되었다면 지금부터는 프로그램을 고려합니다.

- 체험은 오감을 통한 교육방식입니다. 이에 프로그램 역시 감각을 통한 학습이 기본적으로 포함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 * 이는 다시 말해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는 활동양인지가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동안 운영되는 체험프로그램이 다양하다는 것은 그 만큼 내용이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고려해야하는 점은 준비 측에서 함께하는 진행자의 인원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진행진이 많다는 점은 프로그램마다 인원 당 교육 준비도가 높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울러 적절한 휴식시간과 프로그램이 배치되어 있는지, 프로그램의 시작과 정리가 명확한지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5. 유념할 점(꼭 점검해야 할 사항들)

첫째, 아이들의 몸 상태를 체크해야 합니다.

아이의 건강상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체험학습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아이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느냐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과정에 얻어지는 것이라면 아이의 건강상태나 컨디션은 제일 먼저 고려해야만 합니다. 또한 참가하는 프로그램의 장소가 아이의 컨디션이나 기타 알레르기나 상관은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바라기닷컴은 캠프 전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하며 항상 부모님들과 병원에 핫라인을 연결해 둡니다.

둘째, 아이의 관심과 흥미도를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이론에 따르면 아이들은 저마다의 지능에 따라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학습 스타일을 갖습니다. 보통 부모나 선생님들은 암전하게 책상에 앉아 쓰고 읽는 학습방법을 선호하고 모든 아이들이 그런 학습 방법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읽고 쓰기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지만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며 혹은 몸으로 움직이면서 가장 잘 배우는 아이들도 있다. 한가지의 학습 방법을 고집하기보다는 아이에게 가장 적절한 스타일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다양성을 발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안내해주는 것 또한 선생님의 역할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중지능이론의 또 하나 중요한 시사점은 같은 내용을 가르치더라도 아이의 지능영역이나 스타일을 고려한 방법으로 가르칠 때 학습의 효과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 이에 바라기닷컴은 캠프기간만큼은 프로그램에 있어 아이들과 의견을 나뉘가며 프로그램을 새롭게 구성해 갑니다.(정해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이상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큰아이(쌤:선생님)과 아이들의 비율을 최소화 시킵니다.

셋째, 참가 프로그램에서 아이의 또래집단을 형성합니다.

아무리 좋은 캠프라 할지라도 낯선 곳으로, 익숙하지 않은 활동을 함에 따라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또래집단의 형성은 아이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아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바로 또래집단의 형성입니다.

넷째, 모둠강사와 메인강사는 지식적인 전달의 유무뿐 아니라 아이들과 어울림을 경험 여부로 구성합니다.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도 진행하는 강사의 기본적인 생각과 운영방식은

프로그램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 가느냐에 따라 내용과 질 그리고 아이에게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은 직접 만나 느껴보는 방식을 기초로 강사 풀을 구성합니다.

다섯째, 참가인원에 비례하여 큰 어른(샘: 선생님) 또는 진행자의 수를 확인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주고, 아이와 한 번 더 눈을 마주치고, 아이의 반응에 좀 더 친근히 반응하기 위해서는 참가인원 대비 강사의 비율이 높아야 할 것입니다.

* * * *

[부록 1] 행사 일정 - 취침과 기상은 자율적 의지로 결정하되 식사시간은 지킨다.
 식사의 양과 반찬은 스스로가 결정하되 절대 남기지 않는다.
 프로그램 중 다 종류에서는 아이들의 상태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

일정표

시간	1일차	2일차	시간
06:30		기상 / 아침 산책	06:30
07:00		아침식사	07:00
08:00	집결/ 일송문화관 이동	철새의 이모 저모 -영상물 상영-	08:00
09:00			09:00
10:00	우리 이렇게 지내요	가자 천수만으로 -철새 탐조활동-	10:00
11:00	해미읍성		11:00
12: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2:00
13:00		느낌 나누기 -활동 기록지 작성-	13:00
14:00	역사·문화 속으로 자- 출발! -태안마애삼존불 & 염전체험-	마무리	14:00
15:00		서울/ 춘천 출발	15:00
16:00			16:00
17:00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낙조관람 or 독살 관람-		17:00
18:00	저녁식사		18:00
19:00	선조들의 삶의 지혜 엿보기		19:00

20:00	-여치집, 투호, 카네이션, 즐넘기-		20:00
21:00	우리는 한림 가족 !! -모닥불 피워 놓고 마주 앉아서-		21:00
22:00	취침		22:00

우리는 이런 것은 꼭 지켜요!!

우리는

- ★ 여럿이 함께 지냅니다.
- ★ 음식은 감사한 마음으로, 남김없이 깨끗이 얹얹!!
- ★ 힘들어하는 친구는 서로서로 도와야죠 ~
- ★ 친구들과는 언제나 사이좋게 ^^
- ★ 군것질은 당연히 하지 않죠.
- ★ 이동할 때는 선생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 ★ 1회용품은 이용하지 말자구요.
- ★ 잘 시간에는 떠들지 말고 곧바로 꿈나라로...
- ★ 자기 물건은 스스로 챙겨요!!
- ★ 어디 갈 때는 반드시 선생님께 말씀드리고 두 명씩 다녀와요.
모든 자연 생물은 보기만하고 가져오지 말자구요!!
- ★ 어른을 보면 “안녕하세요?”하고 먼저 인사하고 마을에서는 예의바른 행동만 합니다.
- ★ 숙소 물건은 함부로 하지 말자구요.

[사례발표 2]

즐거운 학교의 생태환경캠프

이광재 (lkj77002@hanmail.net, 즐거운 학교)

90년대에 들어 인간의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이용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문제가 시대적 사안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환경파괴는 곧 삶을 위협하는 존재라는 인식이 널리 퍼졌고 그러한 움직임의 한 모습으로 활동중심의 생태환경교육을 중심으로 한 현장체험학습이 등장하였다.

현장체험학습의 등장은 기존의 생태환경교육이 주로 시청각매체를 이용한 간접경험이었던 것에 반해, 직접경험을 요구하는 체험 중심의 교육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의식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효과적인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생태환경교육의 사례 - 갯벌체험]

#. 목적 : 옛날부터 갯벌은 우리에게 온갖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는 바닷가의 농토 역할을 해왔다. 생물의 보고로 익히 알려진 갯벌이 최근에는 주변 연안 해역을 청소하는 '정화조' 기능을 한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 삼림과 더불어 갯벌을 비롯한 습지들이 지구의 허파 기능을 한다. 이런 환경을 관찰하고 보호하는 방법을 배워본다.

#. 진행

- * 갯벌에 들어가기 전 활동하기 편하고 안전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안전교육 실시
- * 도감이나 자료는 사전교육을 하며 갯벌에 들어갈 때에는 복장을 가볍게 한다.
- * 갯벌 생물체의 모습에서 갯벌 생태계의 모습을 배워본다.
- * 모든 채집은 진행강사만이 하며 교육 후 모든 생물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는다.
- * 이동은 예정된 동선에 의해서 움직이며, 많은 수가 무리지어 이동하지 않는다.
- * 갯벌을 나온 후 갯벌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고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는다.

#. 정리

- * 갯벌의 역할은 무엇인가?
- * 갯벌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있는가?
- * 갯벌생물의 모습을 그려보고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였나?
- * 자연의 일부인 인간은 어떻게 자연을 이용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위 프로그램은 대부분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 1) 인솔자의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부족 - 전문강사 부재
- 2) 초등중심의 환경교육
- 3) 무분별한 채집, 쓰레기 등에 의한 2차 생태파괴.

이는 비단 한 프로그램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생태환경프로그램에서 항상 나타나는 문제일 것이다. 이것은 아직까지 우리 의식 속에 환경에 대한 중요만큼 그에 대한 접근의 중요가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생태환경교육은 우리의 생존뿐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따라서 올바른 인식과 더불어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태환경교육이 보다 효과적인 환경프로그램을 위해서는

- 1) 생태환경교육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 2) 초등과정에서 중등과정까지 체계적인 생태환경교육이 공교육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 3) 생태학습장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2차 생태파괴를 막아야 할 것이다.

[사례발표 3]

부산환경운동연합의 생태환경캠프

-지역의 미래를 밝혀가는 환경체험 활동-
“지역모임의 아이들 참 행복합니다”

정명숙(jmslove1110@hanmail.net, 부산환경연합)

1. 환경교육은 지역에서

방학 중에는 물론 학기 중에도 여러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어린이 환경 캠프, 청소년 방학 캠프, 학기 중에 정기적으로 실시한 궁금이 자연관찰 나들이, 푸름이 생태 학교, 회원 시민들과 함께하는 일요생태기행, 숲 체험 나들이와, 자원지도자 양성교육, 숲 안내자 양성교육, 생명건강 강좌 등 이런 저런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밤늦게까지 진행하기도 하고,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체험 환경교육 진행했습니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늘 화두로 떠오르는 과제는 ‘환경교육을 왜 하는가!’였습니다.

환경교육은 아이들이 체험을 통해 자연과 생태 환경을 이해하고,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을 지키고, 죽어가는 강이나 산 바다 등 자연을 살리기 위하여, 생활 속의 환경살림을 실천하기위해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교육에 참여했던 아이들은 행복했는지, 진행을 함께 한 자원봉사자들과 진행팀은 행복했는지, 아이들이 자연친화적이고 친환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는지, 생활 속에서 환경살림은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최근 들어 구단위(예: 동래구) 지역에서 혹은 동네에서 그 지역에 사는 회원들과 함께 지역의 자연 생태 문화 자원을 활용하는 환경교육 활동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4년도 초에 부산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역공동체국을 신설하고 활동가 2명을 배치하여 7개 지역에 회원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지역공동체 운동의

일환으로 지역모임이 회원중심으로 활성화되도록 사무처에서는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현재는 동래연제구와 진구 2개 지역에서 다른 지역모임보다 활발하게 모임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모임의 주요활동으로는 지역에서 새로운 활동회원들을 발굴하고, 회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역모임 활동회원들의 교육을 통해 사무처와 회원, 회원과 회원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활동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반부터 지역모임 임원들이 조직위원회의 임원이 되어 매월 정기회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동래연제 지역모임은 지난 한해 참 재미있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기적인 모임과 가족기행, 어린이 벼룩시장은 사직운동장에서 했는데 어린이들과 어른들 모두에게 재미와 유익함을 주었습니다. 어린이 벼룩시장은 1년 4회 정기적으로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까이에 있는 쇠미산에서 2004년 12월 5일에 어린이 자연학교를 열었습니다. 어린이 자연학교도 정기 활동으로 할 예정입니다. 지역모임이 활성화되니 아이들이 행복해집니다. 그 지역에서 회원들이 함께 지역의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속적으로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진구 지역모임은 가족을 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이들이 따로 놀다가 지역모임에 참여하면서 함께 놀게 되었다고 합니다. 2001년도에 만들어진 진구 모임은 4년동안 꾸준히 회원모임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정기적인 회원모임을 통해 성지곡 수원지 부근에서 쓰레기 줍기도 하고 나무이름표 달기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5월엔 진구 양정동에 작은 사무실을 마련해 회원들이 직접 '신입회원 백양산 숲 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회원이 강사가 되어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활발한 지역 활동이 기대되는 지역 모임입니다.

2. 신나는 지역 환경체험 활동 - 동래연제 지역모임 활동 소개

동래연제모임은 체계적으로 활동계획을 세우고 준비도 꼼꼼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모임게시판에는 볼 것이 많습니다. 임원들과 회원들이 한해 활동계획도 올리고 심지어 일기까지도 올립니다. 재미있는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회원들의 리플도 많이 달립니다. 아래 내용은 봄맞이 행사와 2005년도 계획을 회원이 직접 게시판에 올린 것입니다.

1) 봄 행사 프로그램 소개 - 동.연 지역모임 2005년 봄맞이 행사

- 제목 : 쓱더쿵 쓱더쿵 ~ 쓱캐러 가자
- 언제 : 2005년 4월 2일 ~ 4월 3일(1박 2일), 어디서 : 양산 텃밭
- 무엇을 : 텃밭에서의 봄맞이, 왜 : 하늘 기운, 땅 기운, 물 기운을 맛보자!
- 어떻게 할까요?

※ 4/2 일정

1. 오후 3시 (부산) 출발 -> 오후 4시 (양산) 텃밭 도착
2. 텃밭 구경하기 (텃밭 & 주변 사물이나 자연), 자연(텃밭)에 불필요한 것 주워 내기
3. 고사지내기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역사의 한 부분)
4. 봄맞이하기 & 나무줍기 (쓱캐기 & 땀감, 표지판 만들 나무구하기)
5. 해질 무렵-저녁밥 먹기(백숙&봄나물 맛보기와 쓱화전 맛보기)
6. 표지판과 우체통(?) 만들기, 고구마, 감자 & 가래떡 구워 먹기 한 후에 밤 산책

※ 4/3 일정

1. 아침 산책 후 아침밥 먹기(주먹밥)
2. 흙이랑 노을자 & 표지판 꽃기(밭갈이, 흙은 중매쟁이, 흙은 물먹는 하마, 흙은 물을 씻어 주는 비누(?) 흙은 생명...)
3. 봄맞이 2 - 쓱털털이 만들어 먹기
4. 오후 1시 (양산) 텃밭 출발 ->오후 3시 (해양대 '무지개 전사호) 도착
5. 오후 5시 집으로~ 예정

2) 2005년도 동래연계 지역모임 활동 계획

2005. 3. 27 (일) 신년회&벼룩시장&어린이 자연학교(2)

4. 2~3 (토, 일) 어린이 자연학교(3)&동래*연계식구 가족캠프
4. 29 (금) 내부모임
5. 1 (일) 어린이 자연학교(4)
8 (일) 나들이: 어버이날이 겹쳐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음
6. 5 (일) 어린이자연학교(5):연휴라 일정을 조절할 수도 있음
(~ 중략)
12. 4 (일) 어린이 자연학교(11)
30 (금) 내부모임: 송년회&총회를 하기 때문에 일정 변경됨.

“위의 틀 안에서 움직이게 되나 불변의 날씨는 아닙니다. 서로 좋은 의견을 모아 봅시다. 어린이 자연학교 프로그램은 추후 공지되나 의견 주십시오. 온몸으로 받아들입니다.”

동래 연세 지역모임 회원들 중엔 환경연합 회원으로 10여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회비를 낸 회원도 있고, 5년 넘게 과학교실을 운영해온 회원, 컴퓨터 학원을 운영하는 회원이 있어 모임장소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 인적 자원이 조금 더 풍부합니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이 다는 아닙니다. 회원들이 대부분 착하고 정도 많고 모임 활동에 적극적입니다. 열의 있는 임원진들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들이 있는 지역모임은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족의 화목을 생각하고, 마을의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살림을 실천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지역에서의 지역주민들과 회원들이 지역의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환경체험교육은 효과가 매우 큽니다. 성산동은 좋은 사례입니다. 성미산을 개발로부터 지켜낸 지역주민들의 힘은 바로 지역 어린이들의 환경체험에서 비롯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래연세 지역에서도 지역의 자연 생태 환경 문화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하는 체험교육은 지역을 바로 알게 되고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3. 몸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체험 활동 -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

환경 체험 교육은 대체로 어린이들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어머니들의 교육열도 높지만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은 학교와 학원에서의 하는 지식과 성적위주의 교육으로 하루를 다 보냅니다. 그리고 컴퓨터 게임과 매체에 마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황폐해질 뿐만 아니라 몸도 과거보다 몸집은 커졌지만 속이 허약하다고 합니다. 몸이 한창 자랄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의 변화로 자세가 나쁜 청소년들이 과거에 비해 많아졌고 심지어 척추 측만증에 걸린 아이들도 반마다 1-2명 정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호흡과 자세를 바르게 하여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환경캠프 프로그램에서 몸을 느끼고, 호흡을 느끼고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시간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몸으로 하는 청소년 명상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 합니다.

부산의 청소년모임 '바람'은 2001년 개별적 자원 봉사활동을 경험했던 중·고등 학생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그동안 방학을 이용해 유기농장 체험, 유전자조작식품 조사, 재생에너지 체험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주제로 활동해 왔습니다. 지난해 겨울 2박3일로 금정산 천성산 도보 체험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제목은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도 관통반대 - 청소년 금정산 천성산 아름다운 녹색걸음' 이었습니다. 천성산 금산을 걷고 난후 밤 프로그램에서 몸을 느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사를 모시고, 큰방에서 편안하게 앉아 앞사람의 등을 두드려주기도 머리를 만져주기도 하며 하루 동안 쌓인 몸의 피로를 서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앞사람이 뒷사람에게 의지하고 뒷사람은 앞사람이 편안하게 설 수 있도록 해주며 서로 서로 신뢰와 따뜻함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깊게 복식호흡을 하며 쉽게 넘길 수 있는 호흡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복식호흡이 습관이 되도록 체험 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자기 몸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활하면서 찌든 마음을 맑게 하여 자기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바람 청소년들은 한층 밝아지고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도 좋은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몸으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통해 숨의 흐름을 느낄 줄 알게 되며, 몸을 통해 마음을 들여다 볼 수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며, 당당한 사람이 되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의 건강함과 마음의 평화, 영혼의 자유로움을 바라며 작은 시도로서 몸으로 하는 명상 프로그램을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4. 여성과 미래를 살리는 작은 실천 - 면생리대 바느질하기

일회용생리대는 생산과정에서 화학약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조회사에서 공개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유해한 약품들을 사용해 일회용 생리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새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만들어 바람이 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여성 건강에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에 공기가 통하도록 해야 합니다. 면생리대는 공기가 잘 통합니다. 또한 면생리대는 삶아 햇볕에 건조시킴으로써 세균이 제거되고 아주 깨끗합니다. 면생리대는 착용하면 날아갈 것 같이 좋습니다. 면이라 감촉이 아주 좋습니다. 일회용생리대의 답답함을 버리고 뽕뽕뽕뽕한 느낌을 유지합니다. 일회용생리대의 가격은 무척 비쌌습니다. 면생리대는 한번 구입하면 여러번 닳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생리대는 사용한 후 버릴 때마다 쓰레기가 늘어남니

다. 일회용생리대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0년이 넘게 걸립니다. 소각한다고 해도 비닐성분으로 다이옥신이 방출됩니다. 생명의 땅과 깨끗한 공기는 면생리대 사용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여성과 미래세대의 건강을 지키며 친환경적인 면생리대를 우리 함께 만들어 사용합시다. 면생리대 만들어 사용하기는 생명교육위원회의 올 한해 주요 활동 주제이기도 합니다.

(면생리대 만들기-본과 만들기는 ‘피자매연대’ 에서 참고했음)

- ① 용천에 본을 대고 그린다.
- ② 그린면에 시접을 1cm 넣어 그리고 가위로 오린다.
- ③ 바탕면, 포개는 면 2개도 시접을 넣어 그리고 오린다.
- ④ 포개는 면1과 2의 직선면을 2번 말아놓고 감칠질을 한다.
- ⑤ 바탕면과 면 1.2를 포개어 박음질을 둥글게 돌아가면서 한다.
- ⑥ 뒤집어 생리대 모양이 나오면 날개 끝 조금 안쪽에 금속 똑딱 단추를 단다.

생리대 만들기는 간단합니다. 용천에 본을 대고 그려 손바늘질을 하면 보통 1시간정도면 1개가 완성됩니다. 여럿이 함께 둘러앉아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느질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함께 바느질하는 재미도 있고, 쓰레기도 줄이고, 여성건강도 지키고, 미래세대의 건강도 지킬 수 있어 참 좋은 생활실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생리대 만들기와 사용하기에 생리하는 모든 여성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널리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지정토론1]

문화캠프의 이모저모

김종필 (dadai@hanmail.net, 문화연대)

0. 문화교육운동 소개

왜 문화교육인가?

지금 우리사회의 교육은 부연이 필요 없을 정도로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작년의 고교등급제/본고사 파문 이후 학교를 병참기지화 하려는 최근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기저기서 터지는 사건(?)에 대응하는 것만도 힘에 부칠 정도로 남한사회의 공교육은 그야말로 쓸대밭이 되어버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지난 백 여년간의 문제가 응축된 결과라는데 있다. 즉, 우리나라에 근대적 교육체계가 강제로 이식되었던 일제치하의 황국신민화 교육(관)이 해방과 함께 청산되지 못하고 미군정-친미/반민족세력-군사독재정권이라는 반민중적 지배세력에 의해 확대 강화되면서 지금의 문제까지 이른 것이다.

이렇듯 드러난 문제와 함께 합법적 교육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옆의 친구를 밟지 못하면 내가 죽게 되는 치열한 전장으로 변한 우리사회에서 공교육을 착실하게(?) 받은 학생일수록 가장 파괴적인 습성을 체득하게 된다. 결국 파괴적 습성이 몸에 밴 학생들이 사회로 나오게 되고 이들을 통해 문화가 파괴되고 생태가 파괴되며, 중국에는 사회 전체가 파멸에 이르게 된다.

우리의 문제의식은 이로부터 출발했다. 근대 이후 가장 중요한 재생산 공간으로 자리 잡은 학교(공교육)의 모습과 교육내용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공교육의 개혁을 통해 사회 전체의 진보를 이루려는 새로운 기획이 바로 문화교육운동이다.

문화교육의 개념

오늘 우리정부의 교육정책을 둘러보자. 말로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문화의 세기' 등 미래지향적인 용어들을 남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회변동에 대처할 새로운 공교육 틀과 체계를 마련하기는커녕 입시위주, 지식정보전달 위주의 낡은 틀만 고수하고 있다. 결국 '가치판단 없는 인지기계'를 양산하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모습이다. 이로 인해 교실붕괴, 학교붕괴, 교육 붕괴라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사회양극화와 생태위기 등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인지기계기 아니라, 인지적·정의적·정서적 잠재력을 고루 갖춘 복합적 주체가 필요하다. 따라서 복합적인 인간능력을 단순화하는 현재의 교육관행을 극복하고, 지식교육·감성교육(예체능교육)·인성교육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체계가 필요하다. 바로 이 교육체계가 '문화교육'이다.

1. 문화캠프 취지

문화적 민주주의, 대안적 공동체 문화의 실험

문화캠프는 '캠프'라는 형식을 빌어 다양한 개인들이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일정기간의 공동생활을 통해 새롭고 대안적인 관계를 구성해보고자 하는 실험적인 프로그램이었다. 문화연대와 참여자가 기획하고 실행한 다양한 대안적 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공동체 생활이라는 틀에서 구현.

비규율적 / 민주적 운영방식

캠프에서의 모든 생활과 운영은 참가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토론을 기반으로, 캠프의 모든 운영과 결정은 하루 2차례의 전체모임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었다. 캠프전 사전모임을 통해 생활수칙의 기본적인 안을 서로 합의하고 캠프생활을 통해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와 토론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조율해 나갔다.

문화교육프로그램의 실행 / 보급

앞서 기술한 문화교육운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발/시도 되었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대체로 강의의 형식보다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의 형태로 진행되었으며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정 자체가 문화적/생태적 체험의 과정이 되도록 운영.

2. 주요 프로그램 소개

문화적 다양성에 기반한 대안적 문화교육프로그램

문화캠프의 워크숍 프로그램은 대안적 문화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다. 단순한 지식의 습득과 체험을 넘어,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과 공동의 작업을 통해 스스로 자아를 표현하고 그것이 자신의 일상의 삶과 연결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준비과정

2002문화캠프의 프로그램은 크게 ①일반강연 ②문화연대활동기구와 네트워크 단체 중심의 기획워크숍 ③캠프참가자워크숍(위킹그룹) ④즉석워크숍(캠프 참가자)으로 나누어 준비되었다. 캠프 전, 사전모임과 위킹그룹 모임 그리고 문화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프로그램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소개하고 공동 기획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2 문화캠프가 문화연대 활동가들에 의해 기획되고 일반 참가자를 모집하여 진행한 반면 2003 문화캠프에서는 2002 문화캠프 참가자를 바탕으로 별도의 기획단을 꾸렸다. 이는 기획과 참여가 분리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또한 2003 문화캠프에서는 캠프 이전에 2~3차례의 전체 워크숍을 진행하여 사전 소통과정을 더욱 강화하였다. 전체 워크숍을 통해 문화캠프의 기획 취지 및 방향에 대한 공유를 바탕으로 운영원리, 공동체 생활수칙, 프로그램 등을 함께 완성해나가는 과정을 거쳤다.

프로그램 운영 방식 및 내용

- 수평적, 자발적 관계형성

문화캠프의 워크숍 프로그램 운영 역시 캠프의 큰 원칙 하에서 이루어졌다. 캠프의 참가자들 사이에는 강사, 학생, 진행자, 등의 구분을 두지 않았다. 교육을 ‘행하는 주체’와 교육을 ‘받는 객체’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성립될 수밖에 없는 불평등한 관계와 고정관념, 수동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자발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 서로가 노력하였다. 따라서 모든 참가자들은 참가자이자, 진행자, 조력자로 역할을 공유하였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문화캠프의 원칙과 취지를 함께 공유하고 이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위킹그룹을 구성하고 준비위원회에서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비과정을

가졌다. 취지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주제나 소재, 방식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신체와 감각표현을 통한 자아발견, 공동체 마을 만들기를 통한 생태적 감수성 체험, 미디어와 감시 등 사회적 의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프로그램들이 개인작업과 공동 작업을 적절히 연결시켜 준비되었다.

그 밖에 하루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유롭게 토론과 놀이를 즐겼던 놀짱 워크숍은 제안된 환경과 조건 속에서 참가자들의 변덕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이 함께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사이의 유대강화와 친목과 공동체의식 등을 강화시켰다.

세부 프로그램

<2002 문화캠프 시간표>

시간	10일(토)	11일(일)	12일(월)	13일(화)	14일(수)
9:00 -					
10:00 -	(출발)	퍼포먼스 워크숍①	춤워크숍	미술 워크숍 ⑥	6mm 상상 워크숍 자아표현 워크숍 캠프 평가 및 토론
11:00 -					
12:00 -					
1:00 -					
2:00 -	캠프 오리엔테이션	미술 워크숍④	인권 워크숍	만화 워크숍	미술 워크숍 디지털 워크숍 퍼포먼스 워크숍③
3:00 -	강연①			공간 워크숍	
4:00 -		몸짓표현 워크숍	춤 워크숍	퍼포먼스 워크숍②	
5:00 -	강연②				
6:00 -					
7:00 -					
8:00 -					
9:00 -	영상 워크숍①	놀짱 영상 워크숍②	놀짱②	놀짱③	놀짱④ + 축제워크숍
10:00 -					

<2003 문화캠프 시간표>

시간	8일(금)	9일(토)	10일(일)		11일(월)		12일(화)	
9:00 -	(출발)	기상, 아침식사, 열린작당						
10:00 -		모듬별 막극장①	퀵트 1 반전토론	꿈꾸는마을② 마을터 다지기/재료모으기		사투리 축제(가)	오감열기	꿈꾸는 마을 자연으로 되돌리기
11:00 -		점심식사, 열린작당						캠프 평가 및 토론.
12:00 -		그래 피티①	결혼 상상	꿈꾸는 마을③ (집, 동네 만들기) + 그래피티② + 퀵트② (마을 깃발 만들기) + 마을 상징물 (장승, 토우) 만들기		옛다리 워크숍	이것은 무엇일까요? (' - ')p	
1:00 -								자유시간 - 캠프장 주변 탐방
2:00 -	점심식사, 하루나누기						집 으 로	
3:00 -	캠핑 오리엔테이션							
4:00 -								
5:00 -								
6:00 -								
7:00 -								
8:00 -	친해지기 프로그램	모듬별 막극장 ②	인형 만들기	꿈꾸는마을 ④ 마을티셔츠만들기		꿈꾸는 마을 마을 축제 + 모듬별 막극장 상영		
9:00 -								
10:00 -	추억의 놀이 시리즈	대자보 워크숍	놀짱 한여름밤 천막극장	대자보 워크숍	놀짱 한여름밤 천막극장			
이후								

세부내용

공간워크숍 - 공동체마을 만들기 (진행 : 문화연대 공간환경위원회)

자신이 원하는 공간을 부여받은 대지 모형 통해 표현함과 동시에 공동체마을의 모형을 만듦으로써 공동체 마을 개념을 논의하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익힌다.

미술워크숍 - 벽 없는 미술관 (진행 : 최진욱)

생활과 미술이 만나는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늘 멀리만 있는 미술, 대상으로서의 작품을 넘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발견한 여러 창조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들을 직접 작품으로 만들어 보며 전시 기획하기

만화표현워크숍 - 만화로 가족에게 말 걸기 (진행 : 이동수)

만화캐릭터를 이용하여 대화를 나누거나 표현을 하게 함으로써 부담을 덜 갖고

완충작용을 하여 의사소통을 높이고자 하는 프로그램

6mm상상 워크숍 : 카메라로 난장치자 (진행 : 문화연대 청소년영상제작팀)

원썬 원쇼트 릴레이 영상물 제작 및 상영

춤워크숍 (신체표현 워크숍) - 내 몸과 마주하기 (진행 : 강미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 속에서 자신들의 신체훈련을 통해 자아를 되찾고 정서를 다듬으려 몸과 마음이 함께하는 체험 예술

디지털문화워크숍 - 전자감시사회에서 살아남기 (진행 : 민주노동당 활동가)

전자 감시 사례 영상물 상영 및 자유 토론

몸짓표현워크숍 (진행 : 캠프 참가자)

몸의 움직임을 통한 타인의 생각과 느낌 나누기

인권워크숍 - 인권 한걸음 (진행 : 캠프 워킹그룹)

참여자들과 함께 실천적으로 인권 한걸음 내딛기

사진전시 '정상과 비정상, 이기적인 말장난'

자아표현워크숍 - 이야기가 있는 노트 만들기 (진행 : 시락)

자신의 공간적, 시간적, 물리적 상황을 둘러보고 그 속에서 자신을 생각하고 표현을 통해 정리해 봄

퍼포먼스워크숍 (진행 : 퍼포먼스 그룹 '반지하')

토우 만들기, 소품을 활용한 퍼포먼스 프로그램, 안대놀이와 공간워크숍

꿈꾸는 마을 - 상상과 토론을 통한 공동체 마을 구성

마을 상상하기, 지도 그리기, 집/동네 만들기, 마을 상징물 만들기, 마을 축제 등

결혼상상

우리 결혼식문화/결혼생활에서 볼 수 있는 겉치레와 권위의식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 함께 얘기하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대안 만들기

[생태환경캠프 지도자양성과정]

“셀프(Self)·캠프(Camp)·점프(Jump)”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 및
진행 전문가(Planner and Facilitator) 양성과정

때 : 2005. 9. 28~30

곳 : 인천 강화도 바다의별 청소년수련원



√ **사업개요** (▶ 65쪽)

√ **강의원고 및 참고자료** (▶ 67쪽)

첫째날 : [희망나누기] 오리엔테이션·도입 / 환경,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캠프 /
마음열기, 인간관계형성 프로그램 (▶ 67쪽)

둘째날 : [점프하기]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단계 업그레이드하기 / 안전 및
보건교육 / 자연놀이·자연미술 / 셀프가족캠프 기획·발표하기 (▶ 78쪽)

셋째날 : [함께나누기]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 워크숍 전체평가, 수료식 (▶ 98쪽)

√ **활동자료** 워크숍 자료, 평가자료 (▶ 106쪽)

√ **참가후기** (▶ 112쪽)

사 / 업 / 개 / 요

[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캠프 전문가 양성과정

"셀프(Self)·캠프(Camp)·점프(Jump)"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진행 전문가(Planner and Facilitator) 양성과정

- 일시: 2005년 9월 28일(수) ~ 9월 30일(금), 2박 3일
- 장소: 강화도, 강화갯벌센터
- 대상: 환경교육 및 생태환경캠프에 관심 있는 활동가 및 시민(30명)

- 주요프로그램:
 - 캠프 기획단계 점프하기 : 주제 선정, 답사, 구체 프로그램 기획, 자원교사 교육, 홍보활동, 펀드 만들기, 참가자 소통 등 기획단계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
 - 캠프 진행단계 점프하기 : 생태·문화·공동체 체험, 기록, 안전, 레크리에이션, 진행팀 소통, 참가자 소통 등 진행단계에 필요한 교육 및 워크숍
 - 캠프 평가단계 점프하기 : 진행팀 자체평가, 참가자 피드백, 활동평가 기록(영상, 사진, 보고서) 등 평가단계에 필요한 교육 및 워크숍
 - 스스로 기획한 생태환경캠프 : "셀프·캠프·점프" 가족캠프 진행

- 프로그램의 특성:
 - 3단계 교육과정 : 체험·지식·흥미의 균형감, 기획·진행·평가 단계에 있어서의 명확한 역할 이해를 돕기 위한 기능교육, 이론교육, 및 현장 적용으로 구성
 - 참가자들이 자신의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 환경캠프를 스스로 기획 및 진행
 - 지속적인 활동 지원 : 참가자들은 일정기간 자원교사 및 보조교사 활동을 통해 추후 환경지도자로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음

- 주최: (사)환경교육센터
- 후원: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구체 프로그램 및 일정

시간	주 제	비고
[첫째날]		
13:00~18:00	[워크숍1] 오리엔테이션, 도입 - 기대와 희망 나누기, 생태환경캠프의 의미 공유	장미정(환경교육센터)
	환경·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캠프 - 대안캠프로서의 생태환경캠프의 의미, 자세	강혁(YMCA 청소년사업부)
19:00~21:30	마음열기, 공동체놀이, 레크레이션	조혜영(강북청소년수련원)
21:30~22:00	하루 나누기	참가자(장미정, 최진희 진행)
[둘째날]		
9:00~11:00	[워크숍2]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의 의미,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의 의미	장미정(환경교육센터)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단계 업그레이드하기	권양희(햇살학교)
11:00~12:30	안전 및 보건교육	이종석(적십자사)
14:00~16:00	자연에서 놀기(1) - 자연놀이	이현숙(숲연구소)
16:00~18:00	자연에서 놀기(2) - 자연미술	반정운(도봉환경교실)
20:00~21:30	[워크숍3] 캠프 기획-준비-진행-평가 단계 정리, 경험나누기	장미정(환경교육센터)
21:30~23:30	[워크숍4] 셀프가족캠프 기획하기, 발표하기	장미정(환경교육센터)
[셋째날]		
9:00~11:00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김선옥(꿈틀학교)
11:00~12:00	워크숍 평가, 수료식	장미정(환경교육센터)

첫째날 - 희망나누기

[워크숍1] 오리엔테이션, 환경·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캠프,
마음열기·인간관계형성 프로그램, 하루 나누기

■ 대안캠프로서의 생태환경캠프의 의미, 자세

캠프에 대해 알아봅시다!

강 혁 (YMCA 청소년 사업부)

1. 캠프의 정의

▶ 조직캠프의 정의

조직캠프는 책임있는 기관이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된 지도자와 교육받기를 원하는 참가자들을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자율적 집단생활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다.

- 캠프(camp) - 군대 주둔지 천막, 임시숙소 등 장소 위치적 관념, 목적을 가진 단체교육적 느낌
- 캠핑(camping) - 자연 속에서의 생활, 여가활동 등의 동적 의미,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쉬는 느낌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교육 목적의 캠프에 대하여 조직캠프라는 용어를 일반화하여 쓰고 있다. 자연 속에서 즐겁게 편히 쉬며 피로를 회복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레크리에이션 캠프라 하고 청소년의 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것을 조직캠프라고 말한다.

▶ 조직캠프의 조건

첫째 : 사회적으로나 공공적으로나 신뢰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이 운영하여야 한다.

- 둘째 :** 훈련된 지도자가 확보되어야 한다. 전문적으로서의 캠프교육자가 있어야 하며 상담자, 안전 관리자, 캠프관리자 등이 있어야 한다. 이는 캠프 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있지 않아야 한다.
- 셋째 :** 캠프 프로그램이 전문성 있게 개발 유지되어야 한다. 캠프 프로그램은 캠프가 시작되기 이전의 계획 및 준비단계로부터 캠프기간 및 캠프가 끝난 후의 추후 지도에 이르기까지 교육 목적에 맞도록 일관성 있게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캠프 프로그램은 연중 계속되는 것이다.
- 넷째 :** 교육목적을 인식하고 참가하는 참가자(Camper)가 있어야 한다. 캠프의 목적과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의도적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 다섯째 :** 캠프 장소는 대자연 속에 마련하고 주위 환경이 교육 효과를 높이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
- 여섯째 :** 집단생활로 창조적 체험을 가져다 줄 수 있어야 한다. 개성을 중시하고 자율성을 재고하며 집단의 힘을 모아 협력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맛보는 중요한 체험이 요구된다.

2. 캠프의 조직과 역할분담

▶ 캠프위원회

캠프위원회는 캠프의 계획과 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주관단체의 책임자 등과 일반 유지로 구성한다. 캠프위원은 캠프 교육 관심자 또는 캠프 유경험자, 또한 청소년 활동 관계자들에게 위하여 5~10인으로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캠프위원회는 캠프목적, 시간, 장소, 경비 그리고 캠프장(Camp Director)을 선정한다. 캠프장은 캠프위원회의 일인이 될 수도 있다.

▶ 캠프지도자 조직

캠프지도자 조직 여하에 따라 목표에 접근하는 성취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보유 지도자를 가지고 조직자를 구성하는 경우가 있으나 조직자를 먼저 짜 놓고 지도자를 맞추어 넣는 것이어야 한다.

▶ 캠프장(Camp Director)

캠프위원회에서 캠프에 대한 기본을 결정하면 이를 실행하는 책임은 캠프장에게 있다. 캠프의 성공이나 실패여부는 캠프자의 열의와 능력과 인성에 달려있다.

캠프장은 캠프에서 최고의 책임자이며 관리자이고 동시에 안전과 건강 책임자이다. 그래서 캠프에 관한 넓은 지식과 기능을 보유하고 관리업무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양이 필요하다.

캠프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캠프의 목적을 달성한다.
- 민주적 원칙에 따라 지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개개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한다.
- 캠프장의 역할과 지도자의 역할을 알고 캠프 전반에 실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 지도자들의 지도나 교육에 책임을 지고 그들의 인간관계에 주의하며 지도자들의 특기를 활용하고 협력하게 하며 틈틈이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상시의 대책을 연구하여 충분히 대비한다.
- 대외적 교섭과 캠프장이 있는 지역사회 인사들에 대한 접대도 유의한다. 캠프장의 역할을 총괄해서 말한다면 계획자(Planner)요, 감독자(Manager)요, 경영자(Operator)라고 할 수 있다.

▶ 지도자(Camp Leader / Counselor)

캠프지도자는 케빈 지도자(Leader) 프로그램 전문 지도자(Specialist) 상담지도자(Counselor) 등으로 구분된다.

케빈 지도자와 상담 지도자는 기능면에서는 상이하나 호환이 가능하며 대치성이 있다고 하겠으나 프로그램 지도자는 케빈 지도자를 겸임하는 것이 좋지 않다.

캠프 지도자들에 준해서 캠프활동이 직접적으로 지도되고 안내되므로 캠프의 성과는 지도자의 건강, 지식, 인성 등에 좌우된다. John A Leadie가 말하는 지도자의 중요자질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와 같은 순수성, 야외생활에 대한 사랑, 눈높이 수준에서 그들과 섞이려는 태도, 어떤 기능을 가르칠 능력, 건강과 안전에 대한 상식, 다른 사람과의 협동적 수행태도, 참가자에 대한 믿음, 어린이의 발달과 집단지도에 대한 이해, 뚜렷한 종교관, 정서적 성숙,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흥미, 민주적 생활방식에 대한 열의 등이 논의될 수 있다.

▶ 캠프지도자의 실무

캠핑에 대한 사전교육 수료, 캠핑 프로그램 기획에 참여, 캠핑 맞이하기(편한 마음 갖게 하기), 안전, 건강, 위생 살피기, 캠핑에게 휴식과 자율 부여, 캠핑의 생활 기록, 자신의 관리, 올바른 캠핑 평가태도

▶ 성공적인 지도자의 요건

- 캠핑 1인 1인에 대해서 부모, 선생님, 언니, 친구로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 캠핑 운영과 진행을 살피고 분석하며 다음 순서를 예측해야 한다.
- 행동이나 기능 또는 용모 등의 특징이 참가자 기억 속에 박히도록 기술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 어린이 사랑이 몸에 밴 지도자라야 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악수를 해 주며 안아주고 업어주는 지도자는 어린이들이 잊을 수가 없다. 졸졸 따라다니는 어린이가 있는 지도자는 누구보다 훌륭한 캠핑지도자이다.

3. 캠핑 프로그램의 준비

▶ 프로그램 형태

첫째 : 모든 활동은 참가자들에 의해 선정하는 방식. 캠핑에서 조직된 소집단은 자기들이 요구한 시간과 방법에 따라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한다. 일정표가 없다.

이런 캠핑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개성을 중시하며 잘 훈련된 지도자자는 캠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지도자가 잘 해 내지 못하면 참가자들이 피해를 본다.

둘째 : 프로그램 전문가에 의한 방식, 활동은 계획되어 있고 계획된 시간과 장소에 참가자의 참가가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전문가에 의해 지도되고 지도자(Leader, Counselor)는 숙소에서만 참가자들을 돌본다.

참가자 개인의 요구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으며 덜 훈련된 지도자도 역할을 해내기가 쉽다.

▶ 캠핑 프로그램의 구성

캠핑활동에 있어서 프로그램과 철학의 두 가지는 관념상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으니 이 둘은 서로 상호 관련적이며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교육 철학의 바탕 위

에 교육과정이 세워지듯이 캠프 활동도 철학적 바탕 위에 프로그램의 구조물이 설립되는 것이다.

철학은 프로그램의 원리가 되며 프로그램 짜기는 목적의 도구인 것이다. 원리가 논리적 조직적 형태라면 프로그램 짜기는 목적에 대한 해설로 시작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의 행동, 습관 지능 그리고 알맞은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렇게 요구되는 결과에 대비해야 할 프로그램은 어떤 캠프 프로그램이나 혹은 어떤 정해진 과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캠프 프로그램 편성에 있어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프로그램이 캠프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다. 가장 바람직한 캠프 프로그램은 참가자의 개인적 발전에 목적을 둔 것으로서 사회의 변화와 참가자의 특성에 따라 유동성이 있어야 한다. 동적인 프로그램은 지속되는 계획세우기를 요구한다.

프로그램 계획세우기의 원리는 모든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과 주어진 상황에서 잘 적응하도록 고르는 것과 그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참가자의 흥미나 요구는 캠프활동의 계획세우기로 확인되며 프로그램 짜기 작업의 기초가 된다.

▶ 프로그램 구성의 유의점

<참가자, 지도자, 장소, 날씨, 지원단체 또는 지원인의 목적, 철학, 캠프 전통이나 강조점, 구조>

프로그램 계획에서 다음과 같은 원리가 고려되어야 교육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 캠프활동의 진행이 너무 빠르지 않아야 한다.
- 활동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 대 침묵, 소집단 대 전체 활동, 지적 프로그램
- 대체 교육 프로그램
- 참가자들의 개인 일을 허락하는 충분한 자유시간이 주어져야 한다.
- 캠프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있는 위치에 따라, 변화는 욕구에 충족하도록 유연성이 있어야 한다.
- 연령에 맞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참가자의 동기에 유의해야 한다.

● 비상시(우천 등) 대체 프로그램 구성

▶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캠프 프로그램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포함될 것인가는 마치 제품을 만들 때에 어느 재료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과 같아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캠프활동에 포함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모두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 일상생활, 자연공부, 예술 활동, 캠프공작, 종교 프로그램, 레크리에이션, 특별한 날, 스포츠, 저녁 프로그램 (캠프파이어, 추적, 모험, 자연탐구, 묘지의 밤 등), 취사와 용구의 조정, 아침모임과 저녁모임, 캠프장 내의 봉사활동, 가족방문일 등

또한 캠프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이론적 근거는

첫째 : 캠프의 이념과 이번 캠프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 목표)

둘째 : 실시할 캠프 장소의 자연적 조건과 제반환경, 시설은 캠프의 목적 달성과 캠프를 실시하기에 적당한가? (시설)

셋째 : 프로그램을 전개시키기에 충분한 지도력은 확보되어 있는가? (지도력)

캠프 프로그램 작성 시 배려해야 할 점은,

- 참가자의 동기와 흥미, 욕구 등을 확인해 본다.
- 참가자의 능력(연령, 성별, 체력, 학력, 캠프 경험 등)에 맞는 프로그램을 작성.
- 캠프 장소의 자연적 조건과 주변 환경,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모처럼의 캠프에서 실내에만 갇혀 있거나 구태여 캠프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지루함을 유발한다.
-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어도 충분한 지도력이 없으면 불만을 남기게 된다.
-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의 개념에서의 안전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과 여유가 필요하다.

캠프기간을 무시하고 휴식과 활동이 골고루 안배되지 않은 무리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계획된 모든 일정 속의 프로그램을 모두 수행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지도자 속에 자주 있다. 참가자의 피로도, 기후변화 등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삶의 지혜이다.

- 참가자들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참가가 실현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처음에는 지도자에 의해 인솔 당하던 참가자들이 자기 스스로에 의해 그리고 소집단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스스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지도하며 그 과정 속의 개인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참가자 스스로가 고안해서 스스로 완성시켜 나가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 캠프 기간 전체의 흐름을 중요시하여 활동 하나 하나가 단편적이며 산발적으로 되지 않고 기간 전체의 주제(Theme)와 그날그날의 소주제(Sub-Theme)속에서 한편의 퍼포먼스(Performance)를 참가자와 같이 엮어 나가는 듯한 흐름이 있어야 한다.
- 개개의 프로그램마다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
- 활동으로서 뿐 아니라 기상에서 취침까지의 일상생활 전부를 프로그램으로 생각해야 한다.
-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과 장비를 확립해야 한다.

4. 캠프 프로그램의 평가

▶ 캠프 프로그램의 평가

- 참가자의 능력에 맞았는가?
- 캠프장 내의 시설과 자연조건을 충분히 활용하였는가?
- 지도력은 충분하였는가?
- 안전대책은 충분하였는가?
- 시간에 쫓기지는 않았는가?
- 참가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실현되었는가?
- 프로그램 그 자체는 무리 없이 진행되었는가?
- 사전의 목표와 의도한대로 충분히 반영되었는가?

▶ 캠프 지도자의 평가 (캠프 참가 전 미리 점검할 것)

- 어린이나 공동체 생활을 진정 좋아했는가?
- 야외생활을 충분하게 즐겼는가?
- 어린이나 공동체 생활의 수준에 맞추어 함께 어울렸는가?
-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지식을 가르쳐 주었는가?
-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 주었는가?

-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는가?
- 어린이나 청소년을 믿고 생활했는가?
- 어린이나 청소년의 성장발달과 그룹 방식의 방법을 이해하고 지냈는가?
- 정서적으로 원숙했는가?

■ 마음열기, 인간관계형성 프로그램

문화감수성 프로그램
- 소통과 나눔을 위한 그물망 -

조 혜 영 (강북청소년수련관 대안교육팀장)

1. 자기 드러내기와 몸 열기

▶ 활동목표

- 처음 여는 과정으로 어색한 마음을 풀며 자신을 조심스럽게 드러내는 과정이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주어진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또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한다.
-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신과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다.

▶ 활동내용

- ① 마음 모으기
- ② 몸 풀기
- ③ 몸 인사 나누기
- ④ 원 만들기
- ⑤ 매듭풀기
- ⑥ 자기소개 하기
- ⑦ 가면 만들기(자기성찰)
- ⑧ 내 삶의 에너지

2. 관계 만들기

▶ 활동목표

개인 간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대인관계 능력을 길러주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또한 집단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발견하고 집단의 문제에 접근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 활동내용

- ① 한 사람 움직임 따라하기
- ② 말 없는 말
- ③ 나무 만들기
- ④ 몸타
- ⑤ 몸 타
- ⑥ 보이지 않는 줄넘기

3. 마음 나누기 - 모심과 살림

▶ 활동목표

구성원들이 하나 됨을 경험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 소중한 마음을 갖고 배려하고 존중한다.

▶ 활동내용

- ① 신뢰의 원 만들기
- ② 내 짝을 찾아라!
- ③ 몸 느끼기
- ④ 모심과 살림
- ⑤ 심장 소리 듣기
- ⑥ 내 눈 속의 너, 네 눈 속의 나
- ⑦ 느낌 나누기

4. 명 상

참 나(True self)를 만나는 의식
-내 안의 나를 깨워라-

▶ 축제로의 초대 - 빛, 색깔, 향기, 소리

- 방 양쪽에 테이블을 놓고 흰색 테이블보를 덮고 그 위에 꽃과 양초로 장식을 한다.
- 가운데에 둥근 테이블을 놓고 보라, 청색 천으로 덮는다.
- 도자기 그릇에 물을 담아 물옥잠, 옥돌, 물에 뜨는 초로 장식을 한다. 그 주변에 망초와 양초로 장식을 한다.
- 조명은 덤머로 약간 어둡게 한다.

▶ 명상

- 소리(종, 혹은 북) - 밖에서부터 한 사람씩 작은 초에 불을 밝혀 안으로 들어와 가운데 테이블에 초를 올려놓은 후 둥글게 원을 만들어 선다.
- 영상
- 음악
- 낭독 - 참가자

사람과 사람이 만난다는 건 나의 우주와 너의 우주가 만난다는 것이야

다른 것이 당연해

부딪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지

사랑하게 된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야

우리들의 어리석음이 그 기적 같은 일들을 종종 망쳐버리곤 하지

사랑할 수 있는 다른 우주를 만났다면 지체 없이 달려가 껴안는 거야

나의 우주를 누군가 사랑한다면 기꺼이 열어 보여 줘야 해

열렬히 부딪치고 사랑하여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거야

그 우주가 얼마나 깊어지고 광활해지는가는 우리의 손에 달려있어

- 원 내려놓기 - 전체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하나의 둥근 원을 만들어 깨지지 않게 바닥에 내려놓는다.
- 음악
- 평화의 인사 - 원을 만들어서 한사람씩 돌아가며 포옹하기

둘째날 - 점프하기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안전 및 보건교육, 자연놀이, 자연미술, [워크숍2]셀프캠프 기획하기

■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새롭게 접근하기

권 양 희 (햇살자연학교)

들어가며..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 단계 점프하기, 새롭게 접근하기’란 제목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할지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존에 받아들여지던 기획, 진행, 평가라는 단계 자체를 완전히 접어놓고 이야기하자는 느낌이 들었다고나 할까요?

우선 생태환경캠프, 환경캠프, 생태캠프와 같은 다양한 캠프들이 있지만, 환경생태관련 캠프로 이야기 틀을 잡으며 이하 캠프로 줄여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이나 저나 많은 캠프를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므로 캠프에 관련한 일반적인 이론보다는 실무자 대 실무자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프의 유형을 정리해보고, 각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캠프의 정의

우선 캠프의 정의를 역사를 바탕으로 서술하면 "조직캠프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관이나 단체가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훈련된 지도자와 교육 받기를 원하는 참가자들을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일정기간 동안 자율적으로 집단생활을 통해 실시하는 교육활동이다' 라고 합

니다.

유형별로 보면, 캠프는 1일로 진행되는 생태기행 등의 day camp와 방학시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는 숙박형 캠프로 나뉘지고, 진행방식도 tour형식과 일정 장소에서 진행되는 형식으로 나뉘집니다. 기본적으로 굳이 분류하자면 위와 같이 크게 나눌 수는 있지만 캠프의 기획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태환경캠프는 그 특성상 야외환경교육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캠프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 반영해야 할 야외환경교육의 중요한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⁹⁾

- ① 환경교육의 내용 중 야외에서 가르치는 것이 바람직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②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을 감각을 통해 직접 접촉하게 함으로써 진행되는 방법이다.
- ③ 야외환경교육이 학교나 교실 내에서 실시되는 환경교육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 ④ 참가자와 진행자가 서로 체험을 공유하는 것이 기본적 토대가 된다.
- ⑤ 야외환경교육을 통한 체험이 비록 독특하더라도 일상적인 삶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 ⑥ 구체적인 체험들을 보편적인 원리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
- ⑦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행하고 보고 느낀 것을 가장 잘 안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프로그램을 작성한다.
- ⑧ 현대 산업사회에서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환경교육 방법이다.

8가지 내용에 모두 동의하십니까? 굳이 이렇게 학문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생태환경캠프를 기획할 때 우리는 이미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겠지요?

9) 이재영 외 (1995). 위계적 총체성과 개방적 상호의사소통에 의한 환경캠프 프로그램 평가방법. 환경교육 8권.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2. 생태환경캠프의 기획

캠프를 기획할 때를 생각해보며 함께 점검해 봅시다.

1) 누가

: 가장 쉬운 질문이지요.

대개는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왜

: 캠프의 기획의도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과 얻고자 하는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야 흔들림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 목적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숙박형으로 할 것인가, Day camp로 학교를 열 것인가 등 다양한 고민이 시작됩니다. 또한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참가자 모집을 위한 홍보 방법 등에 대한 고민도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4) 어디서

: 캠프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센스를 발휘할 때입니다.

내용은 좋은데, 시설의 열악함 때문에 캠프의 효과가 줄어들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전답사가 필수적입니다. 사전답사에서 check하실 기본적인 것들로는

- 캠프 장 관련(숙소, 욕실, 강의장, 부대시설, 식당 등)
- 프로그램 관련(이동 동선, 부대시설 등)
- 준비물 (개인, 전체, 프로그램별 등)
- 기타(차량 등)

등이 있습니다.

5) 무엇을

: 캠프의 주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상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에 대한 issue를 뽑아 내야 하는 것입니다.

6) 어떻게

: 그야말로 풀어가는 방식,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도자 교육 및 전체 진행 계획을 수립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하고, 준비 시간도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 프로그램별 세부운영내용
 - 일정별 진행계획 : 일자별, 시간대별
 - 지도자 지침
 - 준비물 check list
 - 비상연락망
- 등을 준비하셔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생태환경 캠프의 진행

1) 진행 전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점검해 두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러 번에 걸친 답사와 현지 지인들과의 긴밀한 연락을 통해 현지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등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생태환경캠프의 장소이면서 프로그램의 주제가 되는 식물상 같은 자연환경은 한두 주 차이로도 급속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2) 캠프가 시작되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사전에 기획되고 준비되었던 내용들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현장준비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한, 급작스럽게 프로그램이 변동되는 상황은 되도록 없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우천시 예비프로그램을 준비하시는 센스도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3) 캠프를 진행할 때 각 역할 주체, 총괄자, 강사, 진행교사, staff 등의 각 부문조직이 원활하게 co-work 할 수 있게 운영해야 합니다.

4) 안전관리도 필수입니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 프로그램이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4. 생태환경 캠프의 평가

평가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듯이 누가 잘했고 못했는가를 따지기 위해 점수를 매기는 과정이 아닙니다. 또한, 캠프에 대한 평가활동에서는 결과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캠프를 기획하는 과정부터 진행과 그 결과까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평가를 위해서는 캠프의 기획부터 진행 단계에 참여했던 각 역할 주체들(지도자, 기획자, 참가자)이 모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신이 맡은 분야에 따라 같은 문제를 다른 시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각 부문에서 보는 시각들이 모여야 비로소 평가가 완성됩니다.
- 캠프 목적에 잘 부합된 기획, 진행이었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만 평가하거나 목적을 잃어버린 평가는 다음을 기약할 수도, 다음에 더 발전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순히 참가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서 이를 숫자상으로만 평가하는 것은 좋은 평가라 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들은 캠프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상세히 알지 못하고, 자신의 느낌만을 피상적으로 적기 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캠프의 기획 단계부터 진행되는 모든 상황을 가능하면 잘 기록해 두고, 또 진행단계에서 참가자들의 반응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하여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평가는 앞으로 더욱 잘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에 못한 것을 질타하기 보다는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잡으시면 참여자 모두가 더욱 신나는 평가가 될 수 있습니다.

나가며...

생태환경캠프의 기획, 진행, 평가단계에서 필요한 몇몇 사항들을 실무자의 입장에서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던 내용일 수도 있고, 막

연하게 갖고 있던 생각들을 정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신 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하는 작업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해마다 더 새롭고 뜻 있는 캠프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환경캠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환경교육입니다. 이를 통해 참가자들로 하여금 좀 더 자연을 생각하게 하고, 좀 더 생태적이면서 친환경적인 생활방식을 택하고 실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캠프라는 특별한 시기에만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캠프 이후 참가자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가는 것이 캠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교육 - 이 중 석 (적십자사 보건안전과)

※ 강의참고자료 (자료출처 : 대한적십자사 www.redcross.or.kr)

1. 적십자사 소개

▶ **적십자의 안전사업**은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 대한적십자회의 응급구호반을 운영한 것을 시작으로 1948년에는 응급처치법을, 1953년에는 수상안전법을, 1975년부터는 심폐소생법을 보급, 안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보호 및 안전교육을 확대 보급하고 있다.

2. 적십자사 주요활동

▶ 안전지식 보급

적십자의 안전지식 보급 활동은 이태리 솔페리노 전쟁터에서 「장·앙리 뒤낭」이 부상자에게 응급 의료 구호활동을 실시한 것에서 유래되어 지금까지 각국 적십자사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0년 이전에서는 적십자의 응급처치 활동이 주로 전쟁터에서 부상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에 많이 사용되었다면, 현재는 현대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한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사고로부터 인간의 생명보호와 건강증진, 고통경감을 위하여 응급처치법을 널리 보급하고 있다.

▶ 응급처치법 경연대회

대한적십자사의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을 교육받은 청소년 및 성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학교별, 직장별, 단체별로 사고유형별 응급처치과제를 부여하고 주어진 위급 상황에 대하여 그동안 배운 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올바른 처치를 행하는 기술을 겨루어 우승자를 가리는 것이다.

이는 국민들에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집중 교육함으로써 이들에게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법 길거리홍보 캠페인**

야외활동에서 흔히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요인과 원인을 교육 홍보함으로써 사고 발생시 상황별 대처요령을 익히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왕래가 빈번한 역, 터미널, 운동장, 공원, 유원지, 해수욕장, 시내 중심가 등에서 응급처치법 강사들로 구성된 시범단이 각종 상황에 대한 처치 시범을 보이고 일반 시민들이 직접 실습 또는 참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응급처치법은 누구나 쉽게 익힐 수 있고, 응급처치법은 언제 어디서든 필요함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 **안전캠프**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 동안에 유치원, 학교 단위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여름에는 수영장 및 해수욕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요령과 겨울에는 스키장에서 안전사고 예방 요령을, 이외에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요령 및 간단한 응급처치법을 익히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어릴 때부터 안전의 중요성과 타인의 생명을 보호하는 이타심을 함양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가정과 유치원, 학교, 물놀이 등 여가생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방법을 교육하고 익힘으로써 어린이 안전 의식 고취에 그 목적이 있다.

▶ **수상안전교실 및 수상인명 구조활동**

해수욕장을 찾는 해수욕객들을 대상으로 물에 들어가기 전 안전수칙의 준수를 환기시키고, 올바른 수영 영법을 익히게 하며, 물에서의 위급 상황시 대처요령을 교육시킨다. 또한 해수욕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파악 제거하고 물에 빠진 사람(익수자)를 구조하는 등 수상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환경지킴이 활동**

시민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여가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산, 바다, 하천 등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소지가 있는 환경 쓰레기를 제거하고 국민들에게 환경쓰레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전개, 수중정화활동, 산행시 쓰레기 수거 등을 통하여 자연 보호에 힘쓰는 등 건강하고 아름다운 환경 조성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3. 응급처치법

<제 1장 응급처치법 원리>

▶ 응급처치의 필요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사고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우리 몸을 보호할 수도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먼저 위급상황을 인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급상황을 인지 할 수 있는 요소는 소리, 냄새, 주변상황이 있으며 이러한 3가지 요소에 의거 위급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위급상황에 대해 행동을 하여야 하는데 위급상황에 도움을 주는 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3가지 단계가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사고 발생에 대해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 위급시 행동요령

사고가 발생하여 위급한 상황에서 행동하여야 할 3단계로 현장조사(CHECK), 응급의료기관에 연락(CALL), 처치와 도움(CARE)이 있으며 이를 3C라 한다.

현장조사라 함은 사고 현장이 안전한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쳤는가,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하는 것은 부상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처치 및 도움은 응급의료진이 도착하기 전까지 부상자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보호해주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3단계의 행동요령에 대해 배우게 된다.

▶ 쇼크(Shock)

모든 부상자는 항상 쇼크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부상자가 발생하여 응급처치를 할 경우 우선적으로 쇼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처치를 하여야 하고 쇼크증세가 나타나면 이에 대한 응급처치를 실시하여야 한

다.

▶ **응급처치시 알아야 할 사항**

응급처치원은 응급처치를 실시하기 전에 부상자로부터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처치원은 응급처치를 실시함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에 대하여 사전 예방 대처로 감염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 2장 구조호흡,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 **구조호흡**

구조호흡은 호흡이 정지된 환자에게 강제로 공기를 불어넣어 주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 공급을 유지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구조호흡을 실시하는 요령은 먼저 부상자의 의식유무를 확인하고 의식이 없으면 호흡을 10초 이내로 확인하고, 호흡이 없으면 5초에 한번씩 공기를 불어넣어 준다.

▶ **심폐소생술**

심폐소생술은 호흡과 심장이 정지된 환자에게 구조호흡과 흉부압박을 통하여 뇌세포 등에 산소를 공급시켜 주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생명을 유지시켜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요령은 먼저 의식을 확인하여 호흡이 없으면 구조호흡을 두 번 실시하고 경동맥을 확인하여 맥박이 없으면 흉부압박을 약 10초정도에 약 5cm의 깊이로 15회 실시하고 두 번 불어넣기를 5초 정도에 실시한다.

▶ **기도폐쇄**

음식 등을 먹다가 또는 어린아이들이 동전 등을 삼키는 등 이물질이 식도에 걸리어 기도가 막혀 호흡이 멈추는 것을 말하며 이런 경우 빠른 시간 안에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이물질을 제거하는 요령을 배우게 된다.

<제 3장 상처, 드레싱, 붕대>

▶ 피부조직 및 혈액

우리 몸에는 체중의 7-8%에 해당하는 혈액이 있으며 이 혈액은 약 100,000km에 이르는 혈관을 통하여 우리 신체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여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러한 혈액이 상처 등을 통하여 일정 부분 이상 몸 밖으로 빠져나가면 생명을 잃게 된다.

▶ 상처 및 응급처치

상처의 종류에는 베인 상처, 긁힌 상처, 찢린 상처, 찢겨진 상처, 짓눌린 상처 등이 있다.

이러한 상처는 출혈이 많은 경우와 출혈이 적지만 감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출혈이 심한 경우에는 출혈을 방지하여 주고 감염의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감염이 되지 않도록 응급처치를 하여주어야 한다.

▶ 드레싱 및 붕대

드레싱은 부상부위에 소독된 거즈를 대어주는 것으로 소독된 드레싱이 없을 경우에는 깨끗한 천을 불 등으로 소독하여 사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 드레싱을 고정하여 주고 부상부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붕대를 사용한다. 이러한 붕대에는 삼각건, 롤붕대 등이 있다.

<제 4장 열과 냉에 의한 손상>

▶ 화상

불이나 연기, 수증기, 뜨거운 물체, 태양열 또는 화학물질 등에 의하여 우리 몸의 피부가 손상을 입는 것을 화상이라 한다.

이러한 화상은 1도 화상, 2도 화상, 3도 화상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맞는 응급처치를 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화상은 차가운 물 등으로 열기를 제거하여 주고 화상부위가 감염되지 않도록 하여준다.

▶ 동상

우리 몸이 추위에 노출되거나 화학약품 등에 의해 피부조직이 손상되는 것으로

추위에 의한 경우 특히 귀, 손가락, 발가락 등이 동상에 잘 걸리는 부위이다.

동상에 걸리지 않으려면 추위에 피부가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움직이거나 하여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 5장 골절>

▶ 골격 및 골절

우리 몸의 골격은 약 200여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골격의 역할은 체형을 이루고 균형을 유지하여 주며, 중요한 장기를 보호하고 근육을 부착시켜 신체의 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뼈가 외부의 충격 등으로 부러졌을 경우 부러진 부위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불구가 될 수 있다.

골절이 생기면 먼저 부상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동해야 할 겨우 부러진 부위를 고정시켜 주어 더 이상의 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 골절처치

골절된 신체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부목을 대어 고정시켜주는 것이 기본 응급 처치이다. 이 때 사용하는 부목은 고정부목과 대용부목이 있으며 대용부목은 책이나 잡지, 담요, 베개 등이 있다.

■ 자연에서 놀기(1) - 자연놀이

숲에서 놀기 전에...

이 현 숙 (숲연구소 생태강사)

어린 시절 접하는 자연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생태적 감수성, 자연에 대한 친밀감 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들은 자연과 직접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감각적으로 자연을 받아들이고 지각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이후 긍정적인 환경태도를 형성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자연체험활동은 아이들의 균형 있는 몸의 발전, 영혼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돕게 됩니다.

그야말로 이 시기의 아이들은 자연 속에서 뛰놀고 체험하는 그 자체로 훌륭한 교육이 될 수 있습니다.

숲에서 놀자! - 뭘 하고 놀지?

아이들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부모님들에게 가끔 이런 질문들을 받습니다. '숲에 가면 뭘 해야 하죠?' 어려운 고민이지요? 그러나 아이들에게 숲을 놀이터로 인식시켜준다면 책보다 재미나는 교육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숲은 원하는 지식을 바로 찾을 수 있는 책이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TV나 오락기, 컴퓨터, 장난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생명의 친구들과 장난감으로 가득 찬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의 어릴 적을 생각해 보세요 거창하진 않지만 TV나 오락기는 없었지만 즐거웠던 기억들을요.

자연놀이는 어려워?

요즘은 숲에서 자연을 공부하고 놀이로 표현하는 방식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나 막상 구입한 책을 통해 무엇인가를 해보기는 쉽지 않죠? 숲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은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좀더 용기를 내고 좀더 관찰하신다면 그리고 상상해 보신다면 여러분도 아이들에 눈에 멋진 자연선생님이 될 수 있어요.

숲에서 놀이를 하면서 이것만은...

지식으로 접근하는 자연 VS 놀이로 배우는 자연

부모님들은 아이들과 숲에 나갈 때 그것이 불리워지는 이름 하나에 애달아 합니다. 물론 이름을 아는 것, 그 생물의 습성을 배우는 것도 좋은 교육입니다. 그러나 불러주는 이름 없는 잡초 또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지식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생명본연의 가치를 보이는 것 그대로 전달하고 표현하는 것 역시 좋은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과 숲에 나가기 전에 만나게 될 이름 모를 풀꽃과 가물가물한 식물들에 긴장하지 마시고 그들의 향기와 생명력에 대해 이야기 해보세요. 아마도 아이들은 이름 하나 알려주는 것보다 행복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숲에서 할 수 있는 놀이

- 코 만지기
- 나는 누구일까요?
- 내 짝을 찾아라!
- 우리는 무엇일까? (동물 흉내내기)
- 다른 세상 보기(거울로 보는 세상)
- 숲 속 탐정 놀이 (보호색 놀이)
- 나의 발가락 촉각 지수는? (발바닥 감각 체험 놀이)
- 나의 후각 지수는? (숲의 향기 맡아보기)
- 나의 촉감 지수는?(손의 감각으로 느껴 보기)
- 에벌레 되어 보기 (눈 가리고 걷는 숲 속 체험)
- 누가 누가 더 멀리 뛰나? (동물들의 제자리에서 멀리 뛰기)
- 나무와 물건
- 믿음 쌓기
- 박쥐와 나방

- 내 나무 찾기
- 나무 되어 보기

- <봄>
 - 봄의 심장 박동 소리 듣기(나는 나무 의사)
 - 새집 짓기(보호색 놀이)
- <가을>
 - 낙엽 퍼즐놀이
 - 자연 팔레트 만들기
 - 열매 도감 만들기
 - 열매 짝꿍 놀이(소리로, 촉각으로)
 - 가을 액자 만들기
 - 식물 메모리 게임
- <겨울>
 - 나무의 역사, 나의 역사 (나이테 관찰)
 - 숲 속 달리기 (동물들의 달리기 기록과 견주어 보기)
 - 다람쥐의 겨울나기
 - 야생 동물의 겨울나기 체험
 - 숲 속 보물찾기
- <만들기>
 - 나무 목걸이 만들기 (나무, 대나무)
 - 나뭇잎 염색하기, 숫대 만들기, 자연물 액자 만들기
 - 곤충 만들기, 지네 만들기, 화관 만들기

식물을 이용하여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

식물이 많은 장소에서 할 수 있는 놀이

- * 꽃씨름 - 야생화(제비꽃, 토끼풀, 민들레 등) 한 송이씩을 가지고 서로 걸어서 당긴다.
- * 꽃반지 -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꽃을 이용하여 반지, 손목시계 만들기
- * 퍼즐놀이 - 쇠뜨기, 뱀밥을 이용하여 줄기를 뺏다가 다시 제자리에 찾아 끼는 다.
- * 꽃목걸이 - 바늘과 실을 이용하여 꽃을 연결한다.
- * 나뭇잎을 이용한 공작 놀이 - 소꿉바구니, 인형 슬리퍼 만들기
- * 풀피리 만들기 - 버드나무, 콩깍지, 풀잎, 뚝새풀, 개피 등의 잎을 이용

- * 송진 놀이 - 끈적끈적한 송진을 긁어모아 침질하고 비벼서 여러 가지 만들어 보기
- * 풍차, 돛단배 만들기 - 물가 식물(줄, 갈대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 띄워보기
- * 왕 눈 만들기 - 잎줄기를 잘라서 눈꺼풀 끼워 버티기
- * 강아지풀 이용 - 콧수염, 털벌레, 애벌레 경주하기
- * 가면놀이 - 큰 잎을 이용(일본목련, 벽오동잎 등)
- * 지네 만들기 - 칩 줄기 이용

직접 찾아보는 놀이

- * 여러 가지 나뭇잎 모으기
- * 먹을 수 있는 식물 찾아 비빔밥 해 먹기
- * 화전 굽기 - 진달래, 개나리, 봄나물 이용
- * 자연 팔레트 만들기, 자연 속에서 색깔 찾기
- * 숲 속 보물찾기 - 벌레 먹은 나뭇잎,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향기 나는 잎 등
- * 같은 열매, 나뭇잎 찾기 - 먼저 보여 주고 주변에서 같은 것을 찾아오게 한다.

함께 불러요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이창희 시, 백창우 곡

꽃은 참 예쁘다
풀꽃도 예쁘다
이 꽃 저 꽃
저 꽃 이 꽃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 자연에서 놀기(2) - 자연미술

자연에서 배우기

반 정 윤 (도봉환경교실 생태체험미술 강사)

1. 생태미술이란?

생태미술은 대자연을 무대로 하는 새로운 미학의 개념으로서 자연 생태의 순수성·아름다움 등을 내면화하고 그 감동을 바탕으로 미적으로 표현하는 미술 분야를 말한다.

2. 생태미술의 목적

생태미술의 목적은 어린이의 감성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어릴수록 자연친화적이고 자연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욕구도 크며 감성의 크기가 크다. 이런 시기에 어린이의 감성을 제대로 키워주어야 이성과 감성이 골고루 발달한 균형있는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3. 생태미술의 중요성

감성은 이성과 함께 인간의 내면을 구성하고 있다. 감성은 인간과 주변 환경을 이어주는 것으로서 인간 생활의 기본적 영역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자연으로부터 느낀 것들은 어린이의 감성을 움직이게 하고 그것은 곧 이성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생태 미술 활동을 통해 얻어지는 다양한 미술적 체험은 감성과 오감을 발달시켜 순한 마음과 맑은 마음을 갖게 하고 깊이 생각하는 힘을 길러준다. 그럼으로써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연과 환경, 인간을 생각하게 해주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도 길러준다.

4. 생태미술 교육의 포인트

♠ 체 험

생태미술 활동을 할 때에는 단순히 동식물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동식물을 직접 만져보고 직접 그려보고 관찰하는 눈을 키우는 것이 중요

하다. 동식물을 직접 관찰하고 그려보다 보면 그것들이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모양과 색으로 다가오게 된다. 이렇게 될 때에 어린이들은 자연이 지니고 있는 것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으며 자연에 대한 감성을 키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오감 활용

단순한 지식전달은 교실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생태미술은 야외학습이라는 특성을 살려 교실에서는 할 수 없는 활동들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생태미술은 최대한 오감을 이용하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때론 입으로 맛을 보기도 하며, 온 몸으로 느껴 볼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된다.

♠ 동기 부여

생태미술 교육의 목적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자발적인 미술활동이 있어야 하며 어떤 강요가 있어서는 안다. 어린이의 자발적인 미술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동기 부여이다. 생태미술 교육은 자연을 관찰하면서 동기 또는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린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5. 실제로 해볼 수 있는 활동

♠ 찰흙으로 곤충집 만들기

찰흙을 이용하여 곤충집을 만들어보고 그 속에서의 곤충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이다.

♠ 자연물로 곤충 만들기

나뭇가지·잎사귀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곤충을 만들어 봄으로써 각종 곤충의 형태를 익히는 활동이다.

♠ 자연물로 생활용품 만들기

나뭇가지·밤껍지 등 자연물을 이용하여 숟가락 등의 생활용품을 만들고 색칠까지 해보는 활동이다.

♠ 나뭇잎 모양대로 연상하기

다양한 모양의 잎사귀들을 모자·배·바늘 등 우리 주변의 사물과 연상시켜 보는 활동이다.

♠ 나무 한그루 만들어보기

나무의 골격을 그리고 여기에 꽃잎을 붙여서 한 그루의 나무를 완성해보는 활동이다.

♠ 꽃잎 염색과 연상 구체화

꽃잎으로 손수건에 천연 염색을 하고 염색된 모양을 주위의 사물과 연상시켜 구체화해보는 활동이다.

♠ 나무 수피 그리기

다양한 무늬의 나무껍질을 그려봄으로써 무늬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활동이다.

♠ 숲에서 찾아낸 색 재현하기

숲에서 찾아낸 각종 색깔을 그림으로 재현하여 색에 대한 감각을 키우는 활동이다.

♠ 먹물을 이용한 탁본 활동

잎맥·물고기 옆면 등을 탁본하여 자연물의 크기와 문양을 있는 그대로 재현해보는 활동이다.

6. 페르탈로찌 명언

“아이들을 자연으로 내보내라! 언덕에서, 들에서 아이들을 가르쳐라!
그 곳에서 아이들은 더욱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이고,
그 때 가진 자유의 느낌은 아이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자유 시간에 아이들은 당신에 의해서보다는
오히려 자연에 의해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연이 바로 진정한 교사라는 것과

당신은 그저 자연을 조용히 산보하는 사람에 지나지 않음을 완전히 깨닫게 하라.

아이들은 걸음을 멈추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귐이나 나뭇잎 위의 곤충의 노래를 듣게 될 것이다.

나무와 새와 곤충이 아이들을 가르치게 될 때 당신은 조용히 있도록 하라.

숲은 우리의 스승이요 어머니이다.

각박한 삶 속이지만 자주 숲 속에 들어가 숲을 만나 대화하고 느끼고 사랑하며

그 위대함이나 지혜를 배워, 우리들 스스로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자연의 섭리를 배우고

또 우리들을 따르는 어린이들을 오감으로 체험케 하여

바른 인성을 키우는 진정한 목자가 되었으면 한다.

숲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고 우리들의 영원한 고향이다.”

셋째날 - 함께 나누기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워크숍 평가, 수료식

■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아동 · 청소년의 이해

김 선 옥 (꿈틀학교)

우리는 청소년을 무엇이라 부르는가?

사춘기, N세대, 영상세대, 멜론세대... 세대는 급격히 변하고 아이들은 점점 변화해가고...

서로 이해하기 힘들어지고...

그들은 그들만의 세계가 있다. 그들은 잘 이해한다는 것은 그들과 잘 소통하기 위한 코드를 잘 안다는 것이다. 우리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문화적으로는 조숙, 심리적으로는 미숙한 것이다. 아이들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아이들과 잘 소통한다는 것, 아이들과의 즐거운 소통을 위하여 다함께 생각해 봅시다.

1. 아동청소년이 갖는 일반적인 문제

▶ 나쁜 생활습관이나 비행

도박 / 습관적 거짓말 / 욕설 / 술, 담배, 본드 / 거친 행동, 폭력 / 지속적TV 시청 / PC중독 / 가출 / 성비행

▶ 정서발달이나 사회성의 문제

- 불안하고 산만하다 - 집중력이 떨어진다.
- 눈치를 본다 - 기가 죽어있다. 자아긍정성이 떨어진다.
- 감정기복이 심하다.
- 스킨쉽의 욕구가 있다 - 어리광이 많다.

- 잘 빠지고 싸우며 감정통제가 잘 안 된다.
- 잘 대해주는 선생님에게 집착하고 과다전화나 호출을 자주 한다.
- 고집이 세다.
- 자기표현이 서툴고 문제해결력이 떨어진다.
- 음식이나 물건들에 대해 욕심이 크다.
- 공격적이다 - 친구나 강아지를 심하게 때리는 경우가 있으며 물건이나 책 장난감을 던지고 부순다.

▶ 학습장애, 학습부진

- 학습의욕저하 - 학교공부 흥미 없다.
- 학습능력부족 - 경제빈곤이 교육빈곤으로
- 학습장애

▶ 빈곤의 문제

- 경제적 빈곤 - 교육적 빈곤 - 사회적 빈곤 - 경제적 빈곤 = 빈곤의 악순환
- 주거환경의 열악
- 신체발육저하 - 영양부족
- 학습비 부담의 어려움 - 공납금 급식비 준비물...

▶ 가정문제 (가정해체, 학대, 폭력)

▶ 정신과적인 문제

- 品行장애
- 우울증
- 자폐증상 / 몽유병 / 거식증
- 틱 장애 - 눈 깜박임, 말더듬, 빈뇨 및 야뇨

2. 청소년이 문제행동을 보일 때

▶ 청소년들이 가출 하고 싶을 때

어른님이 이유를 듣지 않고 무조건 야단칠 때 /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할 때 /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지 않을 때 / 어른님이 서로 싸울 때 / 어른님의 과

잉보호와 간섭 / 공부의 부담이 클 때 / 선생님의 차별대우 / 학교성적이 나쁘게 나왔을 때 /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때 /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을 때 / 성적으로 인해 어른님과 선생님께서부터 야단을 맞을 때 / 방학중에, 시험을 앞두고, 친구가 가출했을 때

▶ 청소년 가출전 증후군

말 수가 없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 외모에 관심이 늘어나고 변화가 커진다 / 외부 전화에 민감하며 친구의 전화나 호출을 받고 안절부절해 한다 / 머리카락이 빠가 자주 아프다고 이야기한다 /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오지 않거나 친구관계가 변한다 / 무조건 전학을 보내 달라고 하거나 갑자기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겠다고 한다 / 연습장에 죽고 싶다, 학교에 가기 싫다, 난 왜 이럴까 등의 낙서가 보인다 / 화를 자주 내며 가족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 가족행사에 참여 하지 않는다 / 지각이나 결석이 늘어난다 / 예전보다 용돈을 자주 요구하거나 갑자기 지출이 늘어난다 / 성적이 떨어지고 집에 와서 학교생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 귀가가 늦어지며 자주 친구집에서 자고 오겠다고 한다.

3. 청소년들이 말하는 청소년문제 예방대책

▶ 가정에서

- 어른교육을 시켜야 한다.
- 어른님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
- 잘못했을 때 무작정 때리지 않는다.
- 어른들이 아이에게 적절한 지도 및 교육을 한다.
- 어른이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갖는다.
- 가정 화목이 중요하다.
- 자식을 신뢰하고 아낀다.
- 어른들의 방식대로 강요하지 않는다.
- 어른/아이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

▶ 학교에서

- 교육제도를 바꾼다.
- 학교폭력을 없앤다.

- 선생님의 따뜻한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다.
- 학교생활을 자유롭고 재미있게 하게 한다.
- 시험을 보지 않고 통지표를 보내지 않는다.
- 입시위주의 교육과 교사들의 학생 몰이해를 개선한다.
- 개성을 살리는 교육이 필요하다.
- 생활 속에서 취미, 특기를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 성적으로 학생을 평가하지 않는다.

▶ 사회에서

-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않는다.
-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청소년을 돕는다.
- 청소년 문화 공간을 마련하여 준다.
- 가출 청소년의 태도나 생활을 연구하여 사전에 예방한다.
- 고민있는 가출청소년이 유해업소에 빠지지 않도록 상담해 준다.
- 가출청소년이 상담할 곳을 마련해준다.
- 청소년의 고민을 들어줄 상담기관이 필요하다.
- 가출했을 때 쉴 수 있는 쉼터가 필요하다.

▶ 나 자신이

- 자기 자신을 이해한다.
- 밝게 생활한다.
- 힘들 때 자신을 도와 줄 사람과 대화한다.
- 개인의 문제해결방법으로 가출을 인정한다.
-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기른다.
- 자기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갖는다.

4. 아동청소년의 접근방법

-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포괄적인 서비스가 필요하다
- 개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 잠재력을 발견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키우는 접근이 필요하다.

-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한다. -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 아동· 청소년과 그의 가족과의 관계성 수립을 위해 노력 하여야한다.
- 장점 파악하기 - 강점을 통한 관계형성
- 방해요인 찾기 - 개인, 가족, 환경
- 가능한 해결방법에 대해 상담 및 교육을 병행한다.
- 희망적인 재 개념화가 중요하다.
- 재발방지계획을 세워야 한다.
- 기본적인 욕구를 다루고 안전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다루어준다.
- 잃어버린 꿈들에 관해, 자신의 삶을 그리게 할 것
- 의미를 찾도록 노력하게 하자.
- 사랑이 가장 훌륭한 기술 - 항상성 유지
-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도록 돕자.

5. 아동청소년의 상담방법

10대들이 갖는 불만은 어른들과 의사소통에서 서로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그 중 서로의 동기에 대해 의심을 갖고 있으면서 또는 마치 아이가 어떤 안 좋은 일을 피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아이에게 취조하려는 듯이 말을 하는 어른들의 태도이다. (왜 늦었느냐?, 뭐 하고 있었니?)

청소년들은 이러한 질문을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느끼고 그것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어른들은 더 화가 나고 의심을 갖게 되며 그것은 다시 아이로 하여금 아무 것도 얘기하기 싫게 만들게 된다. 또 하나의 주요한 문제는 어른과 청소년간의 의사소통 방식(style)인데 ‘나는 어른이고 너는 아이니까 내가 제일 많이 안다.’ 라는 식의 태도가 문제이다. 이러한 태도는 8세 때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16세 때에는 효과적이지 못하고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어른이 자신이 편리할 때에만 대화를 고집하는 경우인데 아이들은 자신들이 정작 대화를 하고 싶을 때는 어른들이 바빠서 얘기할 시간이 없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어른의 이런 행동들은 10대의 아이들 스스로에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지친 것처럼 행동하거나 비웃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경우, 의도적으로 어른이 하고자 하는 말을 꼬는 경우, 어른이 말을 하는데 귀를 막는 경우 등이다. 더 나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어른은 아이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주어야

한다.

- ▶ 어른이 아이에게 보다 명확한 의사전달을 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점
 - 어른의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 라는 메시지를 사용한다. - 음식을 먹은 후에 부엌을 엉망인채 놔두었다고 소리치기보다는 “내가 엉망인 집에 들어오면 나는 화가 나게 된다. 그러니 네가 먹고 나서 그것을 치워서 도와준다면 나는 고맙겠다.” 라고 설명한다.
 - 어려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어른의 생각을 정리한다.
 - 아이가 어른의 우선적인 문제를 알게 할 것 - 어른이 우선순위로 두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라.
 - 아이가 어른이 원하는 것을 추측하게 만들지 말아라.
 - 말할 때는 간결하게 말하라
 - 피드백(feedback)을 위해 질문을 하라 : 아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지의 여부를 알 수 있다.
 - 아이의 기분에 관심을 기울여라. 아이가 대화를 하기에 좋지 않은 때와 좋은 때를 잘 가려서 차분해질 때까지 기다릴 것.

- ▶ 아동 청소년과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
 - 아이를 말로 누르려 하지 말라. 즉 아이를 여전히 어린아이인 것처럼 다루지 말고 인격적으로 존중해라.
 - 어른이 그르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10대의 아이들은 어른이 완벽하지 않고 실수한다는 것을 안다.
 - 반복적인 비난은 건설적인 대화를 막고 둘 사이에 벽을 만들 뿐이다
 - 어른이 화나 있는 상태에서는 대화를 시작하지 말아라.
 - 모든 일에 정답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아라. 아이들은 이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 이상이 있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 어른 아이 간의 논쟁이 이기고 지는 상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어른의 목표는 왜 논쟁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갈등을 생산적인 의논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되어야한다.
 -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주변의 일들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하라. 의사소통이 반드시 개인의 문제에 대한 것일 필요는 없다.
 - 어른이 10대였던 때를 기억하고 10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애써라.

- 아이에게 정직해라. 그러나 상처받은 기분을 피하도록 애써라.
-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최후통첩이나 명령은 피하라.
- 아이가 말하는 것을 잘 듣는다면 아이 또한 어른의 말을 더 귀기울여 들으려 할 것이다.

▶ 구체적 상담기법

① 비밀보장의 원칙

상담자와 청소년 간에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설명 - 필요한 경우 다른 선생님과 의논하거나 청소년의 입장을 물어본 후 결정.

② 인간관계, 치료방법, 치료계획에 대해 청소년과 직접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의 기본욕구를 물어봐주고 자신의 학습계획이나 목표를 스스로 정하게 한다.

③ 청소년의 발달과제, 특성, 역동 등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④ 비언어적 의사전달을 주의 깊게 관찰,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태도, 자세, 습관이나 버릇 등)

⑤ 침묵 (고민, 파워게임, 거부)

· 기다려 주는 것이 원칙이나 너무 길어졌을 때 적절하게 깨준다.

· 거부시 - 치료자를 시험하는 것이거나 자신의 불안에 대한 방어, 치료자에 대한 전 현상

⑥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기 - 면접, 메신저나 버디, 문자, 메일, 싸이 등등 청소년이 좋아할만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꾸준히 만나자.

⑦ 꼭 물어봐서 확인해줘야 하는 것들

· 자살 사고 (방법, 시도유무)

· 성경험 → 성학대

· 난폭한 행동 - 폭력사용 계획

· 약물복용 (술, 담배, 본드, 가스...)

· 정신적 증상 유무 (망상, 환청)

⑧ 면담 중에 은어, 속어, 욕 등은 좋지 않다.

· 속으로 무시, 겉으로만 친해질 가능성이 있다.

⑨ 친밀감을 형성하라.

⑩ 대화나 메시지를 사용하라 - 최후통첩이나 명령은 피하라.

⑪ 만나는 학생에 대한 가족과 친구사항, 습관, 버릇, 관심사 등을 파악하라.

- ⑫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 문제중심 접근보다 해결중심 접근을 사용하라.
- ⑬ 일관된 자세와 생활태도를 가져라 - 건강하게 살아가는 교사 자신의 생활을 보여라.
- ⑭ 항상 준비된 자세로 만나라 -해줄 이야기, 쪽지나 편지. 그날의 과제나 준비물을 꼼꼼히 체크하라.

6. 칭찬할 때 쓰면 좋은 느낌말 ☺

♡ 사랑스럽고 솔직한 느낌을 전할 때 ♥

잘 하는, 이해심 많은, 흡족한, 믿음직한, 귀여운, 다정한, 화통한, 훌륭한, 마음이 넓은, 낙천적인, 책임감 있는, 유쾌한, 형제같은, 참을성 있는, 자비로운, 남을 생각할 줄 아는, 관심있는, 동정심 많은, 기분좋은, 호감을 주는, 협조적인, 온화한, 호의적인, 점잖은, 매력있는, 위안이 되는, 씩씩한, 마음이 맞는, 헌신적인, 관대한, 착한, 양심적인, 몰두하는, 상냥한, 인자한, 느긋한, 후한, 정직한, 애교있는, 감정이 풍부한, 진심에서 우러난, 존경스러운, 사랑하는, 평화로운, 아낌없는, 붙임성 있는, 감미로운, 즐거운, 좋은, 인정있는, 온순한, 공손한, 사려깊은, 흥미있는, 도덕적인, 분별있는, 아량있는, 친절함, 감성적인, 진실한, 신뢰할 수 있는, 온정적인, 슬기로운, 이해가 빠른, 따사로운

♫ 의기양양하고 즐거운 느낌을 전할 때 ♪♫

신바람 나는, 유머러스한, 평온한, 편안한, 우수한, 고무적인, 뛰어난, 행복한, 흥분된, 기분이 좋은, 진취적인, 화사한, 유쾌한, 굉장한, 멋진, 명랑한, 짜릿한, 대단한, 적당한, 엄청난, 익살스러운, 쾌활한, 매혹적인, 의기양양한, 만족한, 기쁜, 위엄있는, 흥분되는, 우쭐한, 영광스러운, 놀라운, 활달한, 황홀한, 좋은, 너무나 기쁜, 재치있는, 당당한, 흡족한, 놀랄만한, 고상한, 흔쾌한, 근사한, 열렬한

◆ 힘있는 느낌을 전할 때 ▣

할 수 있는, 용맹스러운, 강한, 적당한, 유력한, 확실한, 확신에 찬, 강력한, 참을성 있는, 두려움 없는, 우세한, 한창 때인, 과감한, 확고한, 강건한, 잘 준비된, 용감한, 힘찬, 안정된, 자신만만한, 용감한, 힘찬, 안정된, 생기있는, 담력있는, 책임, 영향력 있는, 착실한, 대담한, 끈기있는, 단호한, 단단한, 중요한, 예리한, 튼튼한, 자신 있는, 능숙한, 영웅적인, 독립적인

활 / 동 / 자 / 료

<1> 워크숍 활동자료 정리

▶ 참가자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란... *** 이다”

- **활동방법** : 강사가 늦어져 틈새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내용 중 2명씩 별집토의를 통해 발표한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의 정의를 모아 정리하였다.

- 시공간적인 모든 존재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삶
- 살아가는 세상임을 의식하도록 하는 캠프
- 생태맹을 뜨게 하는 캠프이다
- 나의 존재감을 올바르게 찾아가는 길이다
- 자연 속에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을 생활화할 수 있는 것이다.
- 타자를 배려하는 마음이다
-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을 이끄는 법
- 나를 깨우치는 기회
- 사랑의 도리를 가르치듯 하지 말고 자연의 섭리를 일깨우는 날입니다.
- 삶에 젖어드는 캠프
-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가지는 생태적 감수성을 불러일으키는 것
- 환경이 나의 일부가 아니라 내가 환경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 우리 환경을 새로운 느낌과 태도로 대할 수 있도록 돕는 캠프이다.

▶ 캠프의 기획-준비-진행-평가 과정 워크숍 활동내용

- **활동방법** : 강사의 강의가 정리보다는 산발적으로 공유하는 것으로 진행되어, 저녁 워크숍 활동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기획, 준비, 진행, 평가 네 단계에 있어서 필요한 요소 카드를 미리 준비하고 빈 공간을 두어, 함께 더 채워보도록 하였고, 어느 정도 채워진 이후에는 서로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부분에 대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시

간을 갖았다.

- **기획, 준비** - 기안서(제목, 기간, 장소, 대상, 참가비 등) / 홍보(보도자료, 인터넷 홍보 등) / 사회 내외부적 요인 / 정보수집 / 협찬(후원단체) / 우천시 대체프로그램 / 차량섭외 / 참가자 모집, 접수, 입금확인, 안내문발송 / 강사섭외 / 주제설정(목표) / 민관 파트너쉽 / 잡다한 물품(펼기 도구 등) / 자원교사 모집, 교육 / 차량, 기기 준비물 점검 / 명찰(비상연락망, 프로그램 일정) / 인력 조직(스텝, 자원교사, 강사) / 여행자보험 / 모이는 곳, 도착하는 곳 확인 / 진행팀 사전모임 / 아이들(대상) 신상기록 / 경비(돈) / 강사준비사항 점검 / 자료집 / 단체내 브리핑 처장님 결재 / 날씨 확인 / 식사 및 간식 / 답사
- **진행** - 식사점검, 확인 / 소통 / 중간점검 / 기록(비디오, 사진, 일지) / 모듈별 관리(캐빈) / 팀웍 / 자료관리 / 안전(응급처치, 안전, 보건) / 취침 및 휴식배려 / 돌발상황 대처자세 / 프로그램(자연놀이, 미술, 소집단 레크레이션, 오리엔티어링, 틈새프로그램)
- **평가** - 후속프로그램 / 교사, 참가자, 학부모, 진행팀 평가 / 프로그램 평가 / 진행 및 전체평가 / 자료준비 평가 / 효과 / 관리(음식 등) 평가 / 스텝 또는 자원인력 관리 / 예결산 / 후속작업(참가자평가서 편지, 사진CD) / 공유모색

▶ 셀프캠프 기획하고 발표하기

- 세 모듈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제안되었으며, 투표 결과 "웰컴 투 생태마을" 이 다음 달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었다.

● Welcome to 생태마을

→ 2005년 11월 12~15일 / 홍성환경농업교육관 / 환경을 사랑하는 가족 / 1인당 5만원

- 사람들에게 변화를 주는 캠프
- 공동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옛 사람들은 어찌 살았나?
- 4인가족 → 10가족 예정
- 홍성 농업 교육관 → 오리농법으로 유명한 생태 마을
- 프로그램

1일 - 마음 열기 / 2일 - 음식 / 3일 - 옷 / 4일 - 집

- 음식 - 가마솥 밥해먹기, 메주
- 옷 - 헌옷 재활용 해 보기(대안생리 · 수세미)
- 주 - 에너지에 대한 고민
- 태양열과 태양광, 풀무학교 견학 /토론
- * 소비중심의 도시에서 벗어나 자연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 **두발로 떠나보자!** 무지개 유럽 배낭여행(7개국)

→ 대학생 15명 / 12월 10일 ~ 1월 9일 (19박20일) / 200만원

- 자전거 배낭여행

- 사전 모임

- 워크숍 1일 (서울 자전거 일주), 규제 x 억압 x, 서울시 환경상태를 먼저 알아보는..., 유럽을 충분히 돌면서 각자 느낄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상황과 유럽의 상황을 비교, 후원: 이미지 홍보로 기업후원
- 기획하면서 당장 갈 것처럼 너무 행복해함. 아이템→ 국토대장정

Q: 자전거는? A:서울에서 직접 가지고 간다.

Q: 안전문제는? A:15명이지만, 진행팀이 많이 갈 것이고, 의료팀이 자원활동가로 참가예정

● **Family Feel Jump**

→ 11월 25~27일 (2박 2일) / 바다의별청소년수련원 / 가족단위(10가족) / 3인가족 17만원(1인추가 6만원)

- 가족붕괴 · 아이들의 난폭성 · 가족간의 대화단절
- 가족간의 대화 · 가족 간의 역할 바꾸기
- 야간산행→ 아침해 보기
- 자연놀이→ 만들기 (협조 · 가족들의 추억)
- 궁극적 목적→ 가족들의 상담, 치유 마인드

<2> 후속모임 홈페이지 - <http://cafe.daum.net/campjump>

<3> 참가자 평가프로그램 활동자료 정리

- 전체 프로그램 참가자 28명, 전과정 수료 19명, 평가설문지 응답자 17명

☑ 가장 만족스러웠던 프로그램, 그 이유

- 캠프개론(3명) - 무작정 진행되었던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었다. / 캠프에 대한 정의와 체계있는 공부를 첨 해봤고 Y의 프로그램이 궁금해졌어요.
- 마음열기(6명) - 몸짓으로 언어소통 좋았습니다. / 스킨쉽과 온몸으로 자신을 표현할 때 좋았다. / 폐쇄적이지 않은 프로그램 / 다른 곳에서는 대하기 쉽지 않으므로, 나 자신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 셀프캠프점프 기획하고 발표하기(3명)
- 셀프캠프점프 기획-진행-평가 정리 워크숍(5명) - 여러 단체들의 상황들을 들 수 있었던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타단체나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 수 있어서.
- 아동심리 청소년 상담(3명) - 아이들을 만나거나 하면 대상으로만 끝나게 되는데 아이를 들여다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안전 보건교육(2명) - 안전교육에 대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다른 단체에도 꼭 하라고 해야겠어요. / 꼭 필요한 내용이었는데 접할 기회가 적었다.
- 자연미술(2명) - 기술을 위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니어서 참가자가 즐거웠고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 자연놀이(3명) - 평소 고민이 많았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 생태환경캠프 점프하기(2명) - 이해하기 쉽게 피부에 와 닿는 강의
- 전체적으로 만족합니다.
- 각 프로그램 나름대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돌아가서 되새기며 내면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짜주셔서 앞으로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개선되어야 할 프로그램, 제안사항

-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만큼 좀 더 현실적인, 사례를 많이 듣고 대안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
- 시간약속, 출발 및 도착 시간 정확히 했으면.
- 여유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 경험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더 있었으면...
- 실질적인 이론과 프로그램이 추가되었음 합니다.
- 방이 추웠어요.
- 안전교육시간에 캠프에 발생한, 할 여러 사례를 더 들었으면 합니다.
- 자연놀이, 미술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지점을 같이 이야기하고... 생태환경으로만 푸는 게 한계가 있다면 다른 것도 있다고 봐요. 그렇게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것들을 꺼리를 풀었으면 했습니다.
- 원칙, 기본 개념의 공유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 응급 치료하는 프로그램 시간 더 늘렸으면.
- 자유 시간, 휴식시간을 프로그램 사이에 30분 정도의 여유
- 출발부터 도착까지가 연결된 프로그램이라는 부분이 부족
- 캠프개론내용은 환경생태캠프의 특성이 살아있는 캠프의 강의가 아니었다.
-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주제를 찾아가는 내용이 있으면 마음을 열지 못하는 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료공유를 해주었으면. 이메일 혹은 홈페이지
-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즐렸다. 아이들의 심리상황이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 다음에 꼭 듣고 싶은 내용, 프로그램

- 각 분야를 좀 더 세분화, 전문화시킬 수 있다면 어떨까?
- 건강한 먹을거리와 관련된 내용의 강의
- 현장 활동가들의 좀 더 많은 경험을 들을 기회
- 철학적인 부분이 녹아들 수 있는 강의, 혹은 생명에 대한 부문
- 해외 환경현장 캠프 경험이 있는 분들의 이야기, 캠프의 주제정하는 법 - 다양한 주제 캠프 구별하기
-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싶고, 다른 선생님하시는 것도 봤으면 합니다.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프로그램 개발하는 교육
- 프로그램 기획의 실습과 피드백
- 일하면서 갖는 문제점 개선과 방향설정에 대한 참가자들끼리의 질의토론
-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계 속 인간. 토론
- 아동심리
- 심리프로그램 인간 대상

- 기행에 대한, 기획부터 평가단계까지 함께 해보는 기회
- 시간만 되면 그냥 믿고 옵니다.

활동여부

- [현재] 상근활동가(5), 대학생(2), 생태강사 혹은 생태안내자(3), 기타(환경 글쓰기인, 공부 중)
- [앞으로] 상근활동가(3), 생태강사 혹은 생태안내자(6), 자원 활동가(2)
- 환경교육센터의 캠프 자원교사 혹은 생태강사로서 활동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15)

참 / 가 / 후 / 기



‘셀프캠프’기획하고 떠나볼까?

이번 캠프는 주제부터 "셀프·캠프·점프"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 및 진행 전문가 양성과정 - 이라는 조금은 거창하기도 하고, 기대도 되는 캠프였다.

강화도 '바다의 별 청소년 수련관' 에서 2박 3일을 함께 보내게 될 참가자분들을 기다리며 이날은 아침이 아닌 오후 1시쯤 사직공원 앞에서 출발을 했다.

처음 만나는 약간은 서먹하고 어색한 분위기로 차를 타고 2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 어느새 강화도에 도착했다. 약간은 지친 모습들이었지만 숙소의 파란하늘과 푸른 숲속 풍경에 활기가 생기는 듯...!^^

강화도 수련원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숙소에 가방을 풀고, 잠시 주변경치를 감상 할 여유도 없이 이날 오후 프로그램을 위해 강당으로 모였다.

강당에는 참가자를 위한 유기농 음료와 맛있는 간식, 그리고 편하게 강의들을 수 있도록 배치된 책상들... 바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미리 도착해서 이것저것 애써준 사무국 진행팀에게 너무도 고마웠다.

이제 처음 만나는 참가자분들과 앞으로 함께 할 2박3일이란 짧고도 긴 시간을 알차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서로에게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를 소개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미리 준비된 골판지 종이에 자기 마음대로 표현해보고 싶은 모양으로 자기만의 이름표도 만들어 보았다.

조금은 서먹함이 없어진 듯 시간이 지나고 나니 첫 번째 프로그램인 환경캠프 정의란 주제를 강의해 주실 강사 선생님이 도착해 있었다. 늦을까봐 일찍 서둘러 출발했는지 예상보다 빨리 왔으며 열심히 준비하고 있던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약간은 생태환경캠프란 정의와는 다른 캠프 개념을 설명해서 조금 의아하긴 했지만, 생각 외로 많은 참가자분들이 관심을 보였고 반응도 좋았던 것 같다. 기초적인 것부터 캠프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쉽게 설명해 주었고 경험담에 따른 이런저런 사례들을 재미있게 얘기해 주었다.

캠프를 진행해 보면서도 늘 의문스럽고 단지 경험이나 얘기만을 통해 캠프를 해본 경험이 있는 참가자분들은 이번 시간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좋아하셨다. 이번 기회를 통해 캠프란 개념부분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 갈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역시 시간이 우리들을 식당으로 유인하는 고소한 냄새로 유인하기 시작했다. ^^~

배가 고파서이기도 하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해준 식사가 너무도 맛있어서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거의 없을 정도였다. 이곳에 오면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 남은 음식을 가져오면 비벼서 먹여 주신다던 수녀님 말씀이 아직도 생생... 그래서 그런지 이곳은 남아서 버리는 음식이 거의 없다고 하셨다.

강당 안을 촛불로 환하게 비추며 감상에 빠져볼 수 있었던 마음열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자유롭게 나를 표현해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처음에는 참가자 모두들 약간은 수동적이고 거부감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해지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

강당 안을 온몸으로 굴러보기도 하고 뛰어도 다녀보고 너무도 자유로운 기분에 자기를 표현 해 볼 수 있는 시간으로 재미있고 좋았다. 하지만 직접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캠프를 적용시키기에는 조금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어느새 얼굴엔 땀방울이 맺히고 맨발로 강당을 뛰어다니 우리들은 한두명씩 강당 마루에 너무도 자연스럽게 눕기 시작했다. 이대로 그냥 자고 싶을 정도로 나른한 기분이 들었는데 역시나... 어디선가 코고는 소리가 들리기도. 자기를 남 앞에서 표현한다는 게 누구에게나 힘들고 꺼려지는 부분인 만큼 이번 시간은 자기를 표현 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었던 것 같다.

어느새 주위는 칠흙처럼 캄캄해서 밤하늘에 별빛들만 빛나고 있었다. 잠시 아름다운 밤하늘을 쳐다보고 나니 눈의 피로도 확 사라는 것 같았다.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간으로 2모둠으로 나누어 강당과 숙소에서 참가자와 오늘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런저런 평가와 의견들을 얘기해 보았다.

전날의 피곤한 기색도 없이 모두들 아침산책을 끝내고 식당으로 한두명씩 모이기 시작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와서 그런지 한겨 몸과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다.

오늘의 프로그램은 적십자사에서 준비해준 안전교육, 생태환경캠프에 대한 기획과 진행, 평가부분에 대한 강의, 자연 놀이, 그리고 자연미술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를 진행하다 보면 너무도 중요하면서도 필요한 안전교육. 하지만 소홀하게 생각해서 예기치 못한 사고들이 생기게 된다. 처음에는 이론중심적인 설명들이 약간은 지루한 감도 있었지만 중간 중간 실제 상황들을 보여주기도 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함께 보면서 생각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할일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에 대부분의 대답이 119에 신고를 한다 였다. 하지만 강사선생님의 단호한 한마디는 자신의 안전을 우선시 하고 그 다음이 위험에 빠진 사람의 상황을 파악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모두들 약간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표정... 나도 마찬

가지였지만 다시 한 번 생명의 소중함과 결과에 따른 책임에 대해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끔 해 주었다. 좀 아쉬운 듯 다음에 기회가 될 실제 마네킹을 가지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음 좋겠다고 생각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했다.

오후시간은 야외에서 강사선생님과 참가자분들이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자연놀이와 자연미술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야외의 푸른 숲과 시원한 바람은 약간은 답답한 실내수업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시 활기차게 해주었다. 오랜만에 동심으로 돌아가 나무사이를 뛰어다녀보고 이리저리 풀 사이를 헤치며 보물찾기도 하고 간만에 생기를 찾은 모습들이었다.



< 포도껍질로 이쁘게 그려봐요... ^^ >

즐거운 자연놀이를 하고난 뒤 모두들 숲속에 마련된 나무책상과 의자에 모여 앉아 또 다른 강사 선생님을 기다렸다. 이것저것 많은 준비물들... 그 중에 한아름 신문지에 싸여 있는 국화가 눈에 띄었다. 순간 가을분위기에 빠진 듯한 기분이 들면서 모두들 저걸로 무엇을 할까 라를 생각이 동시에 들기 시작했다. 약간 출출한 배를 강화포도로 채우고 난 뒤 즐거운 미술작품을 위해 껍질로 그림도 그리고, 찰흙으로 국화를 이용한 만들기, 자연물을 나뭇대로 표현해보고 느낌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2시간이라는 시간이 너무도 짧게 느껴질 정도로 주위는 벌써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모두들 자신의 미술작품에 만족해하며 새삼 숨겨진 재능을 발견이라도 한 듯 기뻐하시는 분도 있는 듯 했다. 약간은 시간이 부족한 감도 있고 더 많은 정보와 의견을 나눠보고 싶은 아쉬움도 있는 캠프였지만 같은 문제를 공유할 수 있었고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만족스러웠던 것 같다.



<'셀프캠프' 기획하고 떠나볼까? >

참가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진행-평가해 보는 시간은 함께 고민해보고 프로그램을 모둠별로 짤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단, 시간이 조금 더 많이 주어졌다면 조금 더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나왔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참가자 모두들 기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금방이라도 배낭을 메고 어디론가 떠날 것 같은 맘에 순간 활기찬 얼굴들이었다.



<생태환경캠프 참가자들과 함께>

어느새 우리들은 떠나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다음 후속모임을 기약하며 짐을 다시 정리하고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다. 반딧불이도 보고 밤하늘의 별들도 세어보던 강화도를 뒤로 하고 서울로 올라왔다.

* 글 : 최진희 님 (환경교육센터 활동가, jinhee@kfem.or.kr)

[셀프가족환경캠프]

“웰컴 투 생태마을”

- 친환경적인 의/식/주 체험하기



때 : 2005. 11. 19~20

곳 : 충남홍성, 홍성환경농업교육관



√ 사업개요 (▶119쪽)

√ 참가후기 (▶121쪽)

사 / 업 / 개 / 요

가. 제목: “웰컴 투 생태마을”, 친환경적인 의/식/주 체험하기

– 셀프가족캠프, 캠프지도자양성과정 후속 프로그램

나. 목적(사업취지 및 필요성)

생태환경캠프 지도자 양성 워크숍에서는 교육과정의 하나로 참가자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본 프로그램은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에 의해 직접 기획, 준비, 진행하고 그 가족들이 참여하는 “스스로 캠프”를 통하여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공유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 사업내용

- 1) 사업명 : "웰컴투 생태마을" – 친환경적인 의/식/주 체험하기
- 2) 참가인원 : 참가자(어른 8명, 아이 9명), 진행 3명, 총 20명
- 3) 때 : 2005년 11월 19일(토) – 20일(일), 1박 2일
- 4) 장소 : 충남 홍성 문당리, 홍성환경농업교육관
- 5) 주최 : (사)환경교육센터
- 6) 후원 :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 주요 프로그램

- ; 생태마을에서 친환경적인 의/식/주 생활체험
 - 의 : 대안생리대 만들기, 헌옷 재활용, 천연염색 등
 - 식 : 유기농 먹거리 체험, 수수부꾸미, 팔죽 만들기 등
 - 주 : 생태건축 이야기나누기 및 체험하기, 생태마을 만들기 등
 - 특강 : 마을지도자 주형로 선생님의 열정적 특강!!

□ 일정

시간	11월 19일(토)	11월 20일(일)
7:00-8:00		일어나기
8:00-9:00		아침식사, 유기농 식탁 체험
9:00-10:20		특강. 그때 그 강의! (마을 지도자 주형로 선생님)
10:30-11:30		휴식 시간
11:30-1:00		생태문화체험 (3) “식” - 수수부꾸미, 팔죽 만들기 -
1:00-2:00		점심식사 및 짐 챙기기
2:00-4:00		홍성역으로 이동 (오후 4시 집결)
4:00-4:30	홍성 환경농업교육관으로 이동	서울로
4:30-5:30	짐정리 및 인사 나누기	
5:30-6:30	저녁 식사, 유기농 식탁 체험	
6:30-8:00	생태문화체험 (1) “주” - 생태마을 만들기-	
8:00-8:30	휴식 시간	
8:30-10:30	생태문화체험 (2) “의” - 대안생리대 만들기 -	
10:30-11:00	하루 나누기	
11:00-	취침	

참 / 가 / 후 / 기

"웰컴 투 생태마을", 살고 싶은 흥성마을 !!

정말 기후변화 때문인지, 유달리 봄과 가을이 짧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도 저 들녘 끝에는 벌써 대설주의보가 내렸다. 낙엽을 밟으며 어설픈 추억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한 채 가을을 보냈는데, 벌써 눈타령이라니...

지역의 진보적인 여성운동단체에서 환경사업을 하면서 상근할 때는 여성의 고된 현실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를 바꾸어내느라고 환경사업에 몰두할 겨를이 없었다.

그러다 잠시 쉬면서 환경운동연합의 비상근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보니, 가부장적인 분위기에 여성의 목소리는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여성+환경이란 화두는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까지 펼쳐가야 할지 참으로 막막하기만 했다, 에코페미니스트로 살고자 노력했던 많은 생각과 행동들은 운동이란 현실에서 어떻게 녹여내어야 할지...

8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해폐기장 반대운동을 하느라고, 지역의 단체들은 모두 다 진이 빠졌고, 사무실의 한 구석을 내 호흡으로 채우게 되었을 때, 정작 회원 사업은 무엇으로 시작해야할지, 속빈 강정처럼 허울 좋은 브랜드인 "환경운동연합"의 내실을 어디서부터 채워 나가야할지 머리를 (살 ~ 짹) 쥐어뜯는 고민을 하게 되었을 때, 마침 웰컴투 생태마을 만들기의 광고가 눈에 확 들어왔다.



- 아이들과 함께 생태마을 만들기에 참여하여 더 즐거워했던 부모님들. 아이들은 어디로 가고 엄마들만 남아서 일생일대 걸작품과 함께.

무엇보다도 내가 가고 싶어 하던 풀무학교가 있는 흥성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 더욱 나의 눈길을 끌었다. 전업 주부시절, 책임기모임에서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고민하면서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대안교육으로 떠오른 모델이 풀무학교가 아니었나?

게다가 마을지도자 주형로 선생님의 특강까지 덤으로 ?!! 주말의 대학원 특강까지 내던지고, 흥성행 기차표를 예매하면서 무조건 많이 배워서 내년 사업에 좀 더 많은 씨를 뿌려서 백 배, 이백 배의 열매를 거두리라 보따리를 챙겼다.

포항에서 아침 7시 25분 새마을호를 타고, 천안서 장항선으로 바꾸어 타고 흥성역까지 가는 동안 너무 흥분하여 휴대폰을 잃어버리는 난리까지 떨었다 (나중에 친절하신 역무원 덕에 찾긴 했지만...)

흥성역에 일찍 도착하여 다른 팀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구경하다, 쿨라텍도 눈요기하고, 붕어빵 아저씨네 포장마차에서 불곰만큼 덩치 큰 백구도 구경하고, 우리나라 모양의 대형 국화꽃 향기에 취하고....

서울팀이 다 도착하여, 흥성의 문당리에 도착하여 농업교육관에 도착했을 때 마을을 바라보니 정말 아주 넉넉한 터에 잘 자리잡은 명당 같았다, 남향의 넉넉한 눈에 서리내린 하얀 들녘은 바쁘고 고단한 제 몫을 다해내고 휴식하는 어머니 대지의 넉넉한 품을 보는 듯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든 황토찜질방을 보면서 농업의 위기를 정면으로 승부하여 이겨낸 든든한 여유있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설레었다.



- 생태마을 만들기, 아이들 고사리 손으로 조물조물...



- 엄마랑 함께 만들어 보는 생태마을 만들기

아이들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바깥에서 스스럼없이 잘 어울려 놀았다. 무엇보다 양치려 풀어놓아도 위험한 시설이 없으니, 주부 교육생들은 맘이 더 놓였다. 자연물을 가지고 생태마을 모형을 만들 때 모두 다 어찌면 그렇게 창조적이고, 신명나게 만드는지... 우리가 오늘 만나서 즉흥적으로 이런 모듬작품을 똑딱해낼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놀랍다. 그건 아마도 자연을 아끼고 사랑하는 풀잎같은 마음들이 모여서 이런 하나의 기도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 대안생리대 만들기. 대안사회를 생각하며, 손을 움직이며, 이야기꽃을 피웠던 저녁

늦은 저녁시간에, 대안생리대 만들기를 했다. 땅 속에서 완전히 썩고 분해되는데 100년 이상이 걸린다는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통, 요통, 질염 등을 일으킬 수 있어 무엇보다 여성의 자기 몸 돌보기에 우선해야할 과제가 면생리

대 사용이 아닌가 싶었다.

운동장에 펄펄잡하게 앉아서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하는 시골벽적인 바느질 놀이는 얼마나 오랜만의 일인지! 어린 시절 인형 옷 만들어 입히던 일들도 기억났다.

그 시절에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의 밝그레한 얼굴들이 한올 한올, 한땀 한땀 속에서 새록새록 생각나기도 했다. 무엇보다 초등학생인 여학생들이 너무 재미있어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도 열심히 만들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다. 흠질이 뭇지, 박음질이 뭇지 배워가던 아이들이 저렇게 재미있게 바느질 놀이를 즐기다니... 무엇이든 저렇게 즐길 수 있도록 해주어야 진짜 살아있는 공부가 될텐데, 죽어라 주입식의 공부가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소모적인 경쟁으로 내몰고 있는지... 중학생인 딸을 둔 엄마인 내가 도리어 깊은 혼란에 빠졌다.

아이들은 밤이 깊도록 놀고 떠들고, 또 부지런한 참새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호호 시려운 손을 불어가며 산과 들을 달리고 놀았다, 어린이의 해방구 베포스타인 것처럼 ...



- 마을지도자로 이제는 국제적 지도자가 된 주형로 선생님의 뜨끈한 강의.

아침에 군위에 있는 간디자유학교 학생들과 식사를 같이하고 마을지도자 주형로 선생님의 뜨끈한 말씀을 들었다. 우리나라 유기농 주곡, 잡곡 시장의 많은 부분을 공급하는 흥성마을에서 살아오신 개인적인 삶의 자취와 백년 앞을 내다보는 문당리의 비전을 보면서, 준비된 농촌만이 WTO의 높은 파도를 이겨낼 수 있음을 알았다.



- 수수부꾸미와 팔죽 만들기. 밖에서 놀다 건성으로 손씻은 개구쟁이 아이들의 꼬질꼬질한 손으로 만든 수수부꾸미와 팔죽 새알심이 얼마나 구수하던지.

점심으로 수수부꾸미와 팔죽 만들기를 했다. 재료가 끈끈한 수수는 잘 부쳐야 타지 않고 맛있다, 어린이들이 더 잘 하고 어른들은 옆에서 칭찬하면서, 먹고, 깔깔 웃고...

홍성역의 기차시간이 빨라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우리 포항팀은 일찍 왔다.

돌아오자마자, 교육의 약발(?)이 떨어지기 전에 “시골벽적 대안생리대 만들기 바느질 잔치”란 이름으로 여성들과 대안생리대 만들기를 했는데, 16명이 참석하여 기대이상의 반응을 보여 다음에 1월경에 다시 한 번 더 바느질 잔치를 열기로 했다. 여성들도 뜨개질이나 바느질을 같이 모여 두려 두려 수다 떨면서 하면 훨씬 재미있고, 정도 깊어진다. 작은 사업들도 인간과 만남과 내용이 어우러지도록 해야 할 터인데.

늘 머리를 쥐어짜도 지역에서 사업은 힘들다. 인력부족, 재정부족, 관심부족, 언론의 비협조...

그러나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더디게 가도 더 많은 사람과 손잡고, 같이 가리라.

상처많은 풀잎이 가장 향기롭고, 상처많은 꽃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 글 : 김차정숙 님(포항환경운동연합 여성위원장)

부 록



√ 생태환경캠프 교육일지·모니터링 일지 (▶ 129쪽)

√ 환경교육센터 소개 (▶ 142쪽)



✓ 생태환경캠프 교육일자·모니터링 일지

■ 교육일지(1)

(작성자: 최 진 희)

교육주제	“셀프캠프점프” -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를 위한 기획 및 진행자 양성과정				
교육일시	2005.9.28~30	교육장소	강화도 바다의별 청소년수련원	교육인원	28명
강사	성명	강혁, 권양희, 조혜영, 이종석, 반정운, 이현숙, 김정옥, 장미정			
	약력	강혁(YMCA), 권양희(햇살자연학교), 조혜영(강북청소년수련관), 이종석(적십자사), 반정운(도봉환경교실), 이현숙(숲연구소), 김정옥(꿈틀학교), 장미정(환경교육센터)			
교육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크숍1] 오리엔테이션, 소개게임, 기대와 희망 나누기 / 장미정 - 대안캠프로서의 생태환경캠프의 의미와 자세(캠프개론) / 강혁 - 마음열기, 인간관계형성 프로그램 / 조혜영 - [틈새]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캠프의 개념 나누기 / 장미정 - 생태환경캠프 기획·진행·평가단계 업그레이드하기 / 권양희 - 안전 및 보건교육 / 이종석 - 자연에서 놀기(1) 자연놀이 / 이현숙 - 자연에서 놀기(2) 자연미술 / 반정운 - [워크숍2] 캠프 기획, 준비, 진행, 평가단계 점검 / 장미정 - [워크숍3] 셀프캠프 기획 및 발표하기 / 장미정 - 아동심리와 청소년 상담 / 김선옥 - [평가] 하루나누기 및 전체평가 활동 / 장미정 				
준비물	자연미술 준비물(찰흙, 포도, 종이, 소곡, 셀로판지 등), 자연놀이 준비물(티 테잎, 잣, 자연물, 주머니 외), 마음열기 프로그램 준비물(초, 접시, 음악, 식탁보 등), 녹취 테잎, 비디오 및 테잎, 환경노래 음악CD, 워크숍 준비물(이면지, 신호등 용지, 모듈별 전지 외), 자료집, 필기도구, 참가자 기분 및 강의만족도 시트 외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환경캠프의 다양한 현장에서 같은 고민과 방향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들이 한자리에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됨. 후속모임으로 인적네트워크를 시작하는 프로그램이 됨. - 참가자평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한 만족도를 나타내어 역시 참가자들의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서로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나타남. 반면 짧은 일정으로 워크숍 시간이 부족했던 것이 아쉬움. 셀프 가족캠프의 경우, 기획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함. - 몇몇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 의도와 강의내용이 맞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음. 생태환경캠프는 현장에서 수없이 진행되지만, 이에 대한 정리 작업은 거의 없었음. 더불어 준비된 강사진을 섭외하는 것이 어려웠음. 				

■ 교육일지(2)

(작성자: 최 진 희)

교육주제	“Welcome to 생태마을” 의식주 체험캠프 - 셀프캠프점프 지도자과정 후속모임 가족캠프				
교육일시	2005.11.19~20	교육장소	홍성 문당리 홍성환경농업교육관	교육인원	20명
강사	성명	주형로, 남희정, 방인선			
	약력	주형로(홍성 마을 지도자, 홍성환경농업교육관 대표), 남희정(환경교육센터 소모임 ‘반박자’ 회장, 환경생태강사), 방인선(홍성환경농업교육관 사무국장)			
교육내용	“셀프캠프점프 지도자양성과정”의 참가자들에 의해 기획된 프로그램으로, 참가자 후속 모임으로 참가자 가족들을 주요대상으로 진행됨. - 인사 나누기 - 생태문화체험 (1) “주” : 생태마을 만들기 / 방인선 - 생태문화체험 (2) “의” : 대안생리대 만들기 / 남희정 - 그때 그강의 특강 / 주형로 - 생태문화체험 (3) “식” : 수수부꾸미, 팔죽 만들기 - 하루나누기 및 전체평가 활동				
준비물	생태마을 만들기(찰흙, 나뭇가지, 지푸라기, 작은돌, 낙엽 등 자연물), 대안생리대 만들기(면천, 바늘, 가위, 실, 뚝딱핀, 제분용 원본 등), 아이들 프로그램(신문지, 가위, 자연물, 노끈, 색연필, 크레파스, 등), 참가자 이름표, 필기도구 외				
평가	- ‘셀프캠프점프’ 지도자 양성과정 후속모임으로 워크숍에 참가분들이 제시한 주제를 가지고 기획된 캠프로 가족적인 분위기로 진행됨. - 아이들의 연령이 많이 차이 나서 어린이용 프로그램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음. 연령 차이나 구성원이 다양한 만큼 아이의 연령대를 미리 파악하고 이에 맞는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함 - 현실적이고 바로 사용가능한 대안생리대 만들기는 모두에게 관심도 많고 호응도 좋았음.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느질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대안생리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많이 얘기해 보지 못한 점이 아쉬웠음				

■ 캠프 모니터링 일지(1)

(작성자: 정 경 일)

사업명	하나되게 하소서 - 장애인과 함께 하는 통합캠프				
사업취지	천주교 교회안에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자연안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핵심어	자연, 하나되기, 통합				
기간	3박 4일	장소	이작도	대상/인원	중, 고등학생 50명
주최	단 체 명	천주교 인천교구 상동교회	연락처	032-653-7322	
인력구성 및 역할	진 행 팀	5명			
	자원인력	2명(장애 청소년 담당)			
	강 사 진				
주요 프로그램	이작도 밭기(지도 그리기), 이작도의 유령을 잡아라(야간탐험), 도전 미션임파서블(오리엔티어링을 통한 미션수행), 물놀이, 우리가 만드는 체육대회, 모듬 발표회				
모니터링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시설 안에서 지속적으로 만남을 유지해온 청소년이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간의 관계형성이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다. ○ 3박 4일간 캠프에 참가한 중, 고등학생이 직접 취사를 하기 때문에 학생간의 친밀도가 매우 높아진다. ○ 일상생활에서 장애 청소년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지만 캠프라는 공간을 통하여 장애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자연스럽게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 장애 청소년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섬이라는 장소에서의 캠프는 안전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장소적으로 격리되었다는 특성 때문에 캠프에 참가한 청소년이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하였다.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듬교사가 종교시설 안에서 봉사자로서 활동하는 한계 때문에 캠프가 갖는 성격과 의미에 대하여 이해가 많이 부족했다. ○ 전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한 모듬교사와 진행교사와의 역할 분담 및 결정사항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부족하여 교사 간에 의견의 일치가 잘 이뤄지지 않았다. ○ 캠프를 진행하는 시설들(숙박 장소, 샤워장, 교통수단 등)에 대한 확실한 정보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진행에 어려움을 갖았다. 			
	자원인력 활용 방안	종교시설에서에서 진행되는 캠프의 특성상 전체 진행팀의 인원을 개인적인 접촉으로 모집을 하여 인력을 확보함			
	특이사항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캠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함.			
평가	준비단계	애초에 기획하였던 캠프의 취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부족하였으며			

		캠프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생활적인 측면들에 대하여 세심한 준비를 못했음.
	진행단계	전체적으로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으나 교사간의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차이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함.
	평가단계	캠프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고민도 부족하고 참가한 교사가 모두 모이지 못하여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함.
	전체평가	교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캠프에 있어서 교사의 사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캠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였으나, 처음으로 진행된 통합캠프가 큰 사고없이 잘 마무리 된 것은 성과의 지점으로 남을 수 있음. 또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앞으로 장애 청소년과 비장애 청소년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음.

■ 캠프 모니터링 일지(2)

(작성자: 안 창 연)

사업명	2기 롯데 어린이 환경학교 (2기 캠프2회, 당일프로그램 1회, 1기 재교육 당일프로그램 1회 총 4회)				
사업취지	- 롯데백화점-환경연합-환경재단이 연계한 온-오프라인 초등학생 환경학교 - 자연을 사랑하고 누릴 줄 아는 자연친화적 인재, 미래 환경을 이끌어 갈 환경지도자 인재양성 - 어린이 환경공동체(커뮤니티) 형성				
핵심어	어린이, 환경,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기간	2005.5-2005.8	장소	서울, 강화도, 홍성, 시화, 축령산	대상/인원	초등4-6학년 / 110명
주최	단 체 명	환경운동연합	연락처	02)735-7000	
인력구성 및 역할	진 행 팀	15명 (4회 포함, 회당 4-5명 진행교사 참여)			
	자원인력	26명(회당 8-9명의 자원교사 참여)			
	강 사 진	강화시민연대(4), 충남홍성 문당리 환경농업마을 사무국(3), 교육문화연구소 바라기 닷컴(3), 시화생명지킴이(2), 수원문화유산해설자(1) - 총 13명			
주요 프로그램	차 시	환경교실 1	환경교실 2	환경교실 3	1기 재교육
	일 자	5.28(토)-29(일)	6.19(일)	7.23(토)-24(일)	8.17(수)
	장 소	인천시 강화군	충남 홍성군	경기도 축령산	안산 시화 갈대 습지공원, 수원화성
	주 제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적의 보물창고, "강화도 캠프"	몸을 살리는 건강한 먹을거리, "홍성 유기농 체험"	자연숲과 하천생태체험, 자연가 친구들과 하나되기	시화갈대습지공원, 수원화성 생태문화역사탐방
	주요 프로그램	모둠별 모임, 입학식, 마니산 탐방, 재활용 나뭇잎 탁본액자, 지점토목걸이 만들기, 치자·황토염색, 강화도 생태문화탐사(광성보, 농경문화관), 갯벌체험 등	자연농업 교육, 유기농 점심식사, 체험환경활동(농업유물관, 방앗간, 오리 입식, 감자 수확, 트럭타고 마을탐방 등)	몽골문화촌 탐방, 자연놀이, 신나는 물놀이, 나만의 8월 부채달력 만들기, 난타배우기, 공동체놀이, 축령산에서 편지쓰기, face painting 등	시화호 생명지킴이선생님과 함께하는 시화갈대습지공원탐방, 수원화성열차타고 수원역사문화 탐방

모니터링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환경재단-환경연합이 연계한 프로그램으로, 재정적 어려움 없이 수준높은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참가자에게 제공한다. - 110명의 참가자들은 또래집단의 활동을 통해 3회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갖는다. - 또한, 참가자들은 캠프와 연계하여 온라인 과제물 제출, 온라인 활동 등을 통해 지속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2일 캠프로 진행되므로, 환경전반에 대한 교육을 하기보다 체험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또한 대단위로 이동을 하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제약이 있다. - 일정한 참가비를 내고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며, 선발한 학생들이므로,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자원인력 활용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연합 홈페이지, 환경교육센터 홈페이지, 기타 NGO란 공고, 환경연합 회원 e-mail발송을 통해 자원교사를 모집하여 모둠교사로 참여한다. - 자원교사는 모둠교사로 활용되며, 각 모둠당 10명 내외의 학생들을 통솔하는 역할을 한다.
	특이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참가전화를 해도, 당일날 안 오는 참가자가 전체의 15% 이상을 차지한다. 그 외에는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평가	준비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롯데백화점-환경연합 간 다수의 온라인 의사소통과 회의를 통해 큰 윤곽을 잡고, 환경교실(캠프)에 대한 부분은 환경연합에서 진행한다.
	진행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교사-진행교사와의 의사소통이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나, 수차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호흡이 더 잘 맞았다. - 8월 캠프의 경우 날씨가 매우 무더운 관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매우 힘들었다. - 참가자들은 보고 배우는 것보다,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많았다(예. 오리입식, 갯벌체험, 고구마 캐기, 물놀이, 떡만들기 등)
	평가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교사 사전교육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아, 진행팀 간 의사소통이 약간 미흡하였다. 아이들 자유시간 없이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평가 때 지적되었다.
	전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박2일 캠프의 경우 시간제약이 많아 프로그램의 제약이 많은 편이어서 충분한 설명 없이 프로그램이 진행된 경우가 많았다. - 이동시간이 긴 편이어서(충남 홍성) 참가자들이 힘들어하기도 하였다. - 그러나 대부분 참가자들의 호응도는 매우 높았으며, 교사로 참가한 자원교사들 또한 즐거워했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3)

(작성자: 정 경 일)

사업명	비교체험 극과극 - 도시에서의 물 그리고 자연에서의 물		
사업취지	일상생활에서 잊고 지내기 쉬운 물에 대한 중요성과 환경문제로서의 물 부족에 대하여 인식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 또한 모둠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을 키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핵심어	물, 숲, 자연, 공동체		
기간	2박 3일	장소	가평군 약속의 청소년 수련원
		대상/인원	초등학생 33명
주최	단 체 명	서울의제 21	연락처
인력구성 및 역할	진행팀	2명(환경교육센터 활동가)	
	자원인력	4명	
	강사진	물 절약 수업 1명, 하천탐사 1명	
주요 프로그램	물 절약 이론수업, 애니메이션 시청, 오감지도 그리기, 숲 체험, 자연물을 이용한 해피하우스 만들기, 하천탐사, 물놀이, 내 생각 네 생각, 아름다운 세상 그리기, 전체 나눔, 세밀화 그리기, 물 절약 수칙 부채 만들기		
모니터링	강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별 활동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여 나눔의 시간을 많이 갖었다. ○ 비교적 소규모인 30명 정도의 인원이 캠프에 참가하여 주제의식 전달이 수월하였고 학생들도 집중도가 높은 편이었다. ○ 장소에 있어서 숲과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연체험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 진행교사와 모둠교사와의 역할 분담이 잘 이뤄져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진행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둠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학생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약간 부족했다. ○ 캠프 전 기간동안 학생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을 정하고 행동을 하지 못하여 교육효과가 약간 떨어졌다. 	
	자원인력 활용방안	향후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체험 프로그램에 있어서 자원교사(모둠교사)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함.	
	특이사항	초등학생의 경우 캠프장소를 서울시내에서 2시간 이내로 정하는 것이 캠프 진행에 좋음.	
평가	준비단계	캠프 진행 2주 전부터 다른 캠프와 프로그램으로 인하여 준비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음.	
	진행단계	전체적으로 일정에 맞게 잘 진행이 되었으며 애초 프로그램 기획취지를 충분히 잘 살리며 진행이 되었음.	
	평가단계	학생활동 평가서 발송작업으로 모둠교사가 캠프에 대하여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 평가가 잘 이뤄졌음.	
	전체평가	2박 3일 이라는 일정이 초등학생이 참가하여 활동하기에 적합한 시간이었고 숲과 하천이 있어서 자연을 체험하기에 좋은 장소적 여건을 갖췄으나 모둠교사의 사전교육이 부족하여 모둠활동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4)

(작성자: 박 민 영)

사업명	한림대 의료원 역사문화 캠프				
기간	2005.4.30 ~ 5.1	장소	안면도한림대 연수원	대상/인원	40명
주최	단 체 명	교육문화연구소 바라기 닷컴	연락처		
인력구성 및 역할	진 행 팀	임양혁(바라기 닷컴 대표) 한림대 의료원 스태프진			
	자원인력	모듬교사: 타 단체 1인			
	강 사 진	숲연구소 이 현 숙(생태)/ 바라기닷컴 최병석(문화)			
주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 해미읍성 탐방/ 공동체 놀이/ 흙 피리 만들기/ 염전 탐방				
모니터링	강점	아이들에게 자유시간을 충분히 주어서 아이들끼리의 유대감이 좋았고 선생님과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 배분이 좋았다.			
	약점	아이들의 생활 통제가 안되어서 핸드폰, 과자 등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었다.			
	자원인력 활용방안	모듬교사			
	특이사항	모듬교사와 강사가 일치되어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의 목적이 일치되었다. 교육내용이 확실히 보장된다.			
평가	준비단계				
	진행단계	프로그램별 이동이나 진행시 강사와 교사가 일치되는 것은 좋았으나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은 자원 활동가는 진행방법 전달이나 장소 및 시간 등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아 아이들의 질문에 답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러웠다.			
	평가단계	깊은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간단하게 좋은 점과 부족한 점만 집고 넘어가서 아이들과 모듬교사간의 후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아쉽다.			
	전체평가	교사와 아이들이 모든 시간을 함께해서 유대감이 좋은 캠프였지만 자원활동가에 대한 배려는 조금 부족하였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5)

(작성자: 박 민 영)

사업명	제 9기 푸름이 국토 환경대탐사 “강원도 구비구비 다시 자연의 시대로....”				
기간	2005.7.26 ~ 8.1	장소	강원도 일대	대상/인원	약 70명
주최	단체명	(사)환경교육센터, 양양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연락처	(02)735-8677	
인력구성 및 역할	진행팀	(사)환경교육센터 활동가 3인			
	자원인력	모듬교사: 대학생 자원 교사-3인, 타 교육단체 교사- 3인 진행팀: 자원 활동가-1인,			
	강사진	속초·고성·양양 환경운동연합/ 정선 아리랑 전수회/ 문화유적 자원 봉사			
주요 프로그램	통일전망대 탐방/ 해양 박물관 관람/ 화진보호, 송지호, 영랑호, 청초호 일주 및 탐방/ 설악산 등반/ 자연물 만들기/ 환경영화 보기/ 대관령 풍력발전 견학/ 오죽헌, 선교장 탐방/ 정선 아리랑 배우기/ 왕곡마을 탐방, 아우라지 마을 오리엔티어링/ 선암마을 탐방				
모니터링	강점	6박 7일간의 긴 캠프로 아이들과 우리나라를 구석구석 돌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아이들의 참여 의지와 성취감이 높은 캠프였다.			
	약점	기후 및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이동 시간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시간적 제약 따랐다.			
	자원인력활용방안	모듬교사, 진행-기록 및 사진 담당/ 일부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특이사항	국토 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처음 가는 지역을 도보 탐방하는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의 호기심과 기대치가 높았다.			
평가	준비단계	자원교사들에게 일부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게 하여 프로그램의 애착을 높이고 아이들과의 사전 전화 미팅으로 책임감을 갖게 했다.			
	진행단계	매일 평가회의를 통해 하루의 일정과 아이들의 상황을 체크하고 다음날의 일정을 논의하였다. 매일 새롭게 결정되어야 하는 상황이 많았고 그에 따른 논의 시간들이 길어졌다.			
	평가단계	아이들 개개인마다 자원교사의 평가서 작업이 이루어졌다.			
	전체평가	무엇보다도 참여자(아이들과 교사)의 성취감이 큰 캠프였던 것 같고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과 역할을 경험할 수 있는 캠프였고 공동체의식과 유대감이강해진 캠프였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6)

(작성자: 최 진 희)

사업명	중국여름 워크캠프			
사업취지	중국농촌지역 아이들의 환경교육 및 한국어 수업			
핵심어	워크캠프, 중국, 농촌, 환경교육, 한국어			
기간	2005.7.26~8.21	장소	중국 후난성 소석촌	대상/인원 중학생, 3반(56명)
주최	단 체 명	미국친우봉사회(AFSC)	연락처	www.afsc.org
인력구성 및 역할	진 행 팀	환경교육센터 1명		
	자원인력	자원봉사자 2명		
	강 사 진			
주요 프로그램	- 환경교육 : 환경이란/ 물의 순환 및 지구의 물은 얼마인가(실험)/ 농약의 필요성및 게임/ 지구를 보호하자(게임)/ 생태계 순환/ 천연염색 등 - 한국어수업 : 한글기초이론과 동요, 전통놀이, 한국의 문화 및 생활관습 등			
모니터링	강점	타문화권 학생들에게 환경수업 뿐만 아니라 한국이란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다.		
	약점	언어소통의 어려움과 짧은 수업시간으로 준비한 교육내용을 다 진행하기에 힘들었다.		
	자원인력활용방안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에 관심이 많은 활동적인 친구들이 많이 참가했음 좋겠다. 미국, 일본, 한국, 중국 네 나라의 자원활동가가 참가, 각자의 영역을 소화해내며 서로 소통하는 구조로 자원인력이 활용되고 있었다.		
	특이사항	각국 친구들(미국, 일본, 중국)의 교육방법과 사고방식 등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었다.		
평가	준비단계	지역에서 참가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서 사전모임을 2번 가졌다. 온라인상으로 자료와 의견교환을 하였지만 역시 부족한 감이 있었다. 충분한 사전모임을 통해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		
	진행단계	각자 한반씩 전담하여 한국어 수업을 하고 환경수업은 다같이 한반을 맡아 역할분담으로 진행하였다. 빠듯한 일정으로 약간 프로그램 회의가 부족한 면이 있긴 했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잘 해준 것 같다.		
	평가단계	45분 수업시간동안 통역을 하면서 환경수업을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감이 있었다. 간단한 이론수업을 하고 자연놀이나 실험을 하기에는 시간 빠듯해서 아이들의 얘기를 많이 듣지 못한 것이 아쉽다.		
	전체평가	외국에서 진행된 캠프는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와 준비물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물 점검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하며 프로그램도 상황을 고려해 다양한 대체프로그램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7)

(작성자: 박 민 영)

사업명	제 28기 환경교실 - 그린서울 청소년 대기 캠프 “푸른하늘 은하수는 어디 갔을까?”				
기간	2005. 8.13 ~ 8.14	장소	광화문 일대, 경기도 양평 명달리	대상/인원	약 30여명
주최	단 체 명	환경운동연합	연락처	(02)730-7000	
인력구성 및 역할	진 행 팀	(사)환경교육센터 활동가 3인			
	자원인력	없음			
	강 사 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 기후팀 안준관 팀장 / (사)환경교육센터 안창연 간사			
주요 프로그램	대기 샘플러 설치/ 숲 체험/ 태양열 조리기 만들기/ 밤 산책/ 대기 샘플러 분석/ 도심 및산의 흙 채취, 분석				
모니터링	강점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캠프			
	약점	연휴와 광복절 행사로 대기질 측정에 어려움이 따랐고 외부 사정에 따라 프로그램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었다.			
	자원인력활용방안				
	특이사항	사회 환경교육에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캠프			
평가	준비단계	짧은 준비기간과 홍보 미흡으로 참여자가 적었다.			
	진행단계	단체 참여와 저가의 참가비로 당일 취소자가 많았고 외부 상황으로 인하여 프로그램 진행이 어려웠으며 대체프로그램이 주제 전달성이 미약했다.			
	평가단계	깊이 있는 평가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			
	전체평가	청소년들의 특성을 깊이 파악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의 흥미를 계속 끌 수 있는 요소가 필요하다. 외부 환경을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과 대체프로그램의 목적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8)

(작성자: 안 창 연)

사업명	생기발랄!! 생기마을 산촌캠프				
사업취지	에코생협 조합원, 비조합원 가족을 대상으로 유기농산물을 수확하는 생산지(생기마을)에서 조금은 느리지만, 자연을 느끼고 체험하는 취지				
핵심어	산촌, 가족				
기간	2005.8.4-6(2박3일)	장소	춘천 생기마을	대상/인원	가족 / 16명
주최	단 체 명	에코생협	연락처	02)733-7117	
인력구성 및 역할	진 행 팀	8명 (에코생협, 환경교육센터, 생기마을)			
	자원인력	없음			
	강 사 진	환경교육센터(2), 산림청(1), 생기마을(3), 청평사(1) 총 7명			
주요 프로그램	청평호·청평사 생태문화탐사, 자연물을 이용한 슬라이드 액자·해피 하우스 만들기, 자연놀이, 숲 속 탐험, 물놀이, 농산물 수확체험 등				
모니터링	강점	- 생기마을은 자연조건 및 숙박조건이 매우 빼어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매우 유리했다.			
	약점	- 단, 처음 진행하는 캠프라서 참가자 모집, 프로그램 준비-진행-평가 모든 면에서 매우 미숙한 점을 보였다.			
	자원인력 활용방안	- 에코생협 직원, 환경교육센터 강사가 진행팀 병행			
	특이사항	- 참가자가 적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아이들을 통솔하는데는 문제가 적었다. 그러나 가족은 1팀이었고, 대부분 어린이 혼자 참가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연령층이 다양해 프로그램 난이도를 조정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평가	준비단계	- 프로그램 기획은 교육센터에서, 준비는 생협과 공동으로 준비를 했으며, 2회 정도 기획회의를 하였다.			
	진행단계	- 진행은 무난하게 진행되었으며, 진행교사의 사전 환경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조금은 허술하게 진행되었다.			
	평가단계	- 기획단계부터 매우 늦게 기획되어 참가자모집에 실패를 하였다. 그리고 진행교사의 돌출된 행동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체평가	- 처음 진행된 캠프라 미숙한 부분이 매우 많았지만, 생기마을의 자연조건을 잘 활용하고, 충분한 기획을 한다면 매우 훌륭한 캠프가 될 수 있으리라 판단한다.			

■ 캠프 모니터링 일지(9)

(작성자: 장 미 정)

사업명	2005 초록정치캠프 푸르락락				
사업취지	초록정치연대 회원참여활성화 프로그램				
핵심어	초록정치, 회원캠프, 가족				
기간	2005.10.1~2	장소	철원꺼지문화마당	대상/인원	회원 약 40명
주최	단체명	초록정치연대		연락처	www.greens.or.kr
인력구성 및 역할	진행팀	초록정치연대 사무국			
	자원인력	초록정치연대 회원모임 푸르세 회원			
	강사진	퀴즈프로그램 진행 - 조현옥, 도자기 체험 - 문화마당대표 등			
주요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퀴즈대회 : 초록정치, 두 시간만 하면 조현옥 만큼 한다. - 주제토론마당 : 2006지방선거와 초록정치연대 - 요리 못하는 남성들을 위한 요리강좌, 도자기 만들기, 놀이 - 숲체험, 디카 강좌 - 환경영화상영, 바비큐 파티 				
모니터링	강점	적극적 회원들이 참여하는 모임으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됨 문화공간들이 다양하고 주변자연이 풍부하여 자유롭게 시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좋았음.			
	약점	적극적 회원참여구조여서, 새로운 회원들이 적응하기 쉽지 않음. 이런 경우, 서로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성실하게 서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			
	자원인력활용방안	활성화된 회원모임 활용. 푸르세라는 청년모임 멤버들이 아이들을 돌보고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음. 가족 및 회원프로그램이어서 진행팀이 그리 필요치 않았음.			
	특이사항	가족회원들이 자녀들이 또래집단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어 좋았음.			
평가	준비단계	청년회원모임이 주축이 되어 준비되어 생기발랄한 분위기가 좋았음.			
	진행단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준비하고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좋았음. 잘 아는 회원들이 주축이 되어 서로 인사하는데 조금 소홀해서 처음 참가하는 사람들의 경우 어색한 일정을 소화해야 했음. 회원대상 프로그램이므로 참가비를 미리 받는 것이 참가자 독려를 위해 좋을 것임. 카풀차량 이용으로 입출입이 자유로워 유동자가 많은 것은 좋지 않음.			
	평가단계	활동사진, 활동소식을 빠르게 회원메일로 전달함.			
	전체평가	처음열린 회원가족캠프로 다양한 준비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였음. 신입회원에 대한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함. 정확한 참가규모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함.			

환경 / 교육 / 센터 / 소개

■ 환경교육센터 활동개요

(사)환경교육센터는 환경운동연합의 전문기관으로 환경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 2000년 2월에 창립되었으며 환경교육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비롯하여 사회환경교육 차원에서 대상과 주제별 내용을 구분한 교육활동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봉환경교실, 강화 마리평생학습원이 (사)환경교육센터의 지부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회원이 운영하는 소모임으로 유아환경교육 연구모임인 생각지기와 환경책읽기 모임인 반박자, 그리고 번역소모임인 희망지기가 있습니다.

▶ 주요활동

-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 현장 환경교육 지원 및 시행
-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 환경교육 정책대안 마련 및 국제 교류활동
-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및 보급



▶ 주요 프로그램

- 도심 속 체험교육(생태교육관, 인왕산, 선정릉, 궁궐 등)
- 유아환경교육 지정원 운영(교사교육, 교사·학부모정보지 발행, 현장체험교육)
- 푸름이 국토환경탐사, 환경캠프, 환경교실 등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
- 환경전문강좌, 반박자이야기마당 등 시민강좌
- 환경교육 시민지도자 및 활동가 교육
- 중국여름 워크캠프 등 국제교류 활동

■ 환경교육센터 회원가입 안내

"회원은 생명입니다. 회원은 희망입니다."

어린 시절의 낱말을 떠올려 봅시다. 반딧불, 여치, 방아깨비, 다슬기, 딱감기, 버들피리, 오두막 등 우리의 삶 속에 있던 낱말들입니다. 추억 속에만 남아있는 낱말이 아닙니다. 잊혀진 낱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을 통해 삶 속으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환경교육센터는 자연 속에서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어우러지는 삶을 추구합니다. 자연과 사람이 어울리고 사람과 사람이 어울리는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 도움의 손길에는

환경교육을 움켜쥘 씨앗(어린이) 회원	- 월 3,000원 이상 회비 납부
환경교육을 자라게 하는 새싹(청소년) 회원	- 월 5,000원 이상 회비 납부
환경교육을 활짝 피우는 나무(일반) 회원	- 월 10,000원 이상 회비 납부
환경교육을 함께 나누는 숲(가족) 회원	- 월 15,000원 이상 회비 납부
유아교육기관 회원	- 월 20,000원 이상 회비 납부
후원, 특별회원, 평생회원	

※ 회원이 되시면 환경교육센터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부하시는 금액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 문의

환경교육센터 사무국

전화. 02-735-7000(대), 02-735-8677(직)

홈페이지. <http://edutopia.or.kr>

이메일. edutopia@kfem.or.kr

[2005 생태환경캠프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종합자료집]

발행일 2005년 12월 27일
발행처 (사)  환경교육센터
주소 110-806 서울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연락처 전화 02-735-7000/8677, 팩스 02-730-1240
홈페이지 <http://www.edutopia.or.kr/>
후원 교보생명교육문화재단
